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9월 16일(음력 7월 28일) 수요일(주간)

사찰음식 대중화·세계화 나서

수원 봉녕사서 10월 8~10일 '2009 대한민국 사찰음식대향연'

햄버거, 피자, 핫도그…. 바쁜 생활 속에서 허덕이던 현대인들은 점점 간편한 것을 추구하게 됐다. 간편을 쫓는 문화는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이어져 식습관을 서구화시켰다. 인스턴트화된 가공식품을 섭취한 현대인들은 비만, 고혈압 등 각종 성인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부처님은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예방하라"고 말했다. 병을 예방하려면 섭생이 중요하며, 그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다.

웰빙 열풍과 함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건강식의 대표격인 채식이 주목받고 있다. 채식음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하면 당연 사찰음식. 사찰음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때 사찰음식을 제대로 보고, 먹고,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최초 사찰음식 대향연

수원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엄 · 사찰음식대향연 조직위원장) 등은 10월 8~10일 수원 봉녕사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9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한다.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문화도 함께 체험하게 될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찰음식 행사로는 유례없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음식을 주제로 문화 콘텐츠를 형성, 사찰음식이 대한민국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전시 · 시식 · 사진전 △다도 및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사찰음식 장터 △세미나 △사찰음식 문화축제의 밤-만찬과 공연 등이 펼쳐진다.

#사찰음식 체계화 계기 돼야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찰음식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사 조직위원인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소장)은 "사찰음식은 특별히 추천해 줄만한 음식이 없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 보충해야 하는 음식도 다르며 심지어 시간에 따라서도 그 조리법이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사찰음식의 대중화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찰음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사찰음식은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찰음식 DB 구축 중

이번 행사가 있기 전부터 조계종은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의 사찰은 조계종만 해도 3000여 곳. 가가호호 집집마다 음식이 다르듯 사찰음식도 절 마다 다르다. 또, 조리법과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사찰음식이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와 보급과 대중화에 어려움이 많던 것을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가 5월부터 지역별 · 사찰별로 DB구축화 작업을 시작했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이 아닌 약식이고 선식이며, 정신건강까지 다스리는 수행식"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찰음식은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가 수행자라고 했다. 음식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몸의 건강은 곧 정신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적인 사찰음식의 이론과 조리교육을 실시하는 '사찰음식 소임자교육'을 실시한다. 본말사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9월 28~29일 1박2일 동안 서울 일원동 비구니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사찰음식이 이러한 체계적 교육과 더불어, DB를 구축해 나간다면 사찰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찰음식 행사에 이러한 올바른 전달이 앞으로 사찰음식의 대중화 · 세계화를 통한 불교 포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4월 '한식 세계화2009'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지원을 약속했듯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이은정 기자



금란가사를 형제사찰인 대만 불광산사에 봉헌하기 위해 대웅전으로 입장하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30여 학인스님들.

대만 불광산사에 금란가사 봉헌

통도사 9월 9일, 대만 안녕기원하며 전달

'신라 취서산에 금강계단을 쌓고 성보를 모시면 만대를 두고 물, 불, 바람의 삼재(三災)가 없을 것이다.'

문수보살 친견으로 받은 석가모니 가사와 진신사리 등을 통도사 금강계단에 봉안해 신라땅을 편케 한 자장 율조(律祖)의 뜻일까.

태풍 모라꽃으로 인해 50년만의 최대 인명피해를 입은 대만의 안녕을 위해 통도사 금란가사가 전해졌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9월 9일 형제사찰인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해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봉헌했다.

이번 봉헌된 금란가사는 선덕여왕 6년(636년) 자장율조가 고국 신라로 돌아와 봉헌한 이후 지금까지 보전되던 부처님 가사와 자장율조의 가사를 근본으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봉헌식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불광산사 주지 심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승가대 30여 스님과 대만 불자들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이번 가사전달에 이어 10일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스님을 친견하고 태풍 모라꽃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미화 2만 달러를 전달했다. 대만에서는 모라꽃으로 인해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금주의 Hot……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14선지식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08불자들



뮤지컬 연출가
백재현
19문화

사람

창립 30돌 불교어머니회 김옥분 회장

훈련소 입소 장병 내 아들처럼…



젊은 어머니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김옥분 회장.

30년간 묵묵히 하나의 원력으로 걸어 온 사람들이 있다. 30년 외길 장인기업 S표 간장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국군훈련소 최고(最古) 지원단체인 불교어머니회 이야기다.

1979년 정릉 삼보법회로 시작한 불교어머니회는 그동안 훈련소 군장병들의 뒷바라지에 매진해왔다.

훈련소 가는 길이 비포장이던 시절부터 어머니들은 쌀 7~8 가마니 분량의 떡을 날라 훈련병들의 배고픔을 달랬다. 매월 평균 5000~6000명, 불교어머니회 어머니들의 손을 거쳐 간 훈련병들은 100만 명을 넘는다.

9월 8일 만난 불교어머니회 김옥분 회장은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시 수계증 제작과 다과 준비 등을 주로 돕고 있다"며 "창립 초기 구치소와 교도소, 경찰병원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현재 훈련소와 군법당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산이 세 번 바뀐다는 30년이 흐르는 동안 불교어머니회에도 애로점은 쌓여갔다.

먹을 것이 없어 떡 하나 먹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웠던 시절에서 먹거리 만으로는 법당에 오지 않는 젊은세대로의 변화가 어머니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훈련병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반야심경과 삼귀의, 오계 등이 담긴 신행볼펜을 선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

"많으면 한 달에 5000명이 넘게 수계를 받는데 개 당 350원하는 볼펜도 부담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김 회장은 "젊은 어머니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함께 해 온 어머니들 나이가 50~70대가 돼 수계증 코팅부터 간식포장까지 잔손이 가는 행사준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어머니회는 이러한 어려움도 창립 초기의 발심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50여 회원들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국방부 호국원광사 정기법회를 비롯해 월 2회 수계준비모임, 월 2회 훈련소 수계법회 동참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 8월에는 30주년을 맞아 호국 원광사 내에 보금자리도 마련했다.

"솔직히 너무 힘들 때는 왜 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훈련병들의 검게 탄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훈련소에 입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 켠에서 눈물 짓던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대신해 오늘도 불교어머니회는 힘차게 뛰고 있다. 젊은 어머니들을 비롯한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010)9474-7267

노덕현 기자

법구경
멀리 더 멀리 보는 이는
집착의 집을 떠나
높이 더 높이 난다.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패
용도: 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찹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10조에 의한 제24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 광고입니다.

원융화합으로 한국불교 태고종을 새롭게 일으키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 24대 총무원장 후보 대은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께 귀의하오며,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의 선지식, 원로 대덕스님과 종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50여 년간 넘게 종무행정과 포교의 소임을 맡아 온 소납은 위로는 종단의 원로스님을 잘 모시고 도반과 후배스님들과 함께 전통종단의 역할과 발전을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자세로 봉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 24대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5대 종책기조와 10대 실천방향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과 문화, 복지를 구현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1) 정통종단의 정체성 확립
종지 · 종풍의 확립으로 수행풍토를 조성하고, 정통성 정립을 위한 의식 · 의제의 통일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재조명을 통해 정통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2) 종무행정의 체계적 개선
중앙종무기관의 종무행정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종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종찰 주지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각급 기관장 등의 선거제도 개선으로 모든 종도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민주적인 종무행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3) 종단재정의 투명한 집행
종단소유 사찰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총무원 및 각급 종무기관의 감사제도 정립과 태고원, 복지법인 등 산하 유관 법인단체의 운영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선도적 종도교육과 육성
종단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종단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유능한 신진인사의 종무직 배치 등을 통해 종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법사 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통해 육부중으로서의 종단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5) 문화복지 실현 기반조성
무형문화재(제50호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종단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강화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문화 · 복지 종단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원기반과 연구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종단 승려의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대 실천방향

1) 종헌 · 종법의 계승 및 재정립을 통한 정통종단 위상 강화
2) 종단사 재정립을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
3) 종단 전통의제 및 의식 제정과 통일안 마련
4) 총무원 권한의 지방교구종무원 이양으로 지방분권화 추진
5) 삼보정재의 관리를 위한 종무행정 개선과 대책마련
6) 사설사암의 자주권 보장과 종찰 재산의 투명한 공개 및 공정한 인사
7) 법계제도 개선과 승적확립을 통한 종단 위계질서 조성
8) 기본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육원 활성화
9) 종단 승려의 노후 수행환경 보장을 위한 재정 확보
10) 포교원의 활성화를 통한 대사회 참여 확대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대 은 합장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제2의 '여시아문'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불교계를 비롯해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불서들의 종수가 부쩍 늘었다. 불교출판 업계에 따르면 평년의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불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불서들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이를 비치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IMF 관리체제 이후 계속된 불황 여파로 불교출판 시장이 위축된 데다 조계타운 인근의 영풍문고, 교보문고의 불서코너 마저 기독교 코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축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불교전문서점도 서울 성신여대역 인근의 불서총판 운주사와 부산의 영광도서를 제외하고는 대형서점이 전무해 불서 유통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서를 사랑하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로부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불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됐던 '책방 여시아문'의 부활이나 그에 준하는 대형 불교서점의 출현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100여 평 규모의 대형 불교전문서점을 오픈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불교학의 권위자로서 평소 문서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0월말 퇴임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회향하는 중요한 불사다. 총무원이 조계사 건너에 위치한 템플스테이센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에 불교서점을 개설, 향후 공간을 넓혀가며 불교계 최대의 전문서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무원에서 예산 및 설계 등을 기획 중이라 서점 오픈까지는 시간이 충분치 않겠지만, 이왕 직영 서점을 개설할 바에는 불교출판문화협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컨설팅을 거쳐 불교계에서 자랑할 만한 '제2의 여시아문'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조계타운의 명물이었던 책방 여시아문이 국내외 최신 불서를 구비함은 물론 스님과 불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책까지 구해서 판매하는 도서관 역할까지 했듯이, 총무원 직영서점도 불자들이 아끼는 명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기독교계의 선교 전략을 보더라도 고학력 사회에서 식자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문서포교가 절대적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조계종도 직영 서점 개설을 계기로 '불서 읽기' 붐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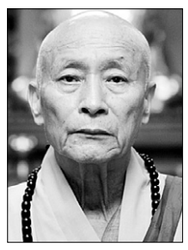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종책

대승교화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종단화합을 통해 태고종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총무원장은 누가될 것인가. 9월 22일 태고종 제 2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마친 스님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고종은 9월 7일 서울 사간동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오는 9월 22일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개최할 것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후보는 전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과 전 중앙종회부의장 대은 스님,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 스님, 금둔사 주지 지허 스님 등 4명이다. 아래는 각 후보의 출마의 변과 종책 및 비전 등이다. **노덕현 기자**

■ 인공 스님

"종단 안정·도약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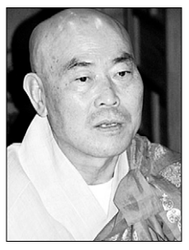
인공 스님은 "우리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단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종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인공 스님은 출마에 앞서 △전통 수행종단 정체성 확립 △종단 화합 및 단일공동체 실현 △우수 인재 육성과 사회적 영역 확대 등 3대 지표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과제는 △종무조사 실시 △신촌 봉원사 문제 등 종단부채상환 △종단제도개혁위원회를 통한 종단제도개혁 △각 사찰 특성화 및 활용 방안 수립 △사회교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특히 인공 스님은 종단제도개혁에 대해 △승려 득도 및 종단교육제도 △종단 및 사찰 재산관리제도 △종단기구 및 인사 제도 △각종 분담금 징수제도 △집행자 독주 및 전횡을 막는 제도 △종단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 등을 통해 집행부 전횡 방지 및 종단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을 밝혔다.

■ 대은 스님

"복지종단 구현에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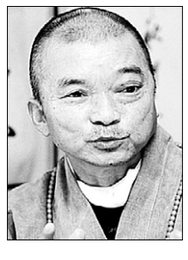
대은 스님은 출마선언으로 "원융산림을 바탕으로 종단 화합과 안정을 이루고 전통 · 문화 · 복지종단 구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은 스님은 5대 종책기조와 10대 실천 방향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5대 종책기조는 △종단 정체성 확립 △종무행정체계 개선 △종단재정 투명집행 △선도적 종도교육과 육성 △문화복지 실현 기반조성 등이다. 이어 스님은 10대 실천방향으로 △종헌종법 계승 및 재정립을 통한 전통종단 위상 강화 △종단사 재정립을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 △종단 전통의제 및 의식제정과 통일안 마련 △총무원 권한 지방교구종무원 이양으로 지방분권화 △삼보정재 관리 종무행정 개선 △사설사암 자주권 보장 및 종찰 재산 투명공개 및 인사 △법계제도 개선과 승적확립 통한 위계질서 조성 △행자기본교육 등 교육제도 개선 △승려 노후 수행 보장을 위한 재정확보 △전법사 지위강화 등을 제시했다.

■ 지허 스님

"전통선원 및 강원 개설"



지허 스님은 "1600년 전통불교의 실체인 태고종의 연륜이 어느덧 40년이 흘러 새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였다"며 "분골쇄신해 종단의 청정가풍이 만대에 전하도록 정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6대 종단운영원칙을 제시했다.

6대 종단운영원칙은 △선교양종 이념 정립을 통한 교체 확립-전문학술기구 신설, 종단 직영 전통강원 및 선원 5개소 개설 △교육권 독립을 통한 수행풍토 조성-총무원 산하 중앙교육원, 권역별 각 지역교육원 및 교육기관 신설 △경영 자문 통한 종단 재정 독립-종단 부채 책임상환, 유지재단 법인 활용한 영리사업 추진 △원칙과 배려를 통한 승단 화합-광역시 고등 사정기관 신설, 지방종무원 전산화 지원, 정기 종도토론회 개최 △현대사회를 향도하는 승려상의 정립-대중적 도심포교 제도 마련 △신도회, 청년회 등의 운영지원, 전법사와 교임 등의제신설과 의식 통일 등이다.

■ 도산 스님

"종단 화합에 주춧돌 될 것"



도산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또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생사를 초월한 결단과 행동으로 화합과 안정을 이루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도산 스님은 6대 종단운영방안 그에 따른 세부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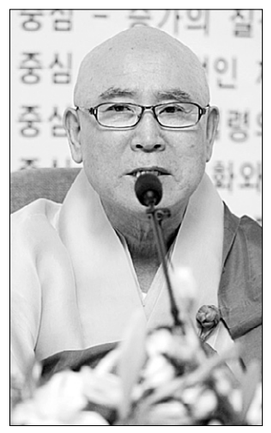
도산 스님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종단운영-종도참여 심판제도 등 마련 △민주적 종권 창출-종도직선제 도입 등 총무원장 선거법 및 각급 선거법 개정 △전문 경영 도입을 통한 재정자립-경영 전문가 초안체계 및 중앙종회 감사 제도화 △종헌종법 확립으로 자의적 관습 타파-처벌조항 종법통합, 제재조항 조례화, 개인사찰 재산권 보장 종법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무행정 운영-직영사찰 주지 순환임명, 종단운영 재무재표 공시 △종도 참여제도 활성화-종책 세미나, 지방종무원 토론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이력 등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참조.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선언-종하 스님

"낮은 자세로 종단 장엄하겠다"

3대 비전과 7대 운영기조 밝혀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사진)이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후보로 첫 출사표를 던졌다.

종하 스님은 9월 7일 주석처인 서울 관음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과 향후 선거 운동 일정을 공개했다.

종하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낮은 자세로 종단을 아름답고 멋있게 장엄하겠다"며 "종단 일선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각계의 많은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종하 스님은 "선거 분위기가 너무 뜨지 않는다는 지적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각 유력후보들은 할 마음이 있으면 출마의사를 표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비전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과 청정성을 충분히 검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하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교와 역사를 책임지는 조계종'의 3대비전과 '종단발전의 초석'이라는 7대 운영기조를 공개했다.

3대 비전으로는 △발로참회를 통한 대화합으로 거듭나는 청정한 조계종이 되자 △종단 운영의 투명화로 유 · 무형 삼보정재의 가치를 높이자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며 역사를 일구는 한국불교가 되자 등을 제시했다.

7대 종단운영 기조로는 △사부대중 중심- 젊은 사고와 열린 대화의 민주적 원장 △인재양성 중심- 승가의 질적 · 양적 발전 △제도개선 중심- 혁신적인 제도개선으로 종단 백년대계 설계 △종단위상 중심- 관련 법령 정비로 종단 위상 제고 △인류평화 중심- 인류평화와 통일한국 초석 마련 △재가불자 중심- 종무원과 재가활동가 적극 지원 △우선사업 중심- 종단 당면문제 우선해결 등을 제시했으며, 10월 12일 선거대책본부 발족을 겸해 50대 핵심종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스님은 이날 비전 제시에서 사회정화와 문화증진을 위해 정신적 수행 차원에서 사회를 이끄는 불교 운동인 '불교 소프트파워 운동'을 전개할 것도 밝혔다.

종하 스님은 "금권 및 파벌로 인한 분열 선거를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종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능력과 위상 등에서 훌륭한 분이 후보로 나선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종하 스님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9~10월 중 후보자 검증 공동기자회견과 2회 이상의 후보자간 토론회 개최도 제안했다.

한편, 종하 스님은 1938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해 1958년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1959년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범어사 강원 졸업 후 통도사, 봉암사, 범어사 등 선원에서 6하안거를 성만했고, 197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72년부터 제 4~12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1977~83년 조계종 총무부장, 1985년 조계종 부원장, 1987년과 1992년 조계종 제9 · 10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지냈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 불교방송 이사장도 역임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이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계 신종플루로 각종 행사 연기

병불련, 조계종 행자교육원 입교 행자 대상 신종플루 예방검진 실시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이하 신종플루)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는 9월 5일 공주시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7기 행자교육원 입제에 앞서 입교행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검진을 실시했다. 또 행자 교육 일정을 23일에서 14일(9월5~18일)로 단축하고, 대중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교육방식도 2~4인실로 나눠 생활하도록 했다.

조계종 영축총림 본사인 경남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9월 22일 양산천에서 건국 이래 순국열사와 충의장병, 무주고혼을 천도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수륙방생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가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또한 통도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단양보건소 직원들이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 입장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대중 및 참배객의 보호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정자나 의심이 가는 증상을 가진 자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9월 20일 개최예정이었던 '2009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취소했고, 직지사 · 갑사 등 템플스테이 사찰들도 일정을 연기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6일 열린 '제36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에서 참가자와 입장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대회 당일 단양보건소 차량을 상주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국대는 개강인 9월 1일부터 4일까지 혜화문과 후문에서 오전 등교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게 항균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상록원 등 교내식당과 중앙도서관, 만해관 등에는 손세정제를 설치하는 등 신종플루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 확보 및 투여 방침과 대응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난 8월 2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예방접종이므로 조속히 백신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며 "예방백신 공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후 11월 중순경에 접종을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의료인, 임산부, 학생 및 군인 등을 유행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규모, 전 인구의 27%인 1366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청와대 여권 인사 불심잡기 행보

박형준 정무수석 통해 MB 난 보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예방

추석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 및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취임 등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쇄신과 민심수습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불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9 · 3 내각 개편에서 '불교계 마당발'인 주호영 국회의원의 특임장관,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방부장관 발탁 등 '고소영' 색채 털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8일 신임인사차 예방한 박형준 정무수석을 통해 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이 선물한 난에는 '불광변조 덕화무궁(佛光遍照 德化無窮)'이란 문구가 담겼다. '부처님의 광명은 온 세상에 두루 비추고 그 덕화는 끝이 없다'는 의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반갑게 맞고 있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 박 정무수석은 "인사 가겠다고 보고하니 대통령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으며, 현진권 시민사회비서관은 "주호영 의원이 특임장관을 맡게 돼 일부에서 종무장관이라고도 한다. 앞으로 불교계 소통부재로 인한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대통령께는 한번 인사하겠다. 불교계와 정부가 소통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 예방에 이어 9월 10일에는 8일 한나라당 당대표직에 취임한 정몽준 대표가 총무원을 예방했다. 정 대표의 총무원 예방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종교계 발걸음으로 예방에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前국회정각회장)과 안홍준 의원(정각회 부회장), 조윤선 대변인 등 불교계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했다.

지관 스님은 정 대표에게 "불교에는 말을 초월해 이심전심하는 '무설설(無說說)'이 있다. 이심전심으로 서로 이해해 가며 각 분야에 갈등이 없게 하는데 함께 노력하자"며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당부했다.

이날 정 대표는 지관 스님과 30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통해 남북경색 국면해소에 대한 불교계 협조방안 등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東大 '불교특성화장학' 불교학부에

2010학년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원 장학 혜택을 받게 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 '불교특성화장학'을 신설해 2010학년도 불교학부 신입생부터 전원 장학 혜택을 준다"고 9월 8일 밝혔다.

'불교특성화장학'은 불교학부 신입생 중 상위 30%는 등록금 100% 면제, 차상위 30%는 등록금 70% 면제, 나머지 40%에게는 등록금 50%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불교아동학과 신입생 일부에게도 동일 혜택이 주어진다.

동국대 측은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불교특성화장학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
1. 일시: 9월 26일(토) 오후 1~5시
2.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별자리광장)
3. 코스: 월드컵공원 난지순환길(6㎞)
4.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누구나
*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예정
5. 접수기간: 9월 21일까지
6. 신청문의 및 접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www.lisa.or.kr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 등 8개 불교언론사
후원: 행정안전부, BS HLA Lab, 녹십자 의료재단, (주)은은, 서울메트로 안국역
모금계좌: 농협 053-01-271485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연골재생기술 개발 25억 지원

동국대 임군일 교수, 교과부 사업선정

동국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기반 기술개발사업과 핵심연구사업에서 34억 원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에 동국대 의과대학 임군일 교수가 '무세포이식 연골재생기술 개발'을 주제로 선정돼 매년 5억 원씩 5년간 2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임군일 교수가 선정된 교과부 사업에는 120여 과제가 집중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수도권에서는 1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동국대와 서울대, 경희대만이 선정됐다.

임 교수가 교과부에 제출한 과제는 세포 이식 없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존 세포 이식을 이용한 연골재생 기술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교과부가 시행중인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은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09년도 핵심연구사업'에는 동국대 임중연 · 임현식 교수가 선정됐다.

'생체지지체의 최적 설계를 위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선정된 임중연 교수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임현식 교수는 '스핀 기능을 이용한 저 전력 고속 Si 이종접합 소자 연구'라는 주제로 핵심연구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한편, '2009년도 핵심연구사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초연구의 정착과 기초연구 역량 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쌀 · 연탄 나누기

아름다운동행, 추석맞이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이 올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자비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사찰과 함께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추석맞이 아름다운동행 쌀 연탄 나누기'를 진행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추석을 맞아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이웃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쌀 20㎏ 700포, 연탄 3만6000장을 지원하며 지역 사찰(서울 조계사, 오산 대각사, 대전 고선사, 대구 동화사, 양산 통도사, 광주 원각사 등)과 협조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에는 아름다운동행이 지원하는 물량 외에도 해당 사찰의 물품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고, 앞으로 쌀 연탄나누기 사업이 정례화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6·15공동선언 등 이행촉구 나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범국민서명운동

6 ·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는 9월 7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 · 15 공동선언과 10 · 4 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6 ·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증진을 촉구했다.

김상근 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6 · 15공동선언과 10 · 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뜨겁게 모아낼 것이다"고 전했다.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북미관계는 해빙기로 접어들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경직된 자세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번 운동이 작은 불씨가 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말했다.

6 ·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번 서명운동을 시발점으로 △남북관계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6 · 15공동선언과 10 · 4정상선언 결의안' 통과 호소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 등을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10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취합된 서명자 명부는 청와대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된다.

현편 6 · 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9주년을 맞은 6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범국민실천대회를 열고 남북공동선언이 평화통일 달성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의 통일선언이라면서 6 · 15 공동선언과 10 · 4 선언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박선주 기자

한가위 선물 세트 할인판매!
사랑하는 이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예쁜 복주머니 팩에 포장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연-곱단이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곱단이의 모든제품에는 석유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않습니다.
SLS, SLES, ALS, ALES (석유화학 첨가물)등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정제 주원료 100%
야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大緣 인연
곱단이
콜라겐
헤어 샴푸 ₩24,000 700g
젤 바디 샴푸 ₩24,000 700g
젤 클렌징 ₩12,000 150g
헤어 트리트먼트 ₩20,000 240g
스킨 ₩25,000 140g
에센스 ₩40,000 50g
파우터 로션 ₩38,000 150g
183,000 = 80,000원
105,000 → 50,000원
60,000 = 30,000원
심청골 무각사 주지스님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인연'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보급합니다. -
순수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친화적인 바디케어 제품
"아름다운 인연 곱단이"
총 판 대 리 점 모집중
http://www.gobdane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과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곱 단 이 를 검색하세요
주문 : 무료전화 080-363-8985
판매원 : 아름다운인연-곱단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309)
제조원 : (주)펩티모

명상마을 · 빨리대학원대학 설립

상좌불교한국명상원 사단법인 허가 취득… 수행자들 스스로 기금마련

10여 년 전부터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에 보급되며 수행기관만 3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남방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 Theravada Buddhism)가 본격적인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전통상좌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상좌불교한국명상원(이사장 묘원, 이하 명상원)이 8월 5일 사단법인 허가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명상마을 조성과 대학원 대학 설립에 나섰다.

명상원은 한국위빠사나선원 설립 5년 만에 선원을 다녀간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기금마련으로 법인화의 길을 열게 됐다. 수행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이뤄낸 이번 성과는 한국불교 수행 풍토에 새 반향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명상원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가평명상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에 1만여 평 규모로 조성 중인 명상마을은 집단 명상시설과 회원들을 위한 공공시설, 회원 개인주택 등으로 현재 주택지 분양 중이다.

명상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우 떼자니아 스님, 우 소바나 스님 등 상좌부 불교의 선지식을 미얀마에서 초청해 지도법사로 모시고 위빠사나 · 탁발 수행, 전통불교의식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평 명상마을에는 법당, 식당, 도서실, 어린이집과 함께 한방병원, 명상공원 등이 마련된다. 또 노후 보장 · 어린이 교육을 위한 시설과 천주교 신부 · 수녀, 외국인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묘원 법사.

묘원 법사는 "명상마을은 회원 뿐 아니라 가평 일대 주민과 서울 시민 등 일대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 자연농법수행자들과 함께 천연 먹거리 등으로 자급자족도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라며 "현재 명상마을은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자하는 의사, 교수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명상원은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해 가칭 '빨리 대학원대학'도 설립할 계획이다.

묘원 법사는 "빨리 교육, 마음 · 몸 · 느낌 · 12연기 수행, 사마따 수행, 경전 강좌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빨리 경전 역경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에는 언제나 수행이 가능한 공간과 기숙사 등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기심과 괴로움 치유 등을 위해 선원을 찾았던 3500여 회원들은 '정법의 맛'을 보고 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선원을 찾고 있다. 특히 선원은 수행 외에 어떠한 불교의식을 행하지 않아 남녀노소 불문하고 종교를 떠나 다양한 종교의 수행자들까지도 찾아오고 있다.

묘원 법사는 "수행은 탐 · 진 · 치 삼독을 소멸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장작을 오래 비벼야 불이 붙듯 일정기간 번뇌 소멸을 위한 집중수행이 필요하다"며 "집중수행을 위한 수행처가 필요했고 이에 선원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명상마을 조성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는 "정법을 바탕으로 해왔기에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고 믿는다. 가피는 곧 정법이라고 생각한다. 나 개인을 위한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수행법 전수를 많은 이들이 원하고 있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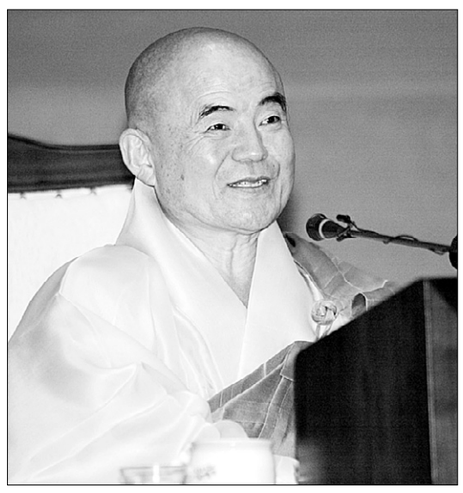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소승불교라 폄하돼 왔던 상좌불교는 테라(thera, 장로들)와 와다(vada, 말씀 혹은 교리)의 합성어로 '장로들의 교의(敎義)'라는 뜻이다. 빨리삼장(三藏)에 토대를 두고 수세기 동안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서양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02)512-5258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마음 비우면 '신심명' 그대로 체득"

불교인재원, 혜국 스님 '신심명' 9일 첫 강의

"<신심명(信心銘)> 146구절은 우주의 진리가 담긴 깨달은 이의 언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언어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뤄진 <신심명>은 자기 마음의 벽을 허물고 비운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요, 지혜의 문제다. 마음을 비우면 <신심명>은 그대로 체득된다."


혜국 스님.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주최하는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의 <신심명> 첫 강의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신심명> 강의에서 혜국 스님은 화두참구 때의 어려움, 손가락 연비 사건, 성철 스님과 공부한 이야기 등 구도 수행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혜국 스님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至道無難唯嫌揀擇 但莫憎愛洞然明白)'는 핵심 첫 구절을 강조하며 첫 강의를 진행했다.

스님은 "도에 지극한 도가 있고 없다는 말에 속지 마라. '지도(至道)'는 완성된 도라는 것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지극한 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혜국 스님은 "지극한 도에 대한 이해는 '나'만 없어지면 어렵지 않다. '잘못 알고 있는 나'를 '나'로 아는 간택심(선택하는 것)으로 어려운 것 뿐이다. 우리는 선택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첫 구절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태양과 공기는 삼라만상에 조금의 차별도 불평등도 없는 무변허공이다. 중도는 양변을 초월한 것이고, 공은 있다 없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유혐간택일 뿐"이라며 "모든 간택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간택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단막증애 통연명백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심명>은 선종의 제3대 조사(祖師)인 승찬(僧璨)스님이 불교의 핵심을 간명하게 밝힌 최상승 법문으로 팔만대장경이 함축돼 있는 정수 법문이다. 146구 584자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신심명>은 선종의 보전이자 선시의 백미로도 일컬어진다.

강의는 10회에 걸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단, 동안거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 (02)735-2428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약탈 문화재 환수 기금마련전

중신회, 템플스테이정보센터서 9일 개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9월 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 1층 갤러리에서 '해외약탈 문화재 환수 기금마련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 불교환경연대 현각 스님, 김의정 회장,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김원웅 의원, 정토원 선진규 법사,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정념 스님은 "민족혼인 문화재 환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민간차원의 환수운동이 끈기있게 이어져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정념 스님, 김의정 회장, 혜문 스님 등 불교계 대표와 단체가 함께 평양, 개성, 동경 등에서 의기투합해 문화재 환수를 해 온 것은 민족적 수모를 씻어낸 일"이라며 "약탈문화재는 반환, 환수해야할 것이지 약탈국으로부터 기증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선 스님은 "조상들의 얼이 미래를 제시하고 뿌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원해 달라"고 축사했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일본 궁내청의 '조선왕실의궤' 미국보스턴 박물관의 '라마탑형 은제사리구' 환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북협력과 주요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무자들의 불퇴전의 원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상언 기자

"사회공헌하자"… 공불련 10주년

임원 수련프로그램 · 단위기관 지원책 등 논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가 사회공헌 불자연합회로 도약을 선언했다.

공불련은 9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사업 안건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하복동 회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 조계사 부주지 토진 스님, 성낙준 건설환경감사국장, 김진해 공불련 사무총장 등 10여 부처에서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불자회는 △임원 수련프로그램 개설로 단위기간 불자회 간부의 수련 프로그램 개설, 기관 불자회의 활성화, 배우자 프로그램 평일 운영 △10월 10~11일 창립10주년 기념 법회 △단위기관 불자회 결성 적극 지원, 결연 사찰 활성화 방안 모색 △연합회 조직 재정비를 위한 핵심기관 임원 유대강화, 연합회 재정현안 논의 △독거노인 집수리 활동 등 공불련 봉사활동 활성화 △동계해외 임원연수 미얀마 추진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하복동 회장은 "내부 조직의 결속력 강화와 공불련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등으로 불자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살려 공무로서 보살행을 행하도록 하고, 각계각층의 불자와 불교계가 합심해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장적 스님은 "공무집행 각 부처 불자들과의 모임 활성화, 부처별 결성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미산 스님의 '마음수행학교'= 서울 상도선원은 9월 17일~12월 19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상도선원에서 미산 스님의 '마음수행학교'를 진행한다. 수업은 마음수행코칭과 함께 불교입문 강의, 기도, 염불, 주력, 사마타 위빠사나, 조사선과 간화선 등 이론과 실제를 함께 교육한다. 한편, 10월 17일에는 템플라이프가 진행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815-3391

●단기집중수행= 서울 제따나와 선원은 9월 17~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단기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일일 수행, 토요 집중수행, 철야정진 등의 수행에서 일정기간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한 단계 심화된 수행을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처음으로 수행에 접하는 초발심자가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반 4만원, 운영회원 및 대학생은 3만원이다. (02)595-5115

●사경도반 10만결사 '금강경' 사경법회= 불교방송은 9월 23일부터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결사 <금강경>사경법회를 실시한다. 격월 홀수달(9, 11, 1, 3, 5, 7월) 넷째 수요일 오후 2시 큰스님 초청 사경입재 및 회향법회를 실시한다. 격월 짝수달(10, 12, 2, 4, 6, 8월) 넷째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도현스님의 사경 지도로 사경실습과 사경강의, 점검법회를 봉행한다. (02)705-5301

●마가 스님의 '위빠사나와 자비명상'= 천안 호두마을은 9월 25~27일, 10월 23~25일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위빠사나와 자비명상'을 실시한다. 동참금은 7만 5000원이며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41) 567-2841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9. 26(토) 오후 1시부터 ~ 9. 27(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진각국사, 포항시 시인물 지정

고려말 마지막 화엄종 국사… "한국불교 이끈 선지식"

진각국사 배천희 스님(1307~1382)은 고려 말 승려로는 최고의 지위였던 국사에 오른 고승이다. 마지막 화엄종 국사인 스님은 불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또, 깨지고 마멸된 상태로 수원 성곽 내 비각에 남은 '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彰成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보물 제14호)'와 사당, 당간지주 등 배천희 스님과 관련한 문화재들은 방치되다 못해, 2006년에는 스님의 봉분이 도굴되는 수모마저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시장 박승호)가 진각국사 배천희 스님을 2009년 10월~2010년 10월 시인물로 지정해 선양 사업을 준비 중이다.

향토사학자로 배천희 국사를 연구해 온 포항시 정신문화연구회 황인 자문위원(포항정보여고 국사교사)은 "진각국사 배천희 스님은 고려 때 흥해를 현에서 군으로 승격시킨 포항의 인물이나 스님을 아는 이가 드물다"며 "포항시와 협의해 스님을 알리는 플래카드, 포스터 등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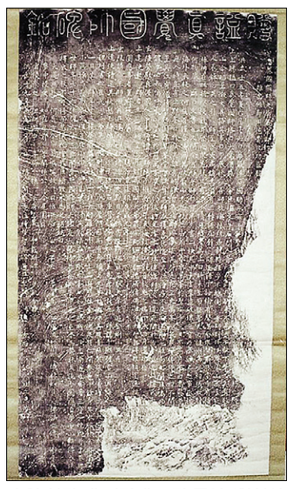
배천희 스님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출신이다. 13세에 화엄종찰인 반룡사(盤龍寺)에서 일비(一非) 대사에게 출가해 19세에 승과에 합격했다. 이후 금생사 덕천사 부인사 개태사 낙산사 등 10여 사찰의 주지를 지내다 76세(법랍 63세)로 입적했다. 몽산에게서 의발을 받고 귀국해 신돈과 친했다. 공민왕 16년(1367)에 국사로 대화엄종사 선교가 되고 영주 부석사의 주지로 전우를 중수하기도 했다.

스님 입적 후 왕명에 따라 고려말 목은 이색이 짓고, 혜잠이 새긴 비(보물 제14호)에는 "임금께서 진각국사라 시호를 내린 후 탑을 대각원조라 이름하고 신(이색)에게 비명을 쓰라 하명하시니… (중략) 대사께서는 두루두루 냇물처럼 흘러 다녔고 밝고 빛나기는 저 해와 같도다. 임금께서 대사를 숭배해 국사로 삼았다"라고 쓰여 있다.

흥해읍 학천리 포항공원 묘원 인근에 세워진 배천희 국사의 유허비(높이 1m)는 '국사배선생유허비(國師裵先生遺虛碑)'라 음각돼 있지만 비문의 다른 글씨는 마모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유허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을 비롯해 인근 천곡사에 남은 사당도 최근까지 낡아 허물어질 정도였던 것을 흥해 배씨 문중에서 새로 건립 중이다.

스님의 봉분은 흥해읍 양백리 마을 뒷산(일명 백산)에 있다. 일반인들의 무덤보다 규모가 크며, 대형 당간지주(높이 1m 40cm, 4각형) 2개가 무덤 양쪽에 우뚝 서 있다. 현재는 후손(국사의 속가 형인 배전의 후손)들이 음력 10월 7일마다 재를 올리고 있다.

동국대 황인규 교수는 "배천희 국사는 마지막 화엄종 국사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말 원나라 간섭기를 벗어난 개혁시대에 주체적인 한국불교를 이끌었다"라며 "당시 외교적 공적과 봉분이 남은 등 학술적 특징을 차치하고라도 한국 불교를 이끈 선지식으로 선양돼야 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수원 성곽 내 비각에 보관 중인 '창성사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보물 제14호)'의 탁본.



무심천에 천가지 염원 띄우니…

청주 청원불교련, 청주 유등문화제 성료

청주 청원불교연합회(회장 광해)는 9월 4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유등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에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한 청주 청원지역 시민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1000여 개의 유등에 직지 찾기 염원과 각자의 소망을 담아 무심천에 띄웠다.

무심천 특설무대에서는 동방대학원대학 졸업생들의 바라춤 등 전통불교의식과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연합회 수석부회장 현진 스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법회는 용화사 합창단의 육법공양, 연합회 상임부회장 각연 스님(용화사 주지)의 대회사, 연합회 회장 광해 스님(금불사 주지)의 봉행사,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원봉 스님(보현사 주지)의 치사, 용암 스님(명장사 주지)의 기원문,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합창단(지휘 장은주)의 축가, 충북경제인 불자회와 충북불교대학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 됐다.

연합회 회장 광해 스님은 봉행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적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웃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듯한 자(慈) 무량심,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과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비(悲) 무량심, 이웃의 기쁨을 사심 없이 기뻐하는 희(喜) 무량심, 집착하고 얽매이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마음인 사(捨) 무량심을 갖자"고 말했다.

한편, 무심천유등문화제는 2005년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과 연계해 직지 찾기 유등문화제로 시작해 매년 개최해 왔다. 혜철 충청지사장

아미타불 점안… "등불 밝혀라"

은적사, 1000등 불사 회향법회도 봉행

조동종 사천 은적사(주지 법광 · 조동종 경남서부종무원장)에서 아미타불 점안식 및 1000등 불사 회향법회가 9월 10일 봉행됐다.


9월 10일 사천 은적사 불사 회향법회 전 스님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행사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대은 스님, 감찰원장 덕성 스님, 강기갑 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명 스님은 법어에서 "은적사에서 아미타부처님 및 1000등 불사를 이루기 위한 법회는 서방극락세계로 가는 복을 짓는 것이며, 1000등 불사는 부처님을 새로 조성하고 부처님 도량을 밤낮으로 등불을 밝히면 자기 앞날에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만난 것처럼 부처님 광명을 얻을 것"이라며 "불교 발전과 사부대중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하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대은 스님은 격려사에서 "은적사 주지 법광 스님은 부처님의 찬란한 법을 펴며 승가에서는 화합과 포교를 실천하시는 종단의 큰스님"이라고 치하했다.

범해 스님은 축사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심신을 청정하게 했을 때 지상은 불국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중생을 위해서 대자비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는 교화전법으로써 포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다툼과 갈등, 불화를 야기하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며 "오늘 은적사의 불사 회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삶에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포항 황해사, 2대0 우승

천태종 배구대회


종정 도용 스님이 황해사 대표에게 우승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전국 천태종도들이 한데모여 화합을 다지는 제36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를 9월 6일 성료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스님들과 내외빈, 천태종도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청년회(회장 오순학) 주최로 열린 이날 배구대회에서는 포항 황해사가 경주 청강사를 2: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직후 거행된 시상식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직접 상장과 트로피, 상금을 수여하며 각 사찰 신도회와 청년회간 단합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이날 개회사로 "당당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치사했다. 노덕현 기자

심회향놀이 재현

조선시대 명맥이 끊긴 심회향놀이가 천태종 수륙영산재에서 재현돼 관심을 모은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11~15일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윤년 수륙영산재와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이날 각 행사 후에는 고려시대 전통의식인 심회향놀이가 진행됐다. 고려시대까지 전승된 불교의식인 심회향 놀이는 영산재 본의식 이후 연희로, 참가자들이 그 기능과 예능을 뽐내 공덕을 회향하는 뒷풀이 행사다. 노덕현 기자

삼성사 대웅전 상량

원효 설총 일연 탄생지

신라의 3대 성인(三聖)으로 불리는 원효 설총 일연이 탄생한 경산 삼성산 기슭에서 대작불사가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산 삼성사는 9월 4일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을 법사로 대웅전 상량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에서 정무 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산에 큰 경사가 났다. 삼성사의 대작불사는 전세계의 경사로서 영겁의 세월로도 가치를 모두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사업"이라며 창건주 현금란(보행심) 보살을 칭송했다.

지난 3월 말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립중인 삼성사 대웅전은 50여 평 규모로 건립중이다. 대웅전과 함께 좌우 2동의 2층 규모의 요사채가 함께 건립 중으로 연말 낙성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053) 856 -1110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평사 명승 지정

춘천시 신청 예정

고려 시대 조경시설인 영지(影池) 등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춘천 청평사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다.

강원 춘천시(시장 이광준)는 "강원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청평사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9월 8일 밝혔다.

고려 광종 24년(973)에 창건된 청평사는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선원으로 고려 선종 6년(1089) 이자현이 문수원을 중건하는 등 경관적 특징이 남아 있는 사적지이다.

청평사에는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을 비롯해 16세기 건축양식 변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 다수 보존돼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평사, 영지, 옛길 등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영동난계국악축제

영국사서 성료

제4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산사음악회가 9월 4일 오후 5시부터 천태산 영국사(주지 청원)에서 정구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난계국악단 연주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 첫 번 출연자는 주요무형문화제 97호 살풀이이수자 조희열님의 승무로 정과 동의 표현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민속 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난계국악단의 가야금, 소금 중주로 '여행', 김율희씨의 피리독주로 유초신지곡 중 첫 번째 곡인 '상령산', 가야금 거문고 중주로 황병기 선생이 처음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든 '침향무'가 연주되고, 김정훈씨 대금독주 '김동진류 산조', 국악기로 연주하는 영화음악으로 'fly me to the moon'과 칼멘 중 하바네라, 탱고가 연주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해 외 WORLD

“한국어 재미있고 유익해요”





네팔 카트만두에 설립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이 8월 7일 두 번째 수료식을 봉행하고 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위의 큰사진).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들(오른쪽 사진)은 다음 단계로 진급해 심화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영봉 스님으로부터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받은 메솟 지역의 난민촌 어린이들.

네팔 세종교육원 두 번째 수료식 38명 배출
영봉 스님, 메솟지역 난민촌에 후원금도 전달

네팔 카트만두의 발루와따르 지역에 설립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원장 영봉, 이하 교육원)이 8월 7일 두 번째 수료식을 갖고 초급과정과 초급 2단계 과정 등 33명을 배출했다. 지난 3월 27일 초급과정 38명 배출에 이은 두 번째 수료식이었다.

최근 귀국한 영봉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과 인우회를 비롯한 국내 단체와 불자들의 후원에 힘입어 두 번째 학기도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다. 스님은 “현지의 관광가이드나 셀파 포타 등을 직업으로 하는 청년층이 한국어 배우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계별 교육시스템이 정착됐다. 교육원이 직접 제작한 한국어 교재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초급반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교육원은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면서 컴퓨터 교육 체계도 수립했다. 현지의 사정으로 교육용 컴퓨터를 대량 구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높은 의욕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등으로 컴퓨터 교육도 활성화 될 것이란 게 영봉 스님의 전언이다.

한국어 교육은 초급반을 시작으로 차차 단계를 높여 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두 학기동안 2단계를 거쳐 온 학생들은 한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관광이나 등반 안내에서 ‘아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교육원은 12월 중순 이어지는 세 번째 학기에서 초급 과정 70명과 초급2단계 40명, 중급 1단계 40명 등을 모집해 개강할 계획이다.

한편 영봉 스님은 지난 5월 18일 미얀마 난민촌인 메솟 지역의 민주화 운동 단체와 학교 고아원 등에 한국에서 모금된 후원금 1만 달러를 미엔솟 N.L.D. 메솟 지역 의장을 통해 전달했다.

임연태 기자

연꽃마을, 스님 간병비 절반 지원

‘노후 염려되지 않는 수행 환경 만들기 캠페인’ … 종단협 가입 종단 스님 지원

한 비구니스님이 뇌경색으로 절반 가까운 뇌를 절단했다. 스님은 반신불수가 돼 수행은 고사하고 요양원에서 반평생을 지내야 할 처지가 돼 치료비가 없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가까스로 속가가족 등이 비용을 마련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다. 몇 개월 못가 가족 간 불화만 가득 남겼다.

체계적인 승려노후복지가 마련돼 있다면 어땠을까? 스님은 물론 불자 모두가 스님들이 안심하고 간병을 받으며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는 때 노인복지단체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이 9월부터 병환 중인 스님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현 스님은 9월 7일 연꽃마을 파라밀요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월부터 실시 중인 ‘스님 간병비(요양비) 모금 운동’을 통해 모금하고 있는 후원금을 요양원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스님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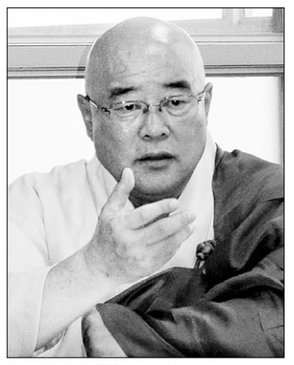
연꽃마을에서 마련한 ‘스님 간병비 지원 규정’은 11개 조항의 규정으로 구성돼있다. 규정에는 제정목적,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을 명문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조계종 비구 · 비구니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스님은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누구나 요양비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스님은 건강등급 1~2 등급에 한 한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비 본인 부담금 중 50%,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기저귀포함) 50%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용하는 병실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대략 매월 20~35만 원 지원받게 되는데 간병비 이외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꽃마을은 스님 간병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스님 간병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스님 간병비 지원 기준 △스님 간병비 모금에 관한 업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연꽃마을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다. 불교복지법인인 연꽃마을은 설립 사명을 다하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가 염려되지 않는 수행 환경 만들기 캠페인’으로 스님들의 간병비를 모금하고 있다.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

각현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로 수행에 전념한 환자 스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연꽃마을이 시작하는 스님들의 간병비 지원활동이 승려노후복지에 미력하나마 작은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간병 모금액은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사부대중의 신뢰를 얻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 간병비 모금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연꽃마을은 2일, 안성 칠현산 칠장사(주지 지강)와 ‘효의 사회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노인복지시설과 사찰이 맺은 것이다. 두 기관은 향후 지역 사회복지 정보와 사회공헌활동의 여건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상호 발전하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노인복지 발전에 관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칠장사는 매월 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연꽃마을과 함께 요양원 및 재가복지 대상 어르신들의 생신상 차려드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사찰의 사회공헌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양측이 협의해 상호 필요를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신륵사 자비기금
육천만원, 아름다운동행에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9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기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여주 아동보호센터에 지정기탁 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지관 스님이 “경기가 어려운 처지에 신심을 모아 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세영 스님은 “봉사해준 신도들 덕분이다”며 답했다.

이어 세영 스님은 “이번 겨울에는 여주쌀을 사서 불우이웃돕기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 전달식은 세영 스님과 손정국 신륵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여섯 명의 신도가 함께 참여했다.

박선주 기자

석관실버복지센터 개관
진각복지재단 위탁운영… 프로그램 다양

서울시 성북구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센터가 9월 9일 개관했다.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

성북구청(구청장 서찬교)에서 건립한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는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석관1 · 2동이 석관동으로 합쳐지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겨진 석관 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478㎡ 면적에 조성됐다. 1층에는 나눔실, 바둑장기실, 전산교육실, 친목도모실, 건강증진실, 2층에는 배움교실과 열린 교실 등이 들어서 있다.

복지센터는 △건강프로그램(요가, 스포츠댄스, 어르신 태권도) △교양교육프로그램(영어노래, 한글 · 초급영어) △컴퓨터프로그램(인터넷 기초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진각복지재단 이사장 혜정 정사는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재밌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2)957-9923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경기도지사상 수상
일산노인복지관 능인 스님



노인복지분야에 주력해온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사진)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능인 스님은 9월 8일 수원 장안구 민회관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스님은 “일산노인복지관 부설 호수문화대학교를 공식기구인 노인평생학습센터로 만들어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쿨
(02) 3667-4446
010-3813-4443

"간화선, 회통 · 겸수 · 합일이 특징"

충남대 김방룡 교수, 간화선 세미나서 정리


9월 11일 열린 제10차 간화선세미나에서 발표자 김방룡 교수(오른쪽)와 사회자 서재영 박사.

"한국 간화선은 △종파와 출 · 재가를 초월해 수행해야하는 회통의 논리 △선교(禪敎) · 정혜(定慧) · 지관(止觀) 겸수하는 수행차제 △화엄과 선의 궁극적 합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충남대 김방룡 교수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9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0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에서 한국 간화선의 특징을 이같이 정리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 '한국 간화선 선풍의 성립과 특징'에서 "벽송사 월암 스님의 '한국의 조계종은 회통적 의미의 선종'이라는 말은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지표로 삼을 만하다. 다만 간화선과 회통적 선종 사이의 간극이 있음은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방룡 교수는 "조계종의 간화선 대중화 · 세계화가 조사선과 간화선의 종지종풍을 바로 세워 조계종의 '부정적 회통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인 부산대 연구교수는 '<선문촬요>와 한국 간화선 전통의 형성'을 통해 19세기 말 편집 · 유통된 <선문촬요>가 한국불교사상사적 전통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했다.

김 연구교수는 "<선문촬요>가 편집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토 및 한글 번역됐다는 점은 이 책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간화선이 주류인 한국불교의 저변에는 <선물촬요>의 기여함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지장신앙의 모든 것 총망라

東大 김진무 연구교수 '지장 Ⅰ · Ⅱ'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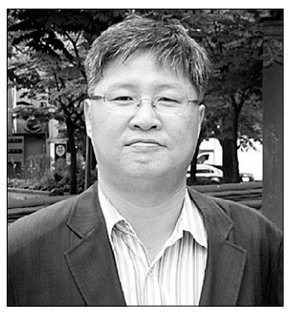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게 된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 한국을 비롯한 중국 · 일본 등 동북아 불교신앙의 한 축을 이룬 지장 신앙에 관한 경전과 회화 경문 등을 총정리한 지장신앙의 백과사전이 출간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는 최근 <지장 Ⅰ · Ⅱ>(동국대출판부 刊)를 펴냈다.

중국선종사 전공인 김 연구교수는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종교문화연구실 장총 연구원의 원서 <지장신앙연구>를 번역하면서 다라니와 석굴사 관련 자료, 지장도상 등을 수정 · 보완해 넣었다.

<지장신앙연구>는 장총 연구원이 중국 전역의 지장신앙과 관련한 사찰과 유적을 조사하고 방대한 작품과 문헌을 바탕으로 집필한 역작이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장 연구원이 지장보살을 찾아 떠난 구도의 여정은 그의 학문적 열정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장 신앙은 신라 때 원광법사가 중국에서 귀국한 후 지장 삼부경 중 하나인 <점찰선악업보경>을 근거로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지장신앙을 정리해 발간된 <지장>(오른쪽)과 번역자 김진무 연구교수.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진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도 빠질 수 없다. 김교각 스님은 당나라에서 출가해 안휘성 구화산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았다.

책은 Ⅰ · Ⅱ권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Ⅰ권에서는 지장보살의 경전과 전적, 보권 등 관련 문헌 등 경전과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보권(寶卷)은 당나라 때 사찰에서 일반대중들을 위한 강설이 발전돼 나타난 것으로, 종교와 민간신앙을 내용으로 민중 사이에서 유행하던 문학형식이다. 보권은 7자 혹은 10자의 운문을 주로 사이마다 산문을 더한 형식으로 이뤄졌다.

Ⅱ권에서는 160여 장의 지장보살 조각과 회화도상과 김교각 스님을 통해 구화산 지장도량이 발생한 과정 등을 고찰했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지장신앙은 현대 불교사회복지 개념과도 상통한다"며 "웰빙을 지나 웰다잉으로 대중적 관심이 전환되는 지금, 한국불교가 지장신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2)2264-4705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지혜 공익화할 콘텐츠 개발"

풍경소리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열려


9월 10일 풍경소리 10주년을 기념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박

"불교적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종교 · 인종 · 계층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불교적 지혜를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 포교에 앞장서 온 풍경소리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교적 지혜를 활용한 대중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시키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박수호 · 김응철 교수는 풍경소리가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간, 매체, 콘텐츠를 통한 포교의 지평확대'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 등은 주제발표 '포교 공간으로서의 지하철 역사와 공간포교의 가능성'에서 "풍경소리 포스터는 무지의 공간을 지혜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매체다. 풍경소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하철 공간을 새로운 문화운동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지하철 공간에 절제와 배려의 공간문화를 형성하는 등 시민문화 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불교와 국가권력의 관계 조명

24일, 8 · 27범불교도대회 1주년 학술세미나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8 · 27 범불교도대회 1주년을 맞아 종교평화를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24일 오전 9시 30분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에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와 원영상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인도 · 일본 · 중국에서의 정치권력을 발표하고, 장석만 충간문화연구소장이 정교분리의 성립과 전개를, 이창익 한신대 연구교수가 '서구에서의 종교와 정치권력을 발표한다.

2부에는 이진구 호남신학대 초빙교수가 '서양종교 유입과 종교갈등'을, 김순석 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일제의 종교정책과 불교'를, 이재헌 경원대 강사가 '이승만 정권기의 불교차별'에 대한 담론을 펼친다.

3부에는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주제발표 '1960~1980년대 불교차별'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정웅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과 김광식 부천대 초빙교수가 각각 '범불교대회의 배경과 성격'과 '종교간 대화운동'을 발표한다.

현종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종교편향, 종교평화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아직도 종교편향 금지에 관한 사회적 실천이 미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간화선 학술대회

26일, 보조사상연구원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과 서구 심리학이 만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26일 오후 2시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문화관 411호)에서 '간화선의 원리와 심리학적 고찰'을 주제로 제87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외래교수가 '간화의 실재와 원리'를,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요가명상학과)이 '간화선 체험의 심리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재영 연구원과 전재강 안동대 외래강사, 김호귀 동국대 조교수,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출가 · 재가 소통을 말하다

18일, 중앙승가대신문 창간 20주년 세미나

1989년 창간돼 젊은 학인스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중앙승가대 신문(편집장 도정)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신문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 출가와 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주제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경성 스님(희랑대 주지)이 주제발표 '경전과 율장에 나타난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통해 경전과 율장의 출 · 재가자의 관계를 살피고 그 소통방법을 조명할 예정이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주제발표 '오늘날 출가자와 재가자의 바람직한 소통방안'에서 기존의 출 · 재가자간 소통 방법의 장단점 등을 살피고, 바람직한 소통이 종단적 ·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모색한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는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기자, 임운택 계명대 교수, 정상덕 원불교 교무가 참석한다.

중앙승가대 신문은 20년간 초대 편집장 초격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등 30여 편집장을 배출하며, 올곧은 젊은 승가의 목소리를 내왔다.

초대 편집장 초격 스님은 "'소통'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갖고 중앙승가대 신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중앙승가대신문의 20년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서왕가' 등 불교가사 계보 밝혀

김종진 東大 조교수 '불교가사…' 책 펴내

단편적으로 전해지던 불교가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서가 발간됐다.

국내 불교가사 전문가인 김종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는 최근 불교가사에 관한 두 번째 저서인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소명출판 刊)을 펴냈다.



김종진 교수가 발간한 <불교가사의 계보학…>.

불교가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은 가사로, 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지었다기 보다 포교 방편으로 지어졌다. 4 · 4조 연속의 간단한 율격에 맞춰 어려운 불교진리를 쉽게 풀이해 암송하게 했다.

김 조교수는 책을 통해 단편적으로 언급됐던 불교가사의 작가를 복원하고 전승의 양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또,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찾아 문화사적 의의를 살폈다.

최초의 불교가사는 고려 말 나옹스님(1320~1376)의 '서왕가(西往歌)'이다. '서왕가'는 구전되다가 숙종 30년(1704)에 판각된 <보권염불문(普勸念佛文)>에 기록됐다.

김종진 조교수는 '서왕가' '태평곡' '회심가' 등 17~18세기 전승된 불교가사를 비롯해 한암 스님의 '참선곡' 등 불교가사에 대한 기존 문헌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했다.

특히 책 중의 "'회심가'의 컨텍스트와 작가론적 전망"에서는 기성쾌선 스님(1693~1764)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서 선과 교학을 염불신앙 속에 통섭하고자 했던 사상적 경향을 확인했다.

김 조교수는 "불교가사는 우리말 시가의 다양한 표현영역을 확장시킨 대중지향적인 언어구조물"이라며 "조선후기 문화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자료인 불교가사는 조선후기 문화사의 한 영역을 기술하는데 중요한 텍스트"라고 강조했다. (02)585-7840

조동섭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스님은 어떤 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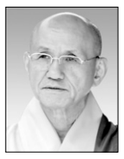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부산 한의사 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면서도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림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9월 24일 12시 종강
·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8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5일 12시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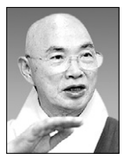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일주문



'문경으로 가는 길' 개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0월 10~11일 1박 2일간 국내스터디 투어 '문경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 (02)455-9596



'문화알림이' 완주문화원 강연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은 9월 1일 완주군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알림이' 양성교육에서 '행복한 삶'을 주제로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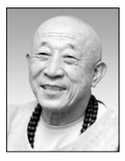
참여연대 후원의 밤 개최

참여연대 공동대표 청화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은 9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연대 창립 15주년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시신기증자 천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7일 오전 11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5회 장기 및 시신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02)734-8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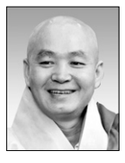
고희기념 초대전

통도사 문수원 수안 스님은 9월 18~26일 부산 대연동 KBS 전시장에서 고희기념 초대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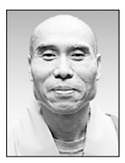
화계사 난치병어린이돕기 후원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9월 19일 '난치병어린이 돕기 후원금 조성 바자회'를 개최한다. 물품모연 중.(02)902-2663



화엄사 태현 스님 추모법회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9월 22일 화엄사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동헌당 태현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비 제막식을 개최한다.



화인요양보호사교육원 개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부설 화인요양보호사교육원 1급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9월 21일 개강한다.



법왕사 개산대재 백고좌 법회

화엄불교대학 학장 진귀 스님은 9월 20일 대구 법왕사 개산대재 제20회 백고좌 대법회에서 <화엄경> '도솔궁중게찬품'을 법문한다.



양천서 경승실장 위촉식

서울 장안사 주지 성민 스님은 9월 2일 양천경찰서 경승단회의에서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모두 하나돼 고운사 성공 일궈"

조계종 16교구본사 혁신 이끄는 호성 스님



일체의 존재는 변화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교리를 구지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제 모든 개인, 회사, 국가 등 유기적 생명이나 조직체는 변화와 혁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변화는 큰 틀인 제도와 의식을 바꿔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남이 아닌 내 자신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로부터의 혁신'을 강조하는 사찰공동체의 조용한 변화는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아직 때묻지 않은 전통 수행도량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의 변화는 이런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2006년 9월 21일 경북 의성 고운사 주지에 취임한 호성 스님(사진)은 그간 활발한 지역·문화·복지·청소년포교를 펼쳤으며, 사격(寺格)을 일신시키는 불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왔다.

2007년 4월 노인요양원 건립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수월암 및 선체험관 준공, 올해 1월 고운사 승가대학 기공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사로서는 벅찰만한 큰 불사를 원만하게 이뤄왔다.

또한 호성 스님은 외형적인 불사 뿐만 아니라 불교전통문화를 통해 오랫동안 소원했던 지역민들을 고운사로 모여들게 했다.

이주여성 가족 초청 편지쓰기대회와 자비의 김장 담그기 행사,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문화 체험 등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행사를 펼쳐왔으며 주말 템플스테이(매월 둘·넷째 토)와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매월 첫째 토) 등 신행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호성 스님의 이러한 지도력은 본사와 52개 말사들이 함께 모든 것을 추진하고, 결과를 말사와 지역사회에 고루 회향해 결속력을 다지면서 얻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호성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말사와 함께하는 교구본사를 지향하며 종무행정에 임해왔다"며 "중생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고 중생 속으로 다가가는 사찰이 될 때 불교중흥이 가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호성 스님은 "고운사의 작은 변화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일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승가대학 설립을 비롯한 율원, 염불원 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화합·발전 위한 종도단합대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10일 인천 호불사서 봉행



10일 봉행된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단합대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9월 10일 인천 호불사에서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종도단합대회"를 봉행했다.

종정 붕해 스님을 비롯한 종도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장자 종단으로서 위상확립과 화합과 안정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종정 붕해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것은 내가 오고 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오고가는 이치를 알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밝게 정진해야 진정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 의장 경원 스님은 "일붕 존자의 유일 종단으로서 종단을 흔드는 해종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단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붕 존자의 법통을 계승한 유일 정통종단이며, 종단협 소속의 한국불교 중추종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 원로스님들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스님의 선창으로 전 종도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날 종도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붕 존자의 유업을 계승한 정통종단의 자부심 각인, 일붕 존자의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굳건한 단결, 해종 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척결, 종단협의회 상임종단으로서의 역할 등을 다짐했다. 02)998-8161

노덕현 기자

대승불교본원종 창종 20주년 취임법회 봉행

제5대 종정 범해 대화 대종사 추대 및 각 원장 취임



종정 대화 스님.



총무원장 만혁 스님.

대승불교본원종은 9월 9일 총본산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창종 20주년 및 제5대 종정 범해 대화 대종사 추대, 제5대 부종정 동광 대종사, 법용 대종사, 제6대 만혁 총무원장 및 각 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대화 스님을 비롯해 종단임원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제5대 종정으로 추대된 범해 대화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죄업중생의 업을 참회하고 정진해 나가며 종도들은 불자들의 생활 속을 파고들어 함께 아픔을 나누는 서민의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날 제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총무원장 만혁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창종 20주년을 맞는 청년 종단으로서 한국불교 중추종단의 패기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다. 그러나 종단 발전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할 때 가능한 것이다.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한국불교 중추종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각 원장들의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전국신도회장, 문현 문도대표의 축사와 신도대표의 발원문 낭독도 진행됐다.

(02)391-4376

노덕현 기자

"진료활동으로 사회적 기여 앞장"

한의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 이수완씨 선출



한의사불자련 이수완 초대회장.

"불도를 행하면 불도가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자 한의사 역량의 향상과 보다나은 진료활동으로 사회적 기여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의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이수완(구생한의원)씨가 선출됐다. 9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후원회장, 각 식도지부 회장단 등 지도단 추대 및 임원선출, 회칙제정 결의, 창립서원 낭독 등이 진행됐다.

이수완 회장은 15년 전 대한불교한의사회 회장역임의 노하우를 살려 선·후배 간 관계강화와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불자 한의사를 결집시키는데 진력할 전망이다. 특히 한의대학 불교동아리 지원 사업, 생활여건이 어려운 불자 한의학도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 사업 등의 인재불사에 힘쓸 계획이다.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선·후배 한의사의 인연 고리가 절실 한 때입니다. 한의대 내 불교학생회 대부분이 와해되거나 대폭 축소돼 불자한의사 결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은 선·후배 간 긴밀한 관계형성과 환자와의 마음교류 등의 경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원으로 활동할 경희대, 동국대, 상지대 등 한의학과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국내·외 의료봉사와 불자들을 위한 제반 사업, 가족템플스테이나 수행분과 등의 운영으로 신행심 고취 및 인격도야를 위한 수련사업, 불교계 제 단체와 연계한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한의사불자연합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상언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 e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3군지사 호국관음사 중창불사 현장

장병 한 명이라도 더 법문 듣기를…



경기도 벽제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는 9월 10일 호국관음사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시삽하는 모습.



증명법사 밀운 스님.



11보급대대장 문정주 중령.



왼쪽부터 문정주 중령, 덕산 스님, 박호석 법사가 축원기도를 하고 있다.

좁고 낡은 법당 허물고 새 법당에서 '정신전력' 충전 발원

군종교구 등 지원 약속… 실미도 희생자 유해 있는 천도법당

"'사바하(娑婆訶)' 하면 삽질을 해주세요"

"사바하!" "철퍽, 철퍽, 철퍽"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사바하' 한 번에 삽질 3번. 삽질 한 번에 흙도 아주 깊이 떠졌다.

군복무 기간 중 총 든 시간보다 삽들고 삽질한 시간이 많다는 군대다. 군장병들이 삽든 모습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부대 대대장도 가사장삼을 두른 스님들도 모두 하얀 장갑을 끼고 '사바하' 한 번에 삽질 3번을 한다. 초가을 따가운 햇살아래 곳곳에 보이는 국방색 차량들도 멈춰선 한가로운 오후, 왜 대대장과 스님들은 넓은 공터에서 삽질을 할까? 저것이 진정 군대의 삽질이란 말인가.

"탁 탁 따라락." 목탁소리와 함께 스님의 신장기도가 들려온다. 9월 10일 경기 벽제의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 영내 호국관음사 신축부지 중창불사를 위한 기도 소리다.

기공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인사말씀, 격려사, 시삽, 축원, 사홍서원에 이어 기존 법당인 관음사, 유골 봉안소, 실미도 유해안치 보관소를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증명법사 밀운 스님(봉선사 회주 ·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지도위원으로 대오 스님(고양시 사암연합회장, 흥국사 주지), 덕산 스님(평창동 정토사 주지), 대정 스님(진해 호국사 지도법사), 이건호 추진위원장(조계종 방생법회 회장), 박호석 법사(11보급대대 관음사), 고문 김문조 예비역 장군(前 3군지사 사령관)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매일 아침 법당 불사발원 108배 절 수행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깊은 불심을 갖고 원력과 신심으로 병영생활을 지도하는 문정주 중령(11보급대대장)의 역할이 컸다.

문 중령은 경과보고에서 "병사들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정진하는 호국도량으로, 군내 사망자 유가족이 영가를 천도하는 도량이나 법당이 낡고 비좁아 항상 가슴이 아팠다"며 "법당 불사는 오랜 염원이었다"고 말했다.

신심 깊기로 소문난 대대장은 인사이동으로 두달 후 부대를 떠나지만 법당 무사 완공을 위한 기도에 여념이 없었다.

지도위원인 대오 스님은 "군대가 많은 고양시 사찰에서는 1사찰 1부대 자매결연맺기 운동에 앞장서고 11보급대대 군법당 불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다 많은 군장병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정신적 안심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명법사인 밀운 스님은 "군복무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장병들과 실미도 사건 희생자 유해가 있는 11보급대대의 법당을 지원하는 일은 그들의 영가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 생각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건호 추진위원장은 "신심과 원력으로 중창불사를 시작하게 됐기에 이미 불사의 절반 이상은 다 이뤄진 것"이라며 문 대대장과 박호석 법사를 치하했다. 이어 이 추진위원장은 문정주 대대장과 박호석 법사에게 금일봉 1000만원을 희사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

11보급대대에는 전군 9개 보급대대 중 군내 사망자 유골 54위와 실미도 부대원 유해 20구가 안치돼 있는 유일한 곳이다.

유골이 봉안된 제7지구봉안소와 실미도 유해가 보관된 컨테이너 가운데 위치한 법당은 1977년 생활관으로 준공됐다. 1980년에 관음사로 명명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당은 17평 규모로 수용 규모 최대 정원 30여 명이 전부다. 3년 전부터는 그나마 이어지던 지원마저 끊겨 병사들 스스로 법회를 해오다가 2007년 12월부터 호국삼마사 무염 법사, 백련장학회 송춘희 법사 등의 지원으로 어렵사리 법회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박호석 법사가 관음사 지도법사로 오면서 마침내 중창불사를 추진하게 됐다.

법당은 실로 비참할 정도였다. 과연 법당일까 싶은 건물 안에는 불상과 탱화만이 모셔져 있었다. 4단짜리 책꽂이에는 법요집과 군포교용 <알기쉬운 우리성전> 외에는 읽을 책이 20여권이 고작이었다. 그 위에는 어린이 법당에 사용하는 캐릭터 부처님의 '팔상성도화'가 붙여져 있고, 때 묻고 낡은 30여 방석이 좌복을 대신하고 있었다. 장판은 곳곳이 찢어졌고, 혈기왕성한 병사들의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는 두 대가 고작이었다. 모퉁이에 있는 미니 카세트 한 대가 그동안 지도법사가 없었던 법당의 법회를 이끌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낮은 천장에 달린 영가등에는 지난 세월 많은 이들의 발원과 기도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난 5월 지도법사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차원의 군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박호석 법사(한국농촌문화연구소장, 前농협대 교수)는 "50여 사병이 법회 모실 자리가 없어 법당 주변을 맴돌다가 초코파이와 음료수만 받고 그냥 돌아가고 만다"며 "불자들은 망자를 기리는 일만큼 살아있는 군인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지원, 1사찰 1군법당 운동을 빠르게 확산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로 지어질 군법당은 부대 입구 주변으로 자리를 옮기고 법당 50평, 요사채 20평으로 확장 이전된다. 2개월 후면 완공되는 법당은 도로공사현장사무소의 조립식 건물을 재활용한 것이다. 박 법사는 "법당이 화려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병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심신을 단련해 군생활을 잘 해나가는 곳이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박 법사는 9월 7일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아오는 등 군포교에 누구보다 열성이다.

법당 불사를 위해서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발원을 해왔기에 이번 불사가 가능했다. 앞으로 2달 후면 신축완공 될 법당에는 장병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다양한 책이 쌓여있고, 법문을 듣고 참선을 위한 폭신한 좌복과 따뜻한 난방과 시원한 냉방시설이 갖춰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법회를 꾸준히 열어줄 법사님과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하는 군장병들이 넘쳐나는 새로운 관음사의 모습을 기대한다. "사바하!" 후원: 농협 351-0068-0683-83(예금주:육군 제 7789부대 8350부대 관음사) (010)5055-2079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추석, 한가위 나눔 한마당’

불교계 복지관 후원물품 일제접수

추석을 한달 여 앞둔 부산 불교계 복지관들이 매년 이어온 ‘한가위 나눔 한마당’의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불자들과 시민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늘기쁜마을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지현, 051-265-9471)은 지역 내 한부모가정에 쌀,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세대에는 명절음식 등을 라면, 과일, 떡과 함께 담은 종합선물세트를 매년 전달하고 있다.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혜총, 051-628-6737)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쌀과 함께 과일, 추석 명절음식 등을 후원받는다.

특히 쌀의 경우 실속 있고 저렴한 지역 내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니 참고하자.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가위행사를 마련해 흥겨운 시간을 보낸 후 각 가정으로 배달한다.

혜원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원허, 051-868-0138)은 복지관 및 혜원정사 경내 모금함을 통해 의류, 생필품, 간식거리 등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물품을 후원받아, 10월 1일 혜원정사에서 제수용품과 함께 후원물품을 전달한다.

진각복지재단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혜정, 051-271-0560)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추석 명절 후원물품 전달 기금마련을 위한 ‘제9회 참마음 일일호프’를 개최한다.

9월 18일 하루 동안 하단오거리 사파이어호프전문점에서 실시되며, 차와 음료, 주류 등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넌 태어날 때부터 불자다”

‘동련’ 신임회장 심산 스님 “포교 100년 대계 준비”

“어깨가 무거워요. 동련 이사장이라고 하면 참 커다란 자리인데,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포교에서 맡은 역할은 그만큼 크지 못한 현실이라 제 마음도 너무 무겁습니다.”

8월 27일 동련 임시총회에서 지현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의 뒤를 이어갈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은 평소 여러 법문에서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어린이법회가 위축된 이유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종교를 묻는 통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 중에서 어린이법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1만 명 채 되질 않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법회와 포교정책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산 스님은 기존의 프로그램 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어린이 · 청소년포교를 위한 범 종단 차원의 포교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현재 홍법사에서 성공 가능성을 내다본 ‘영 · 유아 수기법회’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마을상좌(스님의 유발상좌 되기)’ 등이 그것이다.


동련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심산 스님이 어린이를 안고 있다.

스님은 “이웃종교에서 모태신앙이라 일컫듯 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스님께 데려가 ‘너는 부처님의 뜻으로 태어난 불자다’라고 불자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 · 유아 수기법회’와 ‘동자승 단기출가학교’를 통해 인성 및 종교교육을 가르치고, 수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마을상좌’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찰의 스님과 인연을 맺어줄 수 있도록 개별사찰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왜 사찰을 찾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이러저러한 탁상공론은 끝났다.

어린이포교의 새로운 백년대계가 동련과 종단, 전국의 교구 본?말사와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모두의 어깨에 달려있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참선도량 해운정사 제2회 3박4일 참선철야용맹정진

“참선하면 갈등 사라진다”

3박4일이란 시간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향집 내려가기, 집안 구석구석 가을맞이 대청소, 가까운 이웃나라 해외여행, 보고 싶은 벗들과의 만남 등…. 다양하지만 이들의 끝엔 항상 힘들고 지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시간, 돈, 성공, 사사로운 고민 등과 같은 눈앞에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로 어느 하나 선뜻 행하기 어렵다.


부산 해운정사 대중이 용맹정진 중인 모습.

이런 우리에게 도원 스님(부산 해운정사)은 “누구나 시기, 질투, 불안, 공포와 같은 ‘마음의 갈등’은 갖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며 “‘마음의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참선”이라고 조언했다. 마음속에 늘 단 하나의 화두를 들고 답을 찾으려 하다보면 ‘마음의 갈등’이 화두로 대체되면서, 나를 붙잡던 모든 것들이 망상이었음을 저절로 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청초하게 앉아 참선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래서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에서 11월 1일부터 제2회 3박4일 참선용맹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지난 가을 전국에서 600여 명이 모여 3박4일간 뜨거운 용맹함으로 정진, 또 정진했다.

조실 진제 스님은 “600명이나 모였지만 도량에 3~4사람이 살다간 듯 고요하고 일사분란하게 진행돼 낙오자 한 사람 없이 정말 잘 해내주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박4일 참선철야용맹정진은 하루 20시간을 참선하며 한숨도 잠자지 않은 채 참선에 매진한다. 말 그대로 ‘참 용맹스러운 정진’이다.

도원 스님은 “일반 재가불자들이 나흘간 참선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불하는데 큰 인연을 짓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참선철야용맹정진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참선한다는 것과 조실인 진제 스님이 직접 죽비경책을 하며 언제든지 의문점을 문답할 수 있도록 방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다.

도원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외호하는 것만으로도, 성불의 큰 인연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매년 음력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대법회는 올해에는 윤달이 끼어서 예년에 비해 한달 가까이 늦어져, 한층 더 깊어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 등 11분의 동상을 절 마당에 조성해 해운정사 도량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해줄 것이다. (051) 746-2256, 4812

박지원 기자

부처님 법음 해조음으로 전해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윤순 신임회장 취임

부산 불교합창단연합회 신임회장에 김윤순 단장(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이 선출됐다.


가운데 정여 스님(부산시불교연합회장) , 재가불자 왼쪽 김윤순 신임회장, 김귀련 직전회장, 그외 부산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9월 4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이임사 취임사 격려사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김귀련 前 회장은 이임사에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크고 작은 사찰과 불교 행사 등 부산의 모든 법석에서 음성공양을 통한 법음홍포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윤순 신임회장은 “오직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마음뿐 많이 부족한 사람을 자비로 이끌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부처님 법음을 해조음으로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김귀련 직전회장이 5월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 4개월간 회장직이 공석이었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인도 수교 36주년 기념 대축제

18일, 인도공화국문화사절단 초청대공연

한국과 인도 수교 36주년을 맞아 양국의 전통 문화를 나누는 대축제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이하 부산불교신도회)는 인도공화국 주한대사관, 부산경남 인도명예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인도공화국 문화사절단 초청대공연’을 개최한다.

9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롯데호텔 3층 아트홀에서 마련되는 이번 공연에는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제3회 세계델픽대회에 참가한 인도국가대표팀이 직접 출연해 수준 높은 인도전통무용과 음악 등을 선사한다.

공연은 인도문화사절단의 인도민속악기와 어우러진 민속무용, 클래식 무용, 갈라인도문화앙상블 등에 이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한국전통타악연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찬불가 합창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부산불교신도회는 부산경남 인도명예총영사관(대표 유진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알리고, 문화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51) 853-2021

박지원 기자

감로사 ‘반백년’

삼천배 관음참회기도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9월 21일 오전 10시 제3회 천일관음기도회향 및 제4회 천일관음기도의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제4회를 맞은 관음기도법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자운 스님과 운허, 청담, 향곡, 성철, 벽안 스님 등이 감로사에 모여 “3000배 참회기도의 힘으로 동족상잔의 국난을 극복하자”는 발원으로 3000배를 한데서 출발해 오늘에 이르렀다.

또 감로사는 오랜 숙원이던 ‘3000배 참회기도회관’ 건립불사를 착공하면서 불사의 원만회향과 국태민안, 신도 가정의 소원성취 등을 위해 제3회 천일관음기도의 회향과 동시에 제4회 기도를 입재한다.

(051) 809-0926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송월문도회 경론대회
8일 성흥사 관음전서 개최



9월 8일 군산 성흥사에서 열린 경론대회 모습.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는 9월 8일 군산 성흥사 관음전에서 제1회 송월문도회 경론대회를 개최했다.

20여 송월문도회 스님과 30여 재가불자 등이 동참한 이날 경론대회에는 정습 보정사 보현 스님의 주제발표 '반야심경에 스며든 신심에 대해'에 이어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공연 펼쳐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마련



법능 스님이 노래하는 모습.

전남 화순에서 소아암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범능 스님(불지불교문화원 원장)은 9월 5일 화순 만연사(주지 자공)에서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마련을 위한 불교문화공연을 펼쳤다.

1000여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연은 가수 이동원, 불교음악가 김무한, 만연사 비로자나 합창단, 홍순지, 부루나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범능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소아암 환우들은 지금 현재도 병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투병하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환우들에게 큰 믿음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불자들의 자비공동체 모임인 화순전남대병원 보안회에 전달돼 소아암백혈병 환우들에게 지원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로 격려하며 전법의 길로 나가자"

팔재계 수계 실천대법회, 524명의 신규포교사 · 21명의 전문포교사 탄생



9월 5~7일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봉행된 '팔재계 수계 실천대법회' 모습.

"신 · 구 · 의 삼업으로 인한 업을 모두 참회하오니 모든 허물 사라져서 몸과 마음 건강하고 위험원수 사라지고 선업의 이익 나타나소서. 스님들이시여.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삼귀의와 여덟 가지 계를 받기를 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계를 설해주십시오."

포교사단(단장 강홍원)은 9월 5~7일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전계사로 '팔재계 수계 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사들이 지계를 점검하고 전법의지를 다지고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의 오계(五戒)와 오후불식과 향락과 몸 꾸미지 않기,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기 등의 세가지를 더한 팔재계수계 실천대법회는 올해로 7회를 맞았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0여 포교사들이 동참해 계성 스님의 특강과 8재계 수계법회, 보살 48경계와 <금강경> 및 <천수경> 독송, 108대참회, 촛불의식 등이 이어지며 철야정진 했다.

입재식에서 혜총 스님은 치사를 통해 "급변하는 포교환경과 많은 포교손길을 요구하는 포교 현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포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팔재계 수계산림을 통해 포교사 스스로 포교능력을 향상하고 서로 격려하며 전법의 길로 다함께 나가자"고 격려했다.

강홍원 단장은 "앞으로도 묵묵히 종단을 외호하며 일선 포교 현장에서 더욱 더 정진하는 전법의 선도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모범포교사 표창에서는 개인 임순덕(서울경기), 단체 강원어린이 청소년팀이 총무원장을 수상하는 등 개인과 단체부분에서 20명이 수상했다.

식전 행사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에서는 불보상에 대구경북단, 법보상에 대전충청단, 승보상에는 부산경남단이 수상했다.

한편, 신규포교사 품수식에서는 524명의 일반포교사와 21명의 전문포교사가 포교사의 다짐과 전문포교사결의문을 낭독하며 전법의지를 다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최고 관음기도 도량 만들 것"
향일암 황금단청 대웅전 낙성식 봉행

4대 관음도량 중 하나인 여수 향일암(주지 원문)에 황금단청으로 장엄한 대웅전이 9월 5일 낙성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명선 스님과 화엄사 대중스님들, 김성곤 · 주승용 국회의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법어에서 "향일암은 관음기도 도량으로, 오늘 대웅전 낙성의 공덕으로 바다의 많은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바란다"며 "관음보살의 위신력으로 최근 '신종플루'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생명들이 완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어에 앞서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끊임 없는 기도정진을 통해 향일암을 국내 최고의 관음기도 도량으로 만들것이며, 많은 불자들과 여수시민들이 편안히 찾아와 기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국내유일의 황금단청 건물로 15억 원의 불사비를 향일암과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금해 이뤄졌다. 괴목을 사용한 대웅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내5포 외7포의 다포양식 팔작지붕으로 부석사 무량수전 이후 괴목으로 거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 최초의 법당이다.

종무소는 "황금단청은 순금을 금박 형태로 가공하여 대웅전 내외부에 붙이고, 채색 단청을 하여 지극히 화려하면서도 전통양식을 계승한 국내 최초의 단청방식"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
불교환경연대, 시민단체 및 불교단체 전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 9월 9일 광주전남지역 각 대상자들을 찾아 쌀을 전하는 모습.

광주지역의 사회현안을 이끌고 나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9월 9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28곳과 불교단체 2곳에 1200kg의 쌀을 전달했다. 세 번째 맞는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온 행사로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이날 지원을 받은 곳은 박성두(민주노총광주본부),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박종익(청년단체협의회), 최경희(광주여성회), 김현석(실천연대), 김현웅(남총련 전남대총학생회), 황정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장애란(나주시농민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와 이주성(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문귀례(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불교계 단체활동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원자가 있는 사무실마다 찾아가 쌀 40kg씩을 전달했다.

법일 스님은 "사회단체활동가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주 천천클럽

'천원'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나누기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을 만든다. 한 번의 손길이 이웃에게 웃음을 주며, 한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밝힌다."

1000명의 회원이 매달 10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 · 군산 호원대 교수)(사진).



천천클럽은 1999년 불자들의 모임인 '우리는 선우'의 30여 회원이 모여 작은 정성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자 창립됐다.

회원들은 작은 힘을 합쳐 큰 힘을 만들며, 상(相)을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있다.

천천클럽의 활동은 회원들이 내는 '1000원'이라는 액수가 많고 적음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뜻과 정성을 모은다는 의미가 더 크다. 매달 1000여 명이 1000원을 보낸 힘이 모여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왔다. 이 중에는 출산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베트남 여인과 불구자식과 손자 둘을 부양하는 할머니, 소년가장 등이 혜택을 받았다.

천천클럽은 수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쌀과 지원금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그저 전달만 할 뿐 '천천클럽'이라며 자신들을 밝히지 않는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 때문.

또, 군법당, 전주 소년원등 포교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나서고 있다. 전주 송천중학교(舊소년원) 법회를 주관해 왔고, 무료 경로식당 등 지역의 크고 작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남원 실상사에서 생산한 무공해 농산물 판매에 힘써온 것도 천천클럽의 역할이었다.

최근에는 전주 인근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적인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개최해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 타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을 살피고 있다.

천천클럽은 후원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준다. 매달 소식지도 '전주 우리는 선우'의 후원으로 발행할 만큼 투명한 관리에 힘써왔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천천클럽의 신행이 지역 사회에 소리 소문 없이 알려지면서 전북지역 사찰은 물론 타종교인들도 종교의 벽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하는 중이다.

이러한 천천클럽 회원들의 노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익산 제천 원주 경기도까지 전주 천천클럽을 벤치마킹한 천천클럽이 창립되고 있다.

오종근 회장은 "작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체계적이고 폭넓은 자비를 전달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전국적으로 많은 천천클럽이 생겨 밝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천클럽 창립문의 : 오종근 회장 010-3652-8892 (063) 450-7315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나고 죽음이 없거늘 임종게 설해 무엇에 쓰겠는가?"

21 심원사, 생지장 도량의 발원

2009년 9월 6일 새벽 5시 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3km 하류 모래섬에서 야영을 하던 5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 됐습니다. 또 두 시간이 좀 지나서 임진교에서 15Km 하류에 위치한 백학면 노곡리 비룡대교 아래서 낚시를 하던 40대의 한 남자도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 됐습니다. 일요일 새벽, 아닌 밤중의 홍두깨로 생사의 종적을 잃어버린 6명의 가족들이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날 새벽 2시께부터 대량의 물을 방류해 강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거기다 강물이 불어나면 대피경보를 울리게끔 되어 있던 자동경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물의 대량 방류, 고장 난 경보 시스템이 무고한 국민 6명의 목숨을 물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관련 뉴스를 들을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쩐지 연천 심원사 부도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월요일 점심을 먹고 계획에 없던 출장을 감행하고 맙니다. 그곳에 가면 울화통이 더 끓어오를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달려갑니다.

천지는 가을로 접어드느라 분주한데 삼화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다릅니다. 차도는 한산하고 인도에는 군인과 경찰들이 죽 늘어서서 강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이 다리 아래서 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난간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서 있는 사진 기자들의 어깨에 따가운 햇살이 쏟아질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경찰버스와 군용 차량, 구급차들의 움직임 속을 헤치고 보개산으로 달려갑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우뚱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민간인출입이 통제됐던 심원사 부도밭. 지금은 철원의 심원사와 구별해 원심원사로 이름을 고치고 복원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사이의 길모퉁이에 위치한 부도밭은 그다지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풀이 무성합니다. 두어 달 전 우연히 들렀을 땐 두 명의 군인이 예취기를 메고 풀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후 손을 보지 않은 듯합니다.

심원사 부도밭(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8호)은 그리 넓지 않지만 정방형으로 돌담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잔디와 풀이 뒤엉켜 자라고 있고 부도와 비가 3단으로 나눠져 도열해 있는데, 비는 3기가 있고 부도는 12기가 좌정하고 있습니다. 깨진 탑 조각을 엉성하게 쌓아 두기도 했고 '허백당(虛白堂)'이란 명문이 보이는 석종은 옥개석 부분이 없어져 사리공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박기우 자매 공덕비.


경헌 대사 탑비.


학린 대사탑비.

총탄자국 선명한 부도와 비에서 격전의 역사 감지

관리 소홀로 도괴 반출 많아 아쉬워, 경헌 학린 대사 덕망 생생히 전해

'화산경원' 시주 박기우 자매 공덕비 영험 뒷받침

부도밭에 모셔진 부도의 주인들은 대개 조선 중기 이후의 스님들입니다. 허백당도 그 시대의 스님일 텐데,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리가 모셔졌던 부도가 뚜껑을 잃어버리고 사리를 모셨던 구멍에 빗물이 고여 하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옆에 쭈뼛하게 자란 들풀 줄기 끝에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헛헛한 마음에 그 꽃을 따서 사리공에 띄웁니다. 꽃은 하얀 빛을 발하는 사리가 된 듯합니다.

그렇게 부도밭을 훑어보고 다시 중앙 통로에서 찬찬히 부도들을 매만지며 한 바퀴 더 돕니다. 가운데는 아미타불의 화신 석가여래상이 모셔져 있는데 16년 전 인근 오봉사에 주석하는 효란 스님이 주변의 군부대 법사들과 뜻을 모아 조성한 것입니다.



가운데 통로에서 오른쪽으로 두 기의 비가 있고 왼쪽에 하나의 비가 서 있는데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오른쪽의 비 가운데 사각의 좌대위에서 화려한 용무늬 이수를 떠받치고 있는 비는 서산대사 청허휴정 스님의 제자인 제월당(霽月堂) 경헌대사(敬軒大師 1544~1633)의 탑비입니다. 선조의 사위인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찬하고 선조의 여덟 번째 서자인 의창군 이광(李珖 1589~1645)이 빗돌과 전액의 글씨를 썼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경헌 대사는 '계율에 정통하고 선해(禪解)도 뛰어나 산문에 이름을 떨쳤을 뿐 아니라 법랍 또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세수 91세 법랍 76세에 입적했으니 당시로는 장수였고 법랍 또한 돋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비 후 5색 영롱한 사리 3과를 수습했는데, 다시 지극하게 기도를 해 두 과의 분신사리(分身舍利)를 얻었다고 비문은 전합니다. 모두 5과의 사리를 보개산 심원사, 금강산 표훈사 등에 석종탑을 조성해 봉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원사 부도밭에 남아 있는 부도 가운데 어느 것이 경헌 대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판독 가능하고 탑비 옆에 제법 우람한 석종이 있기는 하지만 명문을 읽을 수 없어 경헌 대사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도밭의 부도들은 다수 도괴되거나 밀반출 흔적이 역력해 경헌 대사의 부도가 어디론가 반출됐을 가능성도 자못 큰 것입니다.

비문에서 독특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문을 찬한 신익성 대감은 조선 왕의 사위인데 조선이 숭유억불 정책을 펴는 바람에 경헌 대사 같은 훌륭한 인물이 더 큰 뜻을 펴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프다! 스님 같은 분이 신라나 고려시대에 탄생하였더라면 왕사나 국사의 칭호를 받아 한 시대를 영요(榮耀)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우문(右文, 유학을 숭상함) 하는 시대를 만나 몸이 황적(荒寂)한 경지로 도망가서도 능히 그 도를 성취하고…'

부도밭 중앙에서 왼쪽에 서 있는 탑비는 사각형의 기단위에 이수를 생략한 채 서 있는데 모양이 아래는 좁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져 호패처럼 생겼습니다. 비스듬히 서 있는 이 탑비는 취운당(翠雲堂) 학린(學璘)대사의 것으로 역시 부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학린대사는 청허휴정의 제자인 청련(靑蓮)대사의 제자입니다.

비문은 당대에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던 정두경(1569~1668)이 지었는데 앞부분의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임종게도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비석은 무엇 때문에 세우고자 하는가?"

"스님께서 임종게가 필요 없다고 해 설하시지 아니한 뜻과, 제자들이 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서로 전혀 어긋남이 없사오니 원컨대 비문을 지어 주십시오."

학린 대사의 제자들과 비문을 지은 정두경의 대화입니다. 학린대사는 임종에 이르러 제자들이 게송을 청하자 "사와 생이 하나인 이치로써 항상 적(寂)하면서 조(照)함이어늘, 이러한 심체(心體)의 자리에 어찌 나고 죽음이 있겠는가? 이미 나고 죽음이 없거늘 임종게를 설해서 무엇에 쓰겠는가?"라 했던 겁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를 매만져 봅니다. 사각의 좌대에 팔작지붕 형식의 갓을 얹은 근래에 제작된 비(1935년)입니다. 이 비는 스님의 탑비가 아니라 청신녀(여신도) 박기우(朴基佑)와 기석(基石) 자매의 공덕비입니다. 박기우는 구한말의 애국지사인 한규설의 부인인데 두 자매는 심원사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다가 석대암의 지장보살상이 방광하는 것에 가피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두 차례의 방광으로 커다란 감화를 입고 막대한 재산을 시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원사의 강원인 '화산경원'이 설립됐습니다. 고려 때의 문신 민지(閔漬 1248~1326)가 쓴 '보개산석대기'에 의하면 신라시대(720년 · 성덕왕 9)에 사냥꾼 이순석 형제가 사냥을 하다가 황금멧돼지를 쏘았는데 멧돼지는 어깨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도망갔습니다. 환희봉 너머까지 따라가 보니 멧돼지는 보이지 않고 왼쪽어깨에 화살이 박힌 석상이 샘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놀란 형제는 석상을 꺼내려 했으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신기하게 생각한 형제는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대성(大聖)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하고 해탈케 하고자 이런 신이한 변신을 보이셨나이다. 만일 내일 샘물가 바위 위에 나와 앉아 계시면 저희들은 마땅히 출가해 수도하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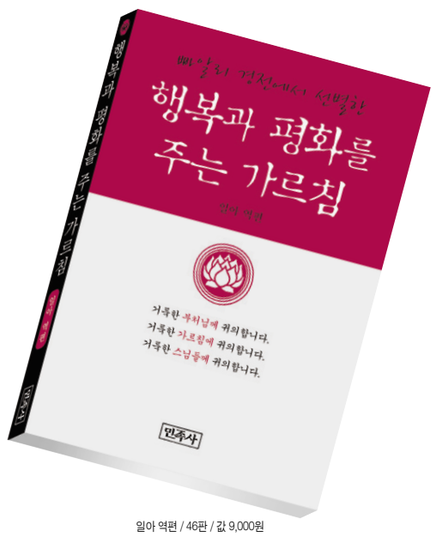
과연 다음날 아침 불상은 샘물가로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은 출가 했습니다. 이로부터 심원사에서는 여러 이적이 일어나면서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수행자들이 정진에 매진했습니다.

심원사 부도밭의 부도들은 기울고 깨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탑비와 공덕비는 물론 비도들도 몸에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한 때는 부도밭을 사이에 두고 총격이 오고갔음을 감지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쏘았던 것일까요? 나고 죽는 것이 하나인 도리를 설하던 옛 스승들의 지혜는 이데올로기의 험난한 시대를 다스릴 수 없었으니 생사를 뛰어넘는 법 보다는 당장의 이념이 앞서는 것이 중생계인 탓일 겁니다.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옛 도량은 복원되는데, 60여 년 전에 쳐진 철조망은 언제 사라질까요? 아무런 통고 없이 물을 흘려보내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모함, 그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산 너머에서 노을빛으로 타고 있는데 심원사 부도밭 총알 자국 선명한 부도들은 깊은 침묵으로 앉아 있고 건너편 군부대에서는 창창한 장병들의 군가소리가 들려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일아 역편 / 46판 / 값 9,000원

두려울 때는 불 · 법 · 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 · 죽음 · 병듦 · 슬픔 · 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 · 보시 · 공덕 · 효도 · 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 · 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 · 바른 행동 ·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김종수 감수 · 휜일 지음
신국판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

민족사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3

부처님 위신력은 '불가사의'

버들 감로 옥동자 구룡 등으로 불법의 신성함 설명
일체만물로 합일된 법의 실상 은유적 표현 돋보여

[원문]
양류초두감로쇄(楊柳稍頭甘露灑)
연화향리벽파한(蓮華香裏碧波寒)
칠보지중표옥자(七寶池中漂玉子)
구룡구리욕금선(九龍口裡浴金仙)
–대승사 대웅전

[번역]
버들로 머리를 감고 감로를 뿌리네
연꽃 향기 속에 푸른 파도가 차갑도다.
칠보 연못 속에 옥동자를 띄우고
아홉 용의 입이 금빛신선의 몸을
깨끗하게 닦도다.

[선해(禪解)]
요즘 내가 승가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있다. 일전에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나온 말이 바로 스님들의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 성우 스님은 홀로 파계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한 노스님의 병이 위중한 것을 알고도 진료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회고했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그대로라는 말씀이었다.

정부도 IMF 이후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사람에게 소득과 생계비의 차액을 보조해 주어 큰 보탬이 되게 만들었다. 하물며, 평생을 승가에서 보낸 노스님들의 노후복지가 되지 않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일전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는 "승려노후복지가 안 되면 스님들은 사라지고 사찰 건물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 놓은 적이 있다. 현재의 조계종 승려 인원 중 세납 50대 이상이 45%를 넘어 서고 있고 급속도로 승가도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30대 이하는 19.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있어 불교지도자들이 최선책으로 내 놓아야 하는 게 바로 '승려노후 복지 대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평생 노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오면서 '물질과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도 없다. 만약, 이러한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이후 어쩌면 한국 사찰은 엉망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이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65.4%의 스님들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출가자의 노후를 위해 정부는 무대책일 수밖에 없으며 종교 자체의 복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승가는 일미화합의 공동체 조직이다. 궁극적으로 스님들이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불교나 천주교 등 다른 교단에서는 성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건강 검진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간부는 종단에서 전액 지원이 힘들다면 일부라도 의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한국불교 종단의 복지를 단적으로 지적한 사례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교 인재 양성이다. 30대 이하 출가자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불교의 미래가 암담하다. 일찍이 인도의 불교를 정착시켰던 아쇼카 왕은 기원전 2~3세기에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인물이다. 수십 명의 형제와 500여명의 신하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전쟁에서 죽인 수십만 명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 흐르는 것을 보고 참회해 불교에 귀의한 뒤 동물병원까지 만들 정도로 인간과 모든 생명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제도로 정착시켰다.

오늘의 주련여행은 사불산 대승사이다. 대한불교조계종 8교구 본사인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산마루에는 사면(四面)석불상이 있는데 <삼국유사> '사불산조'에 587년(신라 진평왕9)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 싸인 사면석불이 공덕봉(功德峰) 중턱에 떨어졌는데,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사불암이었다고 한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절을 짓게 하고 '대승사'라고 사액(賜額)하였다. 망명 비구(亡名比丘)에게 사면석불의 공양을 올리게 하였고, 망명 비구가 죽고 난 뒤 무덤에서 1쌍의 연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산 이름을 사불산 또는 역덕산(亦德山)이라 하였다.

절로 들어서는 마당 입구에는 늙은 나무가 양쪽으로 서 있어 마치 대문처럼 보이는데 왼쪽으로 조선 후기에 세워진 삼층석탑이 있다. 대웅전은 용마루 치미의 물고기를 물고 승천하는 용, 꽃 창살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정성이 모아진 듯한 수미단과 만나게 되고, 천장엔 단색의 한지로 만든 연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웅전 목각후불탱은 남아 있는 유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걸작으로 이름난 조각이다. 조선후기에 조성한 아름답고 섬세한 목각의 후불탱으로, 그 관계 문서 등과 함께 보물 제575호로 지정되었다. 본래 영주 부석사(浮石寺)에 봉안되어 있던 것을 1869년(고종 6) 무렵 대승사로 옮겨왔다. 후에 부석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대승사는 반환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1876년 대승사가 부석사의 조사전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목각탱은 예천 용문사와 상주 남장사 등에 남아 있다. 목각탱의 조성지는 모두 경상북도에 한정되어있고 조선 후기 불교문화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웅전 뒤쪽으로 삼성각,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의 응진전, 조금 아래 단청이 퇴색되어 고고함을 느끼게 하는 극락전과 명부전, 그리고 대승선원이 있다. 대웅전 앞엔 탑이나 석등은 없다. 그러나 2기의 봉로대와 탐스럽게 가꾼 나무와 조화를 이룬다

이 절에는 대승사목각탱부(木刻幀附) 관계문서(4장)와 사적비(寺跡碑) 및 아미타불상에서 나온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7권), 불사리 1과(顆) 등이 있다. 부속암자로 (반야암(般若庵) · 묘적암(妙寂庵) · 상적암(常寂庵) 등이 있는데, 특히 반야암은 기화(己和)가 <금강반야경오가해설의(金剛般若經五家解說義)>(1415)를 지은 곳으로 유명하다. 대웅전의 주련 내용은 '일체만물로 합일된 부처님법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류초두감로쇄 연화향리벽파한**: 버들로 머리를 감고 감로를 뿌리고 연꽃 향기 속에 푸른 파도가 차갑도다.'

한국 사찰주련들을 읽어 보면 언뜻, 한편의 뛰어난 한시를 보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뛰어난 선문(禪文)이 깃들어 있다. 대개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이 양류관음(楊柳觀音)으로 현신할 때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쥔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불교의 버들은 매우 상징적이다. 즉, 부처님 법의 향기는 버들로 머리를 감을 만큼 많은 양의 감로수가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붉은 연꽃향기 속에 일렁이는 푸른 파도가 차가울 정도로 넓고 깊다는 뜻이다.

'**칠보지중표옥자 구룡구리욕금선**: 칠보 연못 속에 옥동자를 띄우고 아홉 용의 입이 금빛 신선의 몸을 깨끗하게 닦도다.'

금선은 부처님을 가리킨다. 보석으로 가득한 연못 속에 옥동자를 띄우고 구룡이 여의주를 가진 입으로 부처님의 몸을 닦는 모습은 바로 신성한 아홉 마리의 용이 부처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있음을 뜻한다. 바로 불가사의한 부처님 위신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즉, 부처님의 법을 설화를 통해 매우 현실적으로 인식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극한 부처님의 법열을 내포한다. 말하자면 대승사 대웅전의 주련 속에는 절대적인 부처님의 위용을 버들과 감로, 옥동자, 구룡을 통해 그 신성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3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원문]
若有此事 卽是成道之因 唯自知 不可向人說. 或靜園林中 行住坐臥 眼見光明 或大或小 莫與人說 亦不得取 亦是自性光明. 或夜靜暗中 行住坐臥 眼見光明 與晝無異 不得怪 是自心欲明顯. 或夜夢中見星月分明 亦自心諸緣欲息 亦不得向人說. 夢若昏昏 猶如陰暗中行 亦是自心煩惱障重 亦自知. 若見本性 不用讀經念佛. 廣學多知無益 神識轉昏. 設敎只爲標心. 若識心 何用看敎. 若從凡入聖 卽須息業養神隨分過日. 若多嗔喜 令性轉 與道相違. 自無益. 聖人於生死中自在 出沒隱顯不定. 一切業拘他不得 聖人破邪魔.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 되리니 혼자서만 알고 있지 남에게는 말하지 말지니라. 혹 고요한 숲 속에서 거닐고 머무르고 앉고 눕다가 크고 작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거나 집착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자기 성품의 광명이니라. 혹 어두운 밤중에 행주좌와(모든 일상적인 행동) 하다가 대낮같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지니라. 모두 자기의 마음이 밝아지려는 것이니라. 혹시 꿈속에서 별이나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온갖 연이 쉬려는 것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지니라. 꿈속이 어두워 캄캄한 곳을 다니는 것 같으면 자기의 마음이 번뇌의 장벽으로 무겁다는 것이니, 스스로 알아야 하느니라. 만일 본성을 보게 되면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할 필요가 없느니라. 두루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으며, 의식만 오히려 어두워지느니라. 가르침을 만들어둔 것은 마음을 가리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니, 마음을 알면 경전을 볼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만약 범부가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하면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맞게 세월을 보내야 하느니라. 성을 자주 내거나 기뻐하는 것이 많으면 도(道)에 어긋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파는 것이라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성인은 생사 가운데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숨거나 나타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능히 삿된 마구니들을 깨뜨리느니라."



'갈대잎을 탄 달마(蘆葉達摩)'.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해설]
어떤 보살님이 "정진하는 중에 환영이 보이는데, 왜 보입니까? 환영이 안보여야 깨칠 수가 있다는데 왜 환영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정진을 하다 보면 맑아지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계속 정진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해서 식(識)이 드러나면 미래의 일까지도 느끼게 된답니다. 우리 마음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그대로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영에 끄달려가지 말고 남에게 말하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자기의 성품의 광명이니라. 혹 어두운 밤중에 행주좌와(行住坐臥) 하다가 대낮 같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지니라.'

걸어다니거나, 멈춰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간에 한 생각 놓지 않는 그런 수행 가운데 광명이 혹시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경계입니다. 보살님들도 수행하는 중에 이런 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꿈속에서 별이나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온갖 연(緣)이 쉬려는 것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지니라.'

별이나 달이 보이는 것은 우리 불성이 맑아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이 녹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불성이 드러나서 성품을 보게 되면,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업이 맑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범부가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하면 업(業)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맞게 세월을 보내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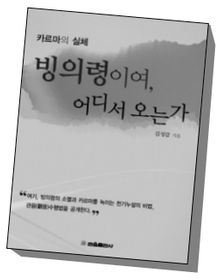
경전의 가르침은 우주의 근본 실상, 본래 자리를 일러 주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닫기 위한 길을 일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면 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경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수에 맞게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은 이런 저런 바쁘다는 핑계가 있지만 사실 다가오는 죽음이 더 바쁘거든요. 할 일은 미룰 수가 있지만, 죽음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생사 가운데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숨거나 나타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능히 삿된 마구니들을 깨뜨리느니라.'

너무 성을 내거나 즐거움에 빠져도 도(道)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를 깨쳐 불성의 광명체가 드러나 안과 밖이 없는 사람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나툴 수가 있습니다. 불성자리, 광명체가 우주와 하나가 된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마음대로 몸을 나툴 수가 있고 걸림이 없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득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일심 깨달아 알 때가 곧 '대방광불화엄경'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화엄요해' 법석 열어… 육자진언 7만독 후 진언마저 내려놔

상근기 '실상염불' · 중근기 '관상염불' · 일반 '칭명염불' 해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운산 골짜기로 들어가는 시골 길에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뚜렷하다. 10여 분을 승용차로 달렸을까. 4년만에 참배하는 고운사 초입의 도로 변에 못 보던 비석과 연못, 정자와 더불어 도로 반대편에는 비로자나부처님과 인공숲이 보인다.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본지에 게재됐던 뉴스를 되짚어보니 비석은 의상 스님의 법성게(法性偈)의 원문과 해석을 큰 돌에 새긴 '법계도비'였고, 숲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를 도판 그대로 명상의 숲으로 조성한 '법계도림'이었다.

세계 최초로 조성됐다는 법계도림에 호기심이 끌려 호젓하게 사진기를 든 채 미로처럼 된 법계도 숲을 따라 걸었다. 다소 서둘러 걷다보니 약 20분이 걸린다는 안내판과 달리 10여분만에 홍단풍 숲길을 다 지나서 비로자나부처님과 마주하게 됐다.

신라시대에 고운사를 창건(681년)한 의상(義湘, 625~702) 대사가 광대무변한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 게송으로 압축한 도인(圖印)을 가리키는 화엄일승법계도. 법계도는 7언 30구로 구성되는데, 일반 문장과 달리 연속된 글자들을 4개의 '回(회)'자 모양을 이루는 모양으로 배열했다. 그것은 게송의 내용과 도형의 모습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게송이 모두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래(如來)의 일음(一音)을 나타내고, 이 선이 굴곡을 이루는 것은 중생의 욕망이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 법계도의 모양이 시작과 끝이 없고 '回'자의 도형으로 표시된 것은, 여래의 선교방편에는 특정한 방법이 없고 진리의 수레바퀴는 항상 돌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법의 성품 원만하고 걸림 없어 두 모습 없고)'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면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법 흔들림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여)'로 끝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의미심장하다.

법계도의 도장(印)이 상징하는 '해인삼매(海印三昧)'란 과연 어떠한 경지일까, 지금 이 자리를 떠나 그런 경지가 따로 있을까 하는 망상을 지어보며 비로자나불과 둘이 아닌 자성불에 삼배하니, 새삼 고향 땅에 모처럼 찾아온 연유가 떠오른다.

'이곳은 과연 부석사에 버금가는 화엄도량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시대의 화엄종주인 화엄학회 회주 각성 스님이 3박4일(9월 7~10일) 일정으로 '화엄요해'를 설하는 법석이 펼쳐지는 날이 아닌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법회 준비에 바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께 합장 인사를 드리고 점심공양 후, 객실에서 각성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질문을 드렸다.

"스님께서는 반 백년 동안 출가수행의 길을 걸으셨는데, 한 마디로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란 무지에서 벗어나 깨닫는 길입니다. 얽히고 설킨 마음의 고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생사해탈하여 성불하는 길입니다. 공자, 노자, 장자, 인도 명상 등 많은 외도가 있지만 불교는 최고 최상의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평생 팔만 장경을 열람하셨는데, 불자들에게는 어떤 경을 우선적으로 권하시겠습니까?"

"화엄, 법화, 열반이 모두 소중한 경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능엄경>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능엄경>을 보면 팔만 장경의 핵심요지와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법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요."

"스님께서 팔만 장경을 꿰뚫어보는 경안(經眼)을 갖기까지는 이론만이 아닌 실제 수행을 통해 공성(空性)을 체험한 계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행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18세에 사미계 수지 후 비슬산 도성암에서 공부할 때 은사 도원 스님에게 '옴마니반메훔' 6자대명왕 진언을 항상 수지독송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원에는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400만 독 하면 견성한다'는 용성 스님의 안내장이 나돌 때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용맹정진 해서 7만 독 정도 했을 때,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미리 아는 예지능력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세 살 때까지의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진을 계속해 머릿속에는 옴마니반메훔이 염주처럼 쉬지 않고 돌고 돌았습니다. 6자진언 정진을 한 지 110여 일 지났을 때, 문득 6근이 본래 없다는데 이것도 없애야겠다 싶어 옴마니반메훔 진언까지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순간 주관과 객관이 모두 텅 빈 오온개공(五蘊皆空; 오온이 모두 공함)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스님은 4 · 19의거 직후 약관 23세의 나이로 <금강경 3가해>를 비롯한 불교 강의를 시작하는 한편, 강원에서 경 공부를 병행했다. 밤 12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 간경수행하는 시간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갔다.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통해 경안이 열려 배우지 않은 경전도 저절로 이해됐다. <능엄경>에 "내적으로 몸과 마음을 벗어나고, 외적으로 세계도 벗어난 것이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과 같다"고 한 것이나, <대승기신론>에서 "모든 육진 경계가 마음에 의해 생기고, 마음을 떠나면 없다"고 한 공(空)의 도리를 체득해 문리(文理)가 저절로 터져나온 것이다. 한학자 집안에서 여덟 살부터 외운 4서3경 덕택에 스님은 사미, 사집을 월반해 곧바로 <능엄경>을 보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다시, 스님께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

"간경수행을 하시면서, 그 전날 옴마니반메훔 정근을 통해 체험한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공부도 기반을 잘 닦으면 매(昧)하지 않아요. 마치 1층 탑을 튼튼히 쌓으면 5층, 7층까지 탑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수행체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경전 공부하는 데 큰 계기가 됐지요."

각성 스님은 당대의 대강백이었던 관응, 탄허, 운허, 고봉 스님으로부터 징찬을 받고 큰스님들의 문집을 증의해서 출판하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한 것은 물론, 동국역경원 증의위원을 맡아 한글대장경이 완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학과는 배치되는 질문 같지만, 계속되는 수행법 관련 질문.

"스님께서 해오신 오랜 경전 공부와 실참의 경험으로 볼 때, 요즘 불자들에게는 어떤 수행법을 권하시겠습니까?"

"말세 중생에겐 마음을 비우고 염불수행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염불수행법을 하나 하나 일러주신다.

"상근기는 '실상염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주만유가 본래 없고 텅 비어 맑은 빈 자리, 즉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絶一切: 이름, 모양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끊어진 자리)의 자리임을 관하는 것입니다. 또 중근기는 '관상염불'이 좋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32상80종호와 극락세계를 관하는 염불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칭명염불'을 권합니다."

7일 오후 2시, '화엄요해' 특강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마지막 질문을 드렸다.

"스님의 평생 좌우명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좌우명이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해온 발원이 있습니다. '미묘한 음성과 큰 변재(辯才)를 성취하고 모든 신통을 갖추며, 모든 바라밀을 닦아 성불하여지이다'하는 것입니다."

객실에서 물러나와 지난해 10월 완공한 선체험관(백련암)에 미리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니 '화엄요해' 특강 입제식이 진행된다. 해인사 백련암 시절부터의 오랜 인연에 고마움을 전하는 고운사 회주 혜승 스님의 축사와 화엄법회를 펼친 각성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는 주지 호성 스님의 인사말에 지극한 신심이 느껴진다. 이어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법단에 앉은 각성 스님은 고운사와 화엄종의 인연을 상기시키며 2시간의 화엄사상 강의를 펼친다.

"일체 성현중에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요,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위대합니다. 집에 문이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하게 하듯이 법에도 문이 있어 범성(凡聖)들의 출입을 통하게 하나니 그것이 곧 법문(法門)입니다. 성인은 중생을 교화하려고 진여문(眞如門)에서 나와 생멸문(生滅門)에 드나들며, 중생은 부처를 이루려고 생멸문에서 진여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각성 스님은 범부와 성인의 차이가 있다고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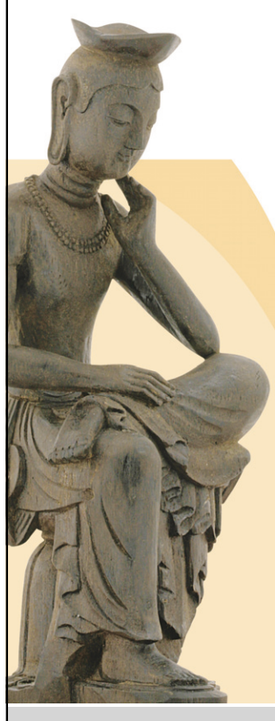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감사의 안내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각 사암 스님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해성불원자비회가 발족 한지도 어언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 사암스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와 농어촌 노총각 들을 대과 없이 짝을 이루어 살매, 근원을이루어 주었고 현재는 더욱 발전하여 여러 국가 여성들 중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수 국가의 아가씨와 폭 넓게 발전하게 됨은 오로지 스님들께서 다 같이 염려하여 주시는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노총각들의 삶의 보람과 굳건한 한국 인구 발전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쟈빌딩 1505호)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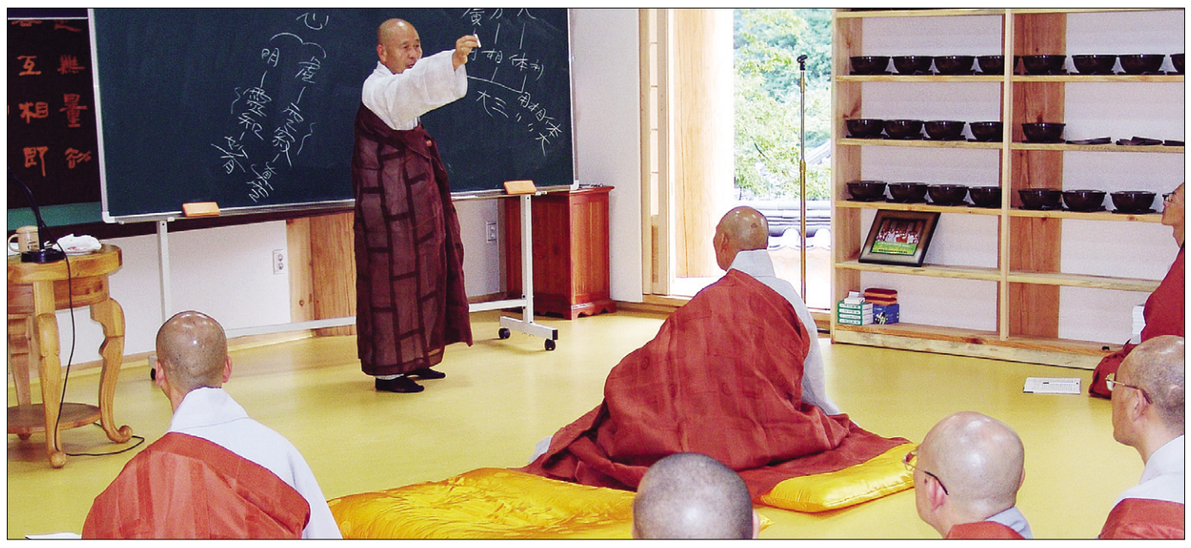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보현행원으로 보살행 닦아야



하나 일심(一心)을 떠나서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화엄경>의 대의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이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정·무정(有情無情)과 물질계, 정신계, 세계, 인과가 모두 일심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일심은 만유의 실체(본체)로서 부동(不動), 주원(周圓; 두루 원만함), 불생(不生), 불멸(不滅), 불변(不變), 수연(隨緣), 공적(空寂), 영지(靈知), 상주(常住), 묘명(妙明), 원융(圓融). 광대(廣大), 무애(無碍), 자재(自在)한 것입니다."

각성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7자 법문이 모두 일심(한마음)을 밝힌 것이니, 일심을 깨달아 알 때가 곧 '대방광불화엄경'임을 거듭 강조했다.

"화엄법문은 결국 일심을 떠난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곧 일심법계(一心法界)이고 나아가서는 사법계(四法界), 심법계(心法界), 십현문(十玄門) 등으로 펼쳐집니다. <화엄경> 전부가 범부에서 보살, 보살에서 부처를 이루는 그 과정을 자세하고 광범하게 설명한 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하면 돈오(頓悟), 점수(漸修) 두 가지 문으로서 한 마디로 하면 지행원구(智行圓具)라는 넉자에 불과합니다."

스님에 따르면, 문수는 지(智)요 보현은 행(行)이며, 문수는 돈오요 보현은 점수이며, 문수는 원융문(圓融門)이요 보현은 행포문(行布門)이 된다. 결국 지혜와 덕행을 쌓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즉 문수와 보현이 합일되면 비로자나불이 되니 삼성원융(三聖圓融)이 이뤄지게 된다. 일심에 즉 해서 만행을 밝히고(卽一心而 明萬行), 만행을 닦아 일심을 밝히는 것(修萬行而 明一心)이 곧 화엄사상이란 해석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다른 경과 달라서 보현보살의 행문(行文)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예컨대 도달할 목적지를 눈으로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과 같습니다. 보현의 행원(行願)으로 중생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할 때까지 언제나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보살행을 닦아서 구경에 성불하는 것입니다."

각성 스님은 구도자가 발심해서 선지식을 찾아 묻고 배우고 깨달은 후에는 항상 이타행을 전제로 하는 보살행을 닦아 불국토를 정화하고 중생을 구하는 보현행원을 닦으면 성불은 그 가운데 있다며, 이것이 화엄경에서 설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첫 회 2시간 여의 열강을 끝내면서 각성 스님은 화엄법문의 네 가지 핵심(四要)으로 심입부동(心入不動: 마음이 부동삼매(不動三昧)에 드는 것), 선용기심(善用其心: 마음을 잘 쓰는 것), 입대서원(立大誓願: 큰 서원을 세우는 것), 수대행해(修大行海: 큰 수행을 쌓는 것)를 제시했다.

'한마음을 밝히면 만법을 통괄한다(明一心統萬法)' 고 했다. 수행자의 본분사인 깨달음의 성취는 물론이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도 마음 찾는 과정은 절대적인 과제임을 이번 화엄법문은 거듭 깨침을 주었다. 아울러 오늘날 종교, 이념, 국토, 지역으로 분열된 이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사상적 배경이었던 화엄사상에 대한 참구가 더욱 절실함을 느꼈다. 각성 스님이 평소 '통화(通和: 통일 화합)' 라는 신조어를 사용해 온 것도 이러한 화엄사상에서 기인한 것임은 물론이다.

의상 대사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인연처인 고운사 숲길을 내려오면서 동시대 화엄의 최고봉이었던 원효 대사가 애송했던 <화엄경>의 한 게송이 떠올랐다.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났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원효 대사의 크나 큰 중생제도의 원력과 무애자재한 보살행을 본받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시대의 일승(一乘)보살들이 깨 쏟아지듯이 출현하기를 발원하면서 다시 한번 '대방광불화엄경'을 염해 본다.

글 · 사진=김성우 기자

각성 스님은 ...

1938년 전남 장성의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8세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4서3경을 배웠다. 1954년 <5천년 조선역사>란 책에서 율곡 이이 선생이 절에 들어가 3년간 <능엄경>을 공부했다는 대목을 읽고 백양사를 찾아갔다. 1955년 18세에 선사이자 율사인 해인사 백련암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세에 비슬산 도성암에서 '옴마니반메훔' 6자진언 수행으로 오온이 공한 체험을 했다. 이후 당시 3대 대강백이라는 관응, 탄허, 운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한 스님은 50여 년간 수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강의해 왔다. <능가경> <수능엄삼매경> <대도직지> <불조직지심체요절> <유식논강의> 등 20여 저서를 낸 바 있는 스님은 '통화총서' 300권 완간을 목표로 저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고희를 지난 세수에도 부산 화엄사 회주,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원 원장, 화엄학회 회주 등을 맡아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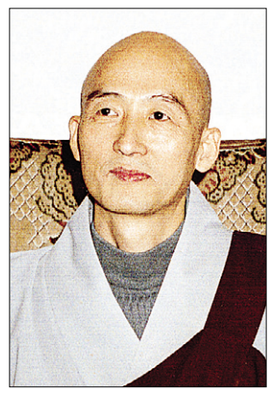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0. 대각회 법주 광덕 큰스님

금 하 광 덕 (金 河 光 德 , 1927~1999) 스님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이자 불광법회 법주로서 월간 <불광> 잡지를 발행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깊히 박혀 있는 선지식이다.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7세부터 6년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사랑하던 누이까지 잃고 인생무상을 절감한 후 1950년 부산 범어사 동산 스님께 귀의했다. 1953년 신소천 스님의 '깨달음의 운동'에 동참하고, '금강경 독송 구국원력대'에도 동참해 전국을 순회했다. 1954년 금정사에서 한 소식을 얻고, 부산 범일동에서 최초의 법등가족법회를 주일마다 열다가 1956년 백용성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게 되었다.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이 되고, 1962년 총무국장이 되



흔적 없이 도왔으며,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본인은 드시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음식을 마련해 전해주곤 하였다.

항상 얼굴에 밝은 빛이 솟아 있었고, 마음 한 구석에도 그늘진 곳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971년 청담 스님 돌

1994년 불광회 창립해 순수불교운동 전개… 문서포교도 앞장

어서는 종헌 · 종법 · 불교재산관리법 등을 성안하고, 1963년에는 대학생불교연합회를 만들었다. 1965년 봉은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대학생법회에 참여한 것이 스님과의 큰 인연이었다.

광덕 스님은 항상 몸이 약해 틈만 있으면 혼자 계시기를 좋아했는데, 한번은 봉익동 대각사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나는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병원에 가니 폐를 자르기 전에는 살 수 없다 하여 고민하였는데, 그날 밤 꿈을 꾸니 '네가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는 폐로 숨을 쉬지 않았다' 하여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 단전복기(丹田腹氣)를 하면 나을 것 같아 수술 후에는 단전복기를 하여 폐를 무리하게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수행승들이나 신도,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가신 뒤 총무부장을 맡아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탈 없이 이끌었던 것이다. 1994년 대각회 이사장이 되어서는 불광회를 창립하고 순수불교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는 10악 참회, 108참회로 모범적인 본을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1979년부터 불광출판부를 개설해 문서포교에 나섰으며, 1992년 도서출판 '한강로'도 만들었다. 이렇게 중생을 다방면으로 교화하는 가운데서도 범어사에 금강계단을 만들어 선찰 대본산의 면목을 살렸다. 1992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보현행원가'를 발표해 불교음악의 창작성을 드높였다. 이렇게 일생을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하화중생(下化衆生)하시던 분이 1999년 2월 27일 열반에 드셨으니, 진실로 이 시대의 보살이요, 조사이다.

"나는 병이 들지 않않으면 감히 병든 사람들의 속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고민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늘 하신 말씀이다. 이 세상에 받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참회 · 구도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높았고, 집 한 채를 지어도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던 것이다. 그 분의 일생은 <명상언어집> <금강경>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반야심경> <보현행원> <지장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언젠가 강동구 천호동 쪽에서 전화가 와,

"우리 절 법회를 좀 보아주십시오."

하여 갔더니 바로 광덕 스님의 큰 제자가 운영하는 절이었다. 신도의 조직이며, 법회의 절차가 법도 있게 운영되어 큰 스님의 영험이 대각사나 법안정사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구나 생각했다.

동국대학교 이사들 가운데 10년을 넘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스님은 20년 동안 이사로 지내면서도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연꽃처럼 깨끗한 분."

누구나 보면 절 잘하고, 칭찬하고, 공경 공양하여 살아있는 보현보살로 통했다.

어두운 곳엔 빛이 제일이고
배고픈 사람에겐 음식이 제일이다
보고 들은 이름과 모양은 모두가 거짓
진실은 실로 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님께서 불광 청년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법어이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4>

일과 여가활동 상호보완 돼야 보람있는 삶

현대경제학 '부'에 집착… 불교경제학은 검소 · 절약 강조

기존의 현대 경제학에 대체할 새로운 경제학인 불교경제학을 제창한 대표적 사람으로서, 독일 태생의 경제사상가이자 실천가였던 E. F. 슈마허를 들고 싶다. 그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 인간중심의 경제학> 중에서 '불교경제학'이라고 제(題)한 한 절을 설정해 불교 경제학과 현대경제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다. <표1>은 그 개략적인 내용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자연히 그 상이점이 부각되지만, 좀 더 설명을 더하고자 한다.

먼저 기조(기본사상)로서 지적되는 것은 현대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부(wealth)에 집착하는 나머지, 필연적으로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경제학의 기조는 검소이며, 따라서 검소와 절약을 취지로 하느냐 폭력전쟁을 야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슈마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기의 욕구를 약간의 자원으로 충족시키는 사람은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보다도 서로 다투는 일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에서 고도로 자급자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과의 무역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전쟁 등에 휘말려들 확률이 훨씬 적다."

또 불교경제학은 재생가능자원(삼림, 식물 등)과 재생불능자원(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을 구별해, 특히 재생불능자원에 대한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대경제학에서는 그 구별에 무감각하고, 더구나 낭비로 치닫기 쉽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슈마허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빠뜨릴 수 없다.

"재생불능의 연료자원은 그 지역적 분포가 지극히 치우쳐 있어서 총량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은 자주 파낸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폭력행위이며, 그로 말미암아 인간끼리의 폭력사태로까지 발전한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적군과 이라크와의 걸프전쟁의 배경에 중동지역의 재생불능 석유자원이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근대의 많은 전쟁이 자원 · 에너지의 확보와 쟁탈을 둘러싼 폭력사태였던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표1>	현대경제학	불교경제학
기조	부에 대한 집착과 폭력, 전쟁 욕망의 심화 · 노동의 생산물 중시 소비의 중시 물질적 가치의 중시	검소와 비폭력 인간성의 순화 노동력의 중시 창조적 생활의 중시 비물질적 가치(정의, 조화, 미, 건강)의 중시
기본도덕	눈앞의 이익, 타산적	지혜, 정의(진), 용기(선), 절제(미=知足)
목표	유물적인 생활양식	중도=팔정도의 하나, 바른 생활
방법론	화폐가치와 수량화의 중시	비화폐적 가치와 질의 중시
풍요관	적정규모의 생산으로 소비의 극대화	적정규모의 소비로 만족의 극대화
노동과 여가	노동은 필요악	일과 여가는 상호보완관계
생산 방식	대량생산 자본집약형 자원 · 에너지 낭비형	소규모 생산 노동집약형, 잘 기능하는 두뇌와 솜씨 활용 자원 · 에너지 절약형
기술	대량생산의 거대기술 거대함의 추구 자연 파괴적 기술	대중에 의한 중간 기술 인간의 키에 맞춘 작은 것의 추구 자연 · 생태계의 균형 중시

기본도덕에서는 현대경제학이 타산적인데 대해 불교경제학은 지혜, 정의(진), 용기(선)와 더불어 절제(미) 즉, 만족함을 아는 것을 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절제 즉 자족은 진선미중 '미'로 이어진다. 때문에 자족의 대극에 있는 탐욕이 미(美)와 정반대인 추(醜)를 의미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불교의 기본사상의 하나는 중도(中道)이다. 중도란 결코 물적인 복지를 적대시 하는 것은 아니다. 부(富)와 즐기는 생활 그 자체 모두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 배척해야 하는 것은 집착과 탐욕심이다. 중도는 또한 절제 즉 자족을 의미하고, 불교의 팔정도(八正道) 중의 하나인 정명(正命) 즉, '올바른 생활'로 이어져 간다. 그 때문에 불교경제학에서는 중도(中道) 그리고 '올바른 생활'이 추구되어야 할 목표로 된다. 풍요로움에 관한 관점도 크게 다르다. 현대경제학에서는 "풍요로움을 적정규모의 생산으로 소비의 극대화" 결국, 가능한 한 코스트가 싼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의 극대화(무한한 욕망의 충족과 대량의 폐기물 배출)로 받아들이는데 반해 불교경제학에서는 풍요로움을 적정규모의 소비로 만족의 극대화 "요컨대 소비를 억제하는 생활양식을 취하는 가운데에서 만족의 극대화(중도, 지족(知足)의 바른생활)"로 받아들인다. 슈마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대경제학자는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경우,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소비가 적은 사람보다도 풍족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연간 소비량을 척도로 한다. 이 방법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 이유는 소비는 인간이 행복을 얻는 한 수단에 불과하며,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행복을 얻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현대경제학과 불교경제학의 방법론상의 차이점에는 전자가 화폐가치와 수량화를 중시하는데 대해 후자는 비화폐적 가치와 질(質)을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노동, 생산방식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인간의 노동이 부(富), 경제의 기본적인 원천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동관 그리고 여가관은 크게 다르다.

현대경제학에서는 노동은 필요악이다. 따라서 노동은 경영상의 하나의 비용인 한편 노동자로서는 모처럼의 여가와 즐거움을 희생함을 의미한다. 이래서는 일한다는 것이 삶의 보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불교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일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다는 인식이다. 그 하나는 인간에게 그 능력을 발휘 향상시키는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 다음은 타인과의 협력에 의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게 한다는 것, 셋째는 성실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슈마허의 일과 여가에 관한 다음 지적은 음미해 볼 만하다.

"일과 여가는 서로 보완해 삶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서, 둘을 분리해버리면 일의 기쁨도 여가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만다."

생산방식과 기술측면에서는, 현대경제학은 대량생산방식, 따라서 거대기술을 추구하는데 비해 불교경제학은 대중에 의한 소규모 생산을 중시하고 솜씨있는 손의 활용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키에 맞춘, 자연 · 생태계의 균형을 중시한 기술의 도입을 의미한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⑭ 코칭의 언어

허달의 불교와 코칭

깨끗함 · 예술적 언어 지향하는 코칭 어법

2007년 11월 13일 플로리다 쌩 어거스틴 소재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에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었다. LPGA의 영원한 상징 낸시 로페즈의 손에서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트로피가 박세리의 손으로 건네진 것이었다. 흰 바지에 금빛 단추로 장식한 검은 색 윗옷 정장을 입고 트로피를 손에 든 채 박세리는 3000여 축하객들 앞에서 당당한 영어로 입회소감을 밝혔다. 1998년 메이저 대회인 U.S. Women's Open을 당당히 정복하고도, 마이크를 들이미는 ESPN 아나운서에게 '기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려는 의도로 어설픈 'like, like'를 연발하던 재투성이 신데렐라 소녀의 주눅든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9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당신은 악마 같은 것 같아요' 라는 제목으로 '박은주의 태평로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같아요 어법'을 다룬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 간에 유행하는 옛 '박세리 식' 어설픈 자기 표현 모습을 나무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같아요 어법' 속에 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세대 모두의 비겁함, '공격할 때는 좀 비겁하게, 방어할 때는 더욱 비겁하게' 증후군을 개탄하는 글이어서 크게 공명했다.

코칭의 언어는 '같아요 어법'을 단호히 배격한다.

코칭이 비록 고객의 언어를 사용해 고객과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고객이 '같아요 어법'을 구사한다고 해서 이를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리더십 과정에서는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도적 언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주도적 언어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 대신에 '~하기로 했다, ~하기로 선택했다', '~같아요' 대신에 '~이다, ~임을 확신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꼭 NLP [Neuro-Linguistic Programming]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객이 주도적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이를 사용하면 그의 주도성이 크게 항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쉬운 예로서, 상대방을 인정 칭찬하면서 '같아요 어법'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군요' 라는 인정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의 눈을 그윽하게 응시하는 경우와,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눈길을 잠시 피하는 '같아요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상상해 보시라. 이 차이로 인해 고객에게 닿는 울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금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기업 간부에 대한 코칭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객을 처음 만나보니 늘 미소 짓는 좋은 인상의 어눌한 분이었고, 이른 바 '같아요 어법', 비주도적인 어법을 쓸 뿐 아니라 그것도 자주 끊어져서 코치와의 첫 대화에서도 좀처럼 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답답할 정도였다. 고객 자신도 코칭을 통해 자신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함양하고 언어습관도 눌변에서 달변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고객과 코치가 함께 놀란 것은 이 고객의 현 수준평가를 끝내고 나서였다. 명확한 언어의 구사 능력, 설득력, 등의 의사소통 평가 항목에 대해 본인의 자기평가는 '최하'였음에 비해 부하직원의 평가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코칭의 몇 차례 다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고객의 눌변과 미소가 부하들에게는 경청의 효과를 일으켜 그들로 해금 마음을 열게 하는 선행 과정이 된 까닭에, 어눌하고 비주도적인 상사의 말조차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받아들이게 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발견이 이루어진 이상 코칭의 목표는 달변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눌변과 미소는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같아요 어법', 비주도적 어법만을 주도적 언어와 중립적 언어로 대체한다는 처방을 얻게 된 것이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앵커 우먼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생모가 포기각서를 쓸 정도로 거칠어진 그녀를 다잡아 고삐를 조인 후 의부(義父)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 남이 만든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물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 한 마디의 레이저 질문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뭐꼬?' 경상도 사투리의 이 질문이 잊혀질만 하면 늘 불자의 마음에 되돌아 오는 것도 이것이 강력한 '레이저 언어'이기 때문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차로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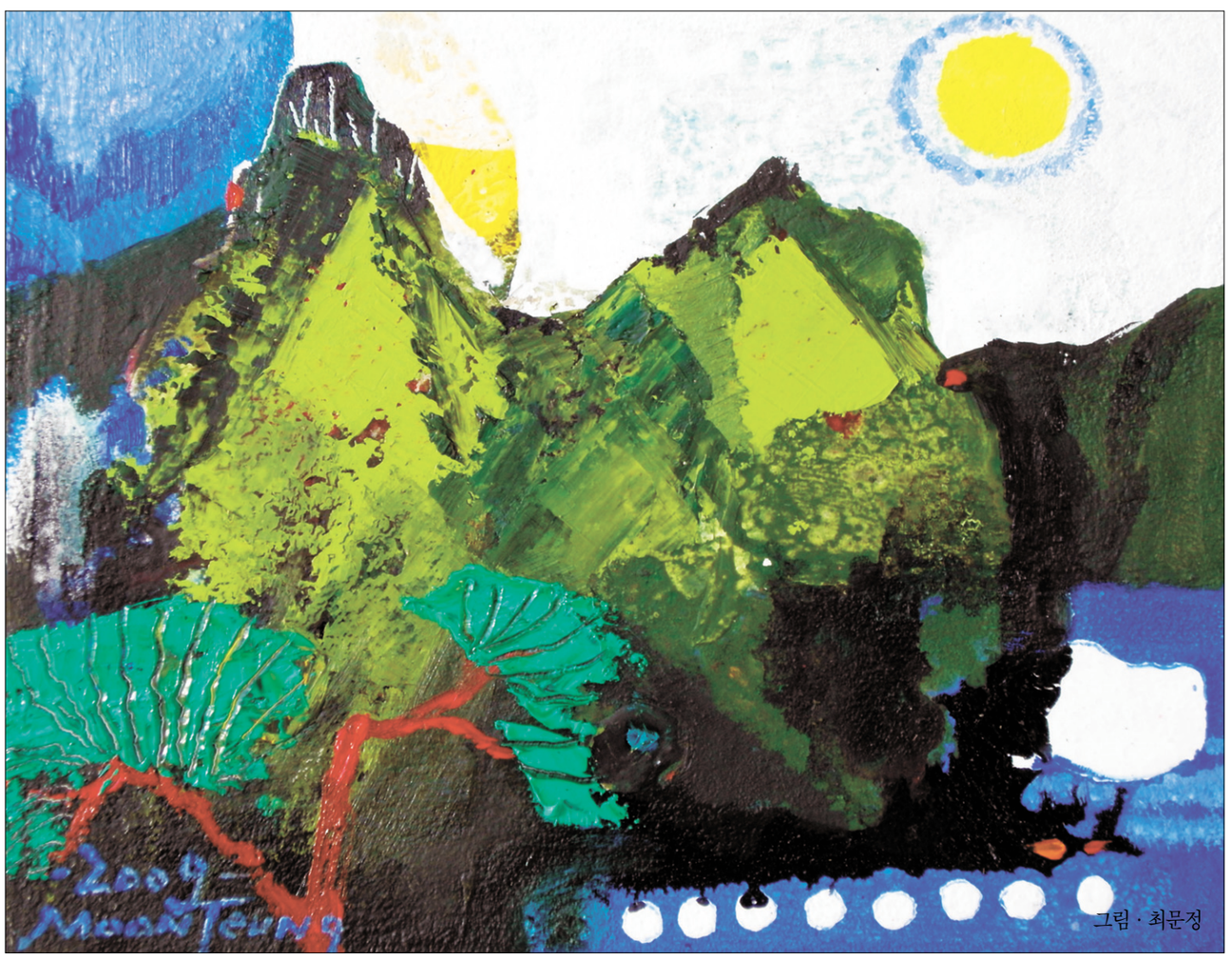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세상 으뜸가는 법왕일세




그림 · 최문정

월례 묘관음사는 동해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늘 불어오는 청량한 곳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묘관음사 공양간에는 바다에서 건진 돌김이나 생미역이 올라와 스님들의 입맛을 돋우었다. 체구가 우람한 데다 성격이 호탕해 향곡은 도반들 사이에서 호호법당(好好法堂)으로 불렸다. 그가 산길을 뚜벅뚜벅 걸을 때면 마치 법당이 한 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 붙인 별명이었다. 향곡은 먹성도 좋았다. 호젓한 암자에 사는 수좌를 찾아갈 때는 늘 손에 보따리를 들고 다녔다. 국수를 좋아하는 수좌에게는 국수를, 김을 좋아하는 수좌에게는 김을 갖다 주었다. 묘관음사에서는 생미역이 나는 철이 돌아오면 수좌들을 불러 생미역 공양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기장과 월례의 생미역과 돌김은 옛날에 임금에게 진상하던 토산품으로 유명했다. 동래나 부산 처녀보다 기장 처녀가 낫다는 얘기가 있지만 청정 동해바다에서 나는 기장 미역은 기장처녀보다 더 쳐준다고 자랑할 정도였다.

한낮 햇살이 뜨거운 날, 혜암이 묘관음사에 도착하자 낯이 익은 한 수좌가 말했다.

"스님, 이곳은 겨울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공양간이 시원찮습니다."

"공양간이 시원찮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묘관음사에 온 것은 향곡 조실스님 뵈러 온 것입니다."

"하하.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습니까."

"도대체 묘관음사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겨울철 바닷가에서 캐낸 생미역을 살짝 데쳐 고추장에 찍어먹어 보세요. 용맹정진으로 심신이 지쳐 있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니까요."

"선방 수좌들이 차 한 잔으로 정신을 맑힌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지만 생미역으로 심신을 추스린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다 향기를 더 맡으려면 데치지 말아야 합니다."

> "생미역 맛에 탐착하는 것은 본심을 잃고 사물에 지배를 받는것…"

스님은 혜암에게 생미역 예찬을 계속했다. 그때 향곡이 조실채에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새로 온 객승에게 생미역 자랑이 지나치다 싶은 듯 헛기침을 했다. 혜암은 고개를 크게 숙이며 합장했다. 혜암을 압도하는 체구는 여전했다.

향곡은 혜암을 기억하고 있었다.

"혜암수좌 아닌가. 해인사에서 오는 길인가."

"경봉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노장님은 잘 계시던가."

"수좌들이 많이 찾아와 분주하십니다."

"그러실 거네. 우리 은사스님하고도 인연이 많으신 분이네."

그제야 향곡은 경봉 회상에서 정진하고 왔다는 혜암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지난겨울에 경봉이 보내준 시를 향곡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흰 구름 푸른 봉우리에
향기로운 소리 골에 가득하네
무진장세계에
산은 깊고 물은 차도다.
白雲靑峰 香聲萬谷
無盡藏界 山深水寒

향곡(香谷)을 '향기로운 소리(香聲)가 골에 가득하다' 라고 푼 시였다. 향성이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 선어(禪語)였다. 시를 받은 향곡은 언젠가 경봉에게 백지법문(白紙法門)을 보내리라고 작심했다. 편지를 보내되 봉투 안에 백지를 보내는 것이 백지법문이었다. 백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회답을 바란다는 것으로 마음이 통하는 선사들끼리만 주고받는 선가의 전통이 있었다. 일찍이 오대산 한암도 경봉에게 백지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혜암은 경봉에게 극락암 선방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었다.

"백지는 쩔쩔 끓는 당구솥(무쇠솥) 같아서 무어라고 입을 댈 수 없는 경지이다. 설사 불조(佛祖)라도 입을 댈 수 없다. 입을 대면 타버린다."

다음날, 공양을 마치고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에 생미역을 자랑하던 스님이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스님들이 경책을 했다. 맛을 탐해 탐식을 하거나 좋은 맛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맛에 집착하면 견성을 이룰 수 없다고 대부분 스님들이 한 마디씩 거들었다.

"맛에 집착하면 매(昧)하게 됩니다. 대혜스님은 매하면 본지풍광과 본래면목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생미역을 찬탄하던 스님은 기가 죽어 아무 소리도 못했다. 한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당신은 견성하기 어렵다' 고 하니 풀이 죽을 만도 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변호하고 나섰다.

"도대체 견성이 무엇입니까. 견성이 무엇이길래 음식을 소태 씹듯 해야 합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미역에도 불성이 있을 것이며 미역의 맛은 미역의 본성일 터인데 미역의 본성인 미역맛을 음미한 것이 어찌 견성에 장애가 된다 합니까."

또 한 스님이 편이 되어 주었다.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의 진지한 얘기는 마침내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견성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대목으로 옮아갔다. 기원정사 강당에서 아난이 견성을 설하는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던 것이다.

"견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본래부터 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강당 안에 있을 때는 그 진리는 이 강당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에 가득 찰 정도로 큰 그 진리는 작게 압축되어 이 강당 안에 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벽이 막고 있는 것인지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난의 질문에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예를 들어 네모진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경우, 하늘을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만약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하면 둥근 창을 통해서 보는 하늘은 둥글지 않아야 한다. 만약 하늘이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면 네모진 창을 통해서도 둥근 하늘이 보여야 한다. 네가 묻는 것과 같이 방안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작게 압축되었다고 하면 밖에 나가 해를 쳐다볼 때는 진리를 확대해서 태양에 닿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치 않다.

모든 사람은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자기를 잃고서 외부의 사물에서 자기를 보려 하고 본심을 잃고서 외부의 사물의 지배를 받아 크다 작다 한다. 만일 자신이 사물을 지배할 수 있으면 여래와 한 가지로 몸과 마음이 원명(圓明)해져서 이 도량을 나가지 않고도 하나의 털끝에 시방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향곡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끔 정리했다.

"생미역의 맛에 탐착하는 것은 본심을 잃고 사물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견성이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향곡의 법문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했다. 경봉이 쉬운 우리말로 멋들어지게 법문한다면 향곡은 고준한 한자어의 문어체를 좋아했다. 훗날, 불법의 대의를 설법하는 향곡의 법문에도 고준함이 가득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보광삼매에 드시어 실상무상이요, 불립문자요, 교외별전이요, 심심미묘한 최고무상의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셨습니다. 그 뒤 거듭거듭, 고금의 헤아릴 수없이 많은 큰 지혜의 성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해 스스로가 원만하게 갖추고 있는 걸림 없는 큰 법을 자유자재하게 쓰셨습니다.

때로는 제왕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관대작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자의 집안에, 때로는 부귀한 집안에, 때로는 빈천한 가정에 태어났고, 때로는 여인의 몸을 받아 태어나서, 여러 번 부처가 되기도 하고 조사가 되기도 했으며,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세관 출세간에 머물렀습니다.

번뇌가 없는 큰 지혜와 원만히 통하고 원만히 밝은 항하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묘용과 자재하고 걸림 없는 백천법문과 무량한 삼매를 본래 스스로 갖추었습니다. 본래 스스로 원명하고 청정하고, 본래 번뇌가 없고, 생사가 없고, 본래 미함과 깨달음이 없으며, 본래 차례가 없고 본래 계급이 없고 본래 범부와 성인이 없고 본래 닦음과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만법이 원만하고 만법을 갖추었고 만법이 한결같고 만법이 청정일여할 뿐만 아니라 본래 일이 없나니, 시방세계에 빛나고 인연 속에서 당당하게 머물며 삼계 속에서 안락하고 자재하며 걸림 없기 마련입니다. 때를 만나면 병에 따라 약을 주고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고 물이 넘치면 도랑을 이루나니, 자연히 못과 쇠를 끊고 수만 자루의 칼로 벽을 세우며, 쇠를 녹여 금을 이루고 금을 녹여 쇠를 이룸이 골수에 사무쳐 자재롭고 원통(圓通)합니다.

또 때로는 향상(向上)의 한 마디를 나타내고 때로는 향하(向下)의 한 마디를 나타내며 때로는 여래선과 조사선을, 때로는 최초의 한 마디, 때로는 최후의 한 마디를 합니다. 더불어 때로는 큰 기틀과 큰 작용을 보이고 때로는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으며, 때로는 선정에서 나와 마음대로 향하고 때로는 거두고 놓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주고 빼앗음에 짝할 이 없으며, 비춤과 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방편과 진실이 자재하고 순(順)과 역(逆)에 걸림이 없고 응용이 무애한 것입니다. 네거리 한복판에서 마음대로 노닐고, 티끌 세상에 묻혀 오른쪽을 마주보며 왼쪽을 바로보고 왼쪽을 마주보며 오른쪽을 보나니, 전광석화로도 통할 수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고 시방세계에 자취를 남김없이 대자재 무애하며 크게 청정하고 크게 당당하고 크게 활발한 것입니다.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가 본래 대해탈의 보리세계요, 백천 항하사 모래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가 본래 청정한 대적멸도량(大寂滅道場)입니다. 꽃과 풀들은 모두 제불께서 몸을 나타낸 것이며 모든 사람과 물건들은 일천 성인께서 정법을 제창함이며, 모든 국토 속에서 법을 잃고 법을 파하는 것은 도인께서 참된 법을 마음대로 수용해 다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이 무궁하고 취함 또한 끝이 없어서, 영원토록 천하를 홀로 거닐고, 삿됨이 없음을 드러내며, 영원토록 자재하고 생사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고요하고 밝으며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뛰어나고 한가로우며, 영원토록 체(體)가 스스로 한결같으며, 영원토록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추며 원만히 통하고 밝으며, 영원토록 장애가 없으며 영원토록 광대하고 신령스럽게 통하며 밝게 빛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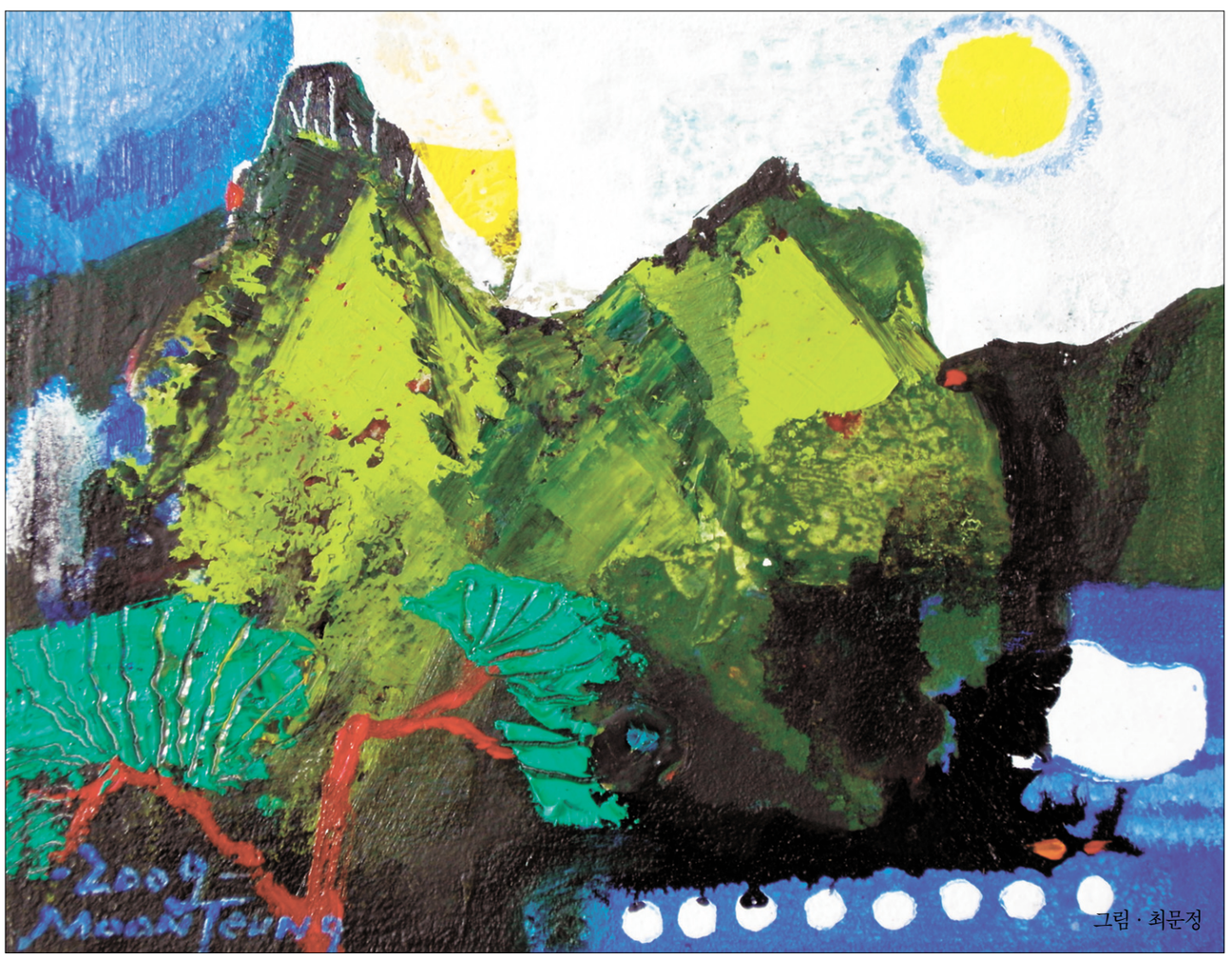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걸음 나아가니
산은 밝고 물은 맑으며 해와 달은 영원하네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천상과 인간 세상의 으뜸가는 법왕일세.>

혜암은 향곡의 법문에 미소를 지었다. 견성한 각자(覺者)가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천상과 인간 세상의 으뜸가는 법왕이 아닐 수 없었다. <계속>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세상 으뜸가는 법왕일세




그림 · 최문정

월례 묘관음사는 동해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늘 불어오는 청량한 곳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묘관음사 공양간에는 바다에서 건진 돌김이나 생미역이 올라와 스님들의 입맛을 돋우었다. 체구가 우람한 데다 성격이 호탕해 향곡은 도반들 사이에서 호호법당(好好法堂)으로 불렸다. 그가 산길을 뚜벅뚜벅 걸을 때면 마치 법당이 한 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 붙인 별명이었다. 향곡은 먹성도 좋았다. 호젓한 암자에 사는 수좌를 찾아갈 때는 늘 손에 보따리를 들고 다녔다. 국수를 좋아하는 수좌에게는 국수를, 김을 좋아하는 수좌에게는 김을 갖다 주었다. 묘관음사에서는 생미역이 나는 철이 돌아오면 수좌들을 불러 생미역 공양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기장과 월례의 생미역과 돌김은 옛날에 임금에게 진상하던 토산품으로 유명했다. 동래나 부산 처녀보다 기장 처녀가 낫다는 얘기가 있지만 청정 동해바다에서 나는 기장 미역은 기장처녀보다 더 쳐준다고 자랑할 정도였다.

한낮 햇살이 뜨거운 날, 혜암이 묘관음사에 도착하자 낯이 익은 한 수좌가 말했다.

"스님, 이곳은 겨울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공양간이 시원찮습니다."

"공양간이 시원찮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묘관음사에 온 것은 향곡 조실스님 뵈러 온 것입니다."

"하하.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습니까."

"도대체 묘관음사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겨울철 바닷가에서 캐낸 생미역을 살짝 데쳐 고추장에 찍어먹어 보세요. 용맹정진으로 심신이 지쳐 있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니까요."

"선방 수좌들이 차 한 잔으로 정신을 맑힌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지만 생미역으로 심신을 추스린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다 향기를 더 맡으려면 데치지 말아야 합니다."

> "생미역 맛에 탐착하는 것은 본심을 잃고 사물에 지배를 받는것…"

스님은 혜암에게 생미역 예찬을 계속했다. 그때 향곡이 조실채에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새로 온 객승에게 생미역 자랑이 지나치다 싶은 듯 헛기침을 했다. 혜암은 고개를 크게 숙이며 합장했다. 혜암을 압도하는 체구는 여전했다.

향곡은 혜암을 기억하고 있었다.

"혜암수좌 아닌가. 해인사에서 오는 길인가."

"경봉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노장님은 잘 계시던가."

"수좌들이 많이 찾아와 분주하십니다."

"그러실 거네. 우리 은사스님하고도 인연이 많으신 분이네."

그제야 향곡은 경봉 회상에서 정진하고 왔다는 혜암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지난겨울에 경봉이 보내준 시를 향곡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흰 구름 푸른 봉우리에
향기로운 소리 골에 가득하네
무진장세계에
산은 깊고 물은 차도다.
白雲靑峰 香聲萬谷
無盡藏界 山深水寒

향곡(香谷)을 '향기로운 소리(香聲)가 골에 가득하다' 라고 푼 시였다. 향성이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 선어(禪語)였다. 시를 받은 향곡은 언젠가 경봉에게 백지법문(白紙法門)을 보내리라고 작심했다. 편지를 보내되 봉투 안에 백지를 보내는 것이 백지법문이었다. 백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회답을 바란다는 것으로 마음이 통하는 선사들끼리만 주고받는 선가의 전통이 있었다. 일찍이 오대산 한암도 경봉에게 백지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혜암은 경봉에게 극락암 선방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었다.

"백지는 쩔쩔 끓는 당구솥(무쇠솥) 같아서 무어라고 입을 댈 수 없는 경지이다. 설사 불조(佛祖)라도 입을 댈 수 없다. 입을 대면 타버린다."

다음날, 공양을 마치고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에 생미역을 자랑하던 스님이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스님들이 경책을 했다. 맛을 탐해 탐식을 하거나 좋은 맛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맛에 집착하면 견성을 이룰 수 없다고 대부분 스님들이 한 마디씩 거들었다.

"맛에 집착하면 매(昧)하게 됩니다. 대혜스님은 매하면 본지풍광과 본래면목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생미역을 찬탄하던 스님은 기가 죽어 아무 소리도 못했다. 한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당신은 견성하기 어렵다' 고 하니 풀이 죽을 만도 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변호하고 나섰다.

"도대체 견성이 무엇입니까. 견성이 무엇이길래 음식을 소태 씹듯 해야 합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미역에도 불성이 있을 것이며 미역의 맛은 미역의 본성일 터인데 미역의 본성인 미역맛을 음미한 것이 어찌 견성에 장애가 된다 합니까."

또 한 스님이 편이 되어 주었다.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의 진지한 얘기는 마침내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견성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대목으로 옮아갔다. 기원정사 강당에서 아난이 견성을 설하는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던 것이다.

"견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본래부터 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강당 안에 있을 때는 그 진리는 이 강당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에 가득 찰 정도로 큰 그 진리는 작게 압축되어 이 강당 안에 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벽이 막고 있는 것인지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난의 질문에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예를 들어 네모진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경우, 하늘을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만약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하면 둥근 창을 통해서 보는 하늘은 둥글지 않아야 한다. 만약 하늘이 네모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면 네모진 창을 통해서도 둥근 하늘이 보여야 한다. 네가 묻는 것과 같이 방안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작게 압축되었다고 하면 밖에 나가 해를 쳐다볼 때는 진리를 확대해서 태양에 닿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치 않다.

모든 사람은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자기를 잃고서 외부의 사물에서 자기를 보려 하고 본심을 잃고서 외부의 사물의 지배를 받아 크다 작다 한다. 만일 자신이 사물을 지배할 수 있으면 여래와 한 가지로 몸과 마음이 원명(圓明)해져서 이 도량을 나가지 않고도 하나의 털끝에 시방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향곡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끔 정리했다.

"생미역의 맛에 탐착하는 것은 본심을 잃고 사물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견성이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향곡의 법문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했다. 경봉이 쉬운 우리말로 멋들어지게 법문한다면 향곡은 고준한 한자어의 문어체를 좋아했다. 훗날, 불법의 대의를 설법하는 향곡의 법문에도 고준함이 가득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보광삼매에 드시어 실상무상이요, 불립문자요, 교외별전이요, 심심미묘한 최고무상의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셨습니다. 그 뒤 거듭거듭, 고금의 헤아릴 수없이 많은 큰 지혜의 성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해 스스로가 원만하게 갖추고 있는 걸림 없는 큰 법을 자유자재하게 쓰셨습니다.

때로는 제왕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관대작의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자의 집안에, 때로는 부귀한 집안에, 때로는 빈천한 가정에 태어났고, 때로는 여인의 몸을 받아 태어나서, 여러 번 부처가 되기도 하고 조사가 되기도 했으며,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세관 출세간에 머물렀습니다.

번뇌가 없는 큰 지혜와 원만히 통하고 원만히 밝은 항하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묘용과 자재하고 걸림 없는 백천법문과 무량한 삼매를 본래 스스로 갖추었습니다. 본래 스스로 원명하고 청정하고, 본래 번뇌가 없고, 생사가 없고, 본래 미함과 깨달음이 없으며, 본래 차례가 없고 본래 계급이 없고 본래 범부와 성인이 없고 본래 닦음과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만법이 원만하고 만법을 갖추었고 만법이 한결같고 만법이 청정일여할 뿐만 아니라 본래 일이 없나니, 시방세계에 빛나고 인연 속에서 당당하게 머물며 삼계 속에서 안락하고 자재하며 걸림 없기 마련입니다. 때를 만나면 병에 따라 약을 주고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고 물이 넘치면 도랑을 이루나니, 자연히 못과 쇠를 끊고 수만 자루의 칼로 벽을 세우며, 쇠를 녹여 금을 이루고 금을 녹여 쇠를 이룸이 골수에 사무쳐 자재롭고 원통(圓通)합니다.

또 때로는 향상(向上)의 한 마디를 나타내고 때로는 향하(向下)의 한 마디를 나타내며 때로는 여래선과 조사선을, 때로는 최초의 한 마디, 때로는 최후의 한 마디를 합니다. 더불어 때로는 큰 기틀과 큰 작용을 보이고 때로는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으며, 때로는 선정에서 나와 마음대로 향하고 때로는 거두고 놓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주고 빼앗음에 짝할 이 없으며, 비춤과 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방편과 진실이 자재하고 순(順)과 역(逆)에 걸림이 없고 응용이 무애한 것입니다. 네거리 한복판에서 마음대로 노닐고, 티끌 세상에 묻혀 오른쪽을 마주보며 왼쪽을 바로보고 왼쪽을 마주보며 오른쪽을 보나니, 전광석화로도 통할 수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고 시방세계에 자취를 남김없이 대자재 무애하며 크게 청정하고 크게 당당하고 크게 활발한 것입니다.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가 본래 대해탈의 보리세계요, 백천 항하사 모래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가 본래 청정한 대적멸도량(大寂滅道場)입니다. 꽃과 풀들은 모두 제불께서 몸을 나타낸 것이며 모든 사람과 물건들은 일천 성인께서 정법을 제창함이며, 모든 국토 속에서 법을 잃고 법을 파하는 것은 도인께서 참된 법을 마음대로 수용해 다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이 무궁하고 취함 또한 끝이 없어서, 영원토록 천하를 홀로 거닐고, 삿됨이 없음을 드러내며, 영원토록 자재하고 생사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고요하고 밝으며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뛰어나고 한가로우며, 영원토록 체(體)가 스스로 한결같으며, 영원토록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추며 원만히 통하고 밝으며, 영원토록 장애가 없으며 영원토록 광대하고 신령스럽게 통하며 밝게 빛납니다.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걸음 나아가니
산은 밝고 물은 맑으며 해와 달은 영원하네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천상과 인간 세상의 으뜸가는 법왕일세.>

혜암은 향곡의 법문에 미소를 지었다. 견성한 각자(覺者)가 천상천하 독보하며 짝할 이 없으니 천상과 인간 세상의 으뜸가는 법왕이 아닐 수 없었다. <계속>



"직지뮤지컬 불교모독"

불교계, 충북도언론호법위 대응

"스님과 비구니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교계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불교계가 '직지 창작뮤지컬'에 대해 강력한 반발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처음 선보인 청주시립합창단의 창작 뮤지컬 '직지 묘덕을 만나다'는 직지를 만든 백운화상과 비구니인 묘덕과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다.

이에 불교계는 "스님들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불교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직지 뮤지컬의 문제점으로 △백운화상의 제자인 2명의 스님이 대장장이로 묘사된 점 △백운화상의 행동이 희화돼 스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는 점 △금속활자의 제작법과 직지의 프랑스 유출과정 등이 부정확 하다고 지적했다.

불교계의 이 같은 반응에 청주 남상우 시장은 10월 10일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 충북도언론호법위원회(사무총장 혜쵤)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만나 "청주시립합창단의 창작뮤지컬이 불교를 비하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불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으나 예술성과 재미를 가미하다보니 오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주시립합창단은 1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불교계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점을 공식 사과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직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정진하며, 뮤지컬 '직지 묘덕을 만나다' 공연여부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자문을 받아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정산 스님 개인전 개최

인사아트센터3층서, 23~29일

사찰음식 연구가이자 매니큐어 작가인 정산 스님 개인전이 9월 23~29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이전보다 색의 사용에 있어 다소 화려하며, 형태의 추상성이나 직선적 접근이 시도된 것이 특징이다.

김광명 교수(숭실대 예술철학)는 정산 스님의 작품에 대해 "스님의 작품은 무욕의 맛과 관조의 멋을 보았으며, 자기 인식과 자기이해, 곧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다"고 밝혔다.

정산 스님은 작품의 재료로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깨져 조각난 도자기의 상처와 흠집을 가리기위해 사용한 것이 지금은 작품의 주재료가 돼버렸다.

불성(佛性)을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의 예술적 창작의 영감을 얻는 스님은 "작품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5-0312 이은정 기자

뮤지컬 2題

● 타타 IN 붓다

불교, 태권도와 만나

백재현 연출… 10월 20일부터 공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권도가 본 떼를 보여주려 한다. 개그맨 출신 백재현은 이번 뮤지컬 '타타 IN 붓다'의 연출을 맡아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태권도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느끼게 했다. 태권도를 다름 아닌 불교 스토리와 접목시켜 웅장하고 장엄하게 만들어 연출한 것이다.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번 뮤지컬은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과 만나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탄생됐다.



연출을 맡은 개그맨 출신 연출가 백재현(위), '타타IN 붓다'에서 '타타'역을 맡은 태권도 배우 최호경.

특히, 뮤지컬에 출연하는 전원은 태권도 유단자로 극을 스피디하고 화려하게 이끌어 무대의 볼거리를 한층 극대화 시킨다. 노예출신 장수 '타타'와 '싯다르타'의 인간적인 고뇌를 다룬 감동적 스토리, 아름답고 신비로운 태권도 기술이 스펙터클한 무대로 완성됐다.

또한 뮤지컬에 가장 중요한 음악은 기품있는 이미지를 고려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작곡됐다. 총 21곡으로 이 음악들은 태권도의 각종 품새, 기술 등이 극중에서 적절하게 표현되도록 구성됐다.

세계적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동경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태권도와 동양의 대표 종교인 불교의 만남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제작사 쇼엘은 이러한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태양의 서커스'처럼 뮤지컬 '타타 IN 붓다'가 세계적 진출을 목표로 최강의 문화상품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미 세계인을 감동시킬 준비는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타 IN 붓다'는 10월 20일~11월 27일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공연되며, 뮤지컬 배우 임춘길, 전수미와 태권도 배우 40여 명이 출현한다. (02)3674-1010

뜨거운 태양 아래 선글라스 너머로 수영복 차림을 흘끔거릴 수 있었던 여름은 솔로들에겐 천국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슬슬 옆구리 시려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고독한 가을은 솔로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법. 솔로 탈출을 외치게 하는 뮤지컬이 가을을 맞아 연이어 공연된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이번 공연들은 불교적 소재를 갖고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풀어내 한층 더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달마야 놀자

엉뚱건달 VS 시크스님

달마밴드 공연 볼거리, 12월 공연

이미 영화로 제작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달마야 놀자'가 뮤지컬로 다시 돌아왔다. 뮤지컬로 제작된 '달마야 놀자'는 전작에서 보여준 제목과 재미는 그대로 살리되 또 다른 이야기로 관객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빠뜨린다.



영화로 제작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달마야 놀자'.

이번 뮤지컬은 다소 엉뚱한 건달들과 시크한 비구니스님들이 만나 산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단순한 남녀의 성대결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를 통해 황당하지만 유쾌한 코믹액션 뮤지컬로써, 유쾌하고 상쾌한 스토리와 박진감 넘치는 액션들로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예정이다.

이 공연은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화해와 상생의 의미,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휴먼감동 스토리다. 또한 참 '生'의 메시지인 불교의 정서를 재밌고 친숙하게 표현해 불교의 대중화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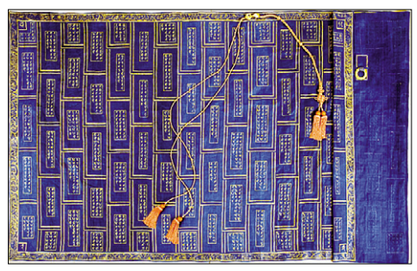
'달마야 놀자'는 어디서도 잘 다뤄지지 않았던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무섭지만 어딘가 어색하기만 한 건달의 대립을 코믹한 액션과 흥겨운 음악으로 풀어냈다. 특히 공연에서 나오는 '산사축제 달마야 놀자'에서 달마밴드가 함께 공연하는 장면 등은 극중 가장 볼거리로 꼽힌다.

한편 '달마야 놀자III'는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12월 오픈하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0년 1~3월 공연된다. 연출은 '싱싱싱' '에비타'의 배해일이 맡았으며, 극본은 '남자 넌센스' '과거를 묻지마세요'의 정세희 작가가 맡았다. 또한 '다 줄거야'를 부른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이 음악에 참여했다.

이번 뮤지컬에는 가수 겸 배우인 임창정이 출연할 예정이며, 작품에 출연할 신인배우를 모집 중이다. 공개 오디션은 21~23일 진행된다. (02)2051-9915

명천 스님 대상

불미전, 17일 불교중앙博서





대상 수상작인 명천 스님의 '복전의(福田衣)'(위)와 최우수상 수상작 채윤지의 '대세지보살도(부분)'.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미래의 불교미술의 장인 제2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이 9월 17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동시에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번 불미전에는 총 60점의 작품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20점, 입선 28점이 당선 됐다.

당선작으로는 대상 공예부문에 명천 스님 '복전의(福田衣)', 최우수상 조각부문에 김영찬 '마애불', 회화부문에 채윤지 '대세지보살도'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2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문화재청장상도 추가로 받는다.

그 밖에 우수상에는 조각부문에 김광언 '지장보살', 회화부문 전미향 '아미타극락구품회도', 이영의 '도세'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며 작품들은 9월 17~3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미술대전은 1970년 불교미술전람회로 시작하여 39년을 맞이했으며, 이번 행사는 격년제에서 매년시행으로 전환한지 3년째 되는 해로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도약했다. (02)2011-1772 이은정 기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2010 불교달력출시
달력가격 대폭인하
공장→사찰 직거래판매
창립35주년 기념세일(임시할인가)
생산자
도매상
불교상회
사 찰
12절 100,000원 (100부)
다이어리 120,000원 (200부)

7호 가람의 향기

10호 동자승의 하루

32호 나를 다스리는말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011-554-2988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㊹ 밥은 모험: 채식당 기행-수안 처사 편<2>

부처님 말씀도 잊게한 착한 밥상

길을 떠나기 전, 대걸레로 차의 먼지를 닦아내던 수안 처사의 손길이 본네트 뚜껑에 이르러 잠시 멈칫한다. 미안한 생각이 드는지 "언제 한번 각질제거를 해줘야하는데…."라며 그의 아벨라 승용차에게 괜스레 한마디를 건네 본다. 그도 그럴 것이 벨라(애칭)의 각질 상태는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닌지라 본네트 부분은 도색이 심하게 벗겨져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다. 요즘 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벨라의 매력은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안 처사의 말마따나 사람의 손길과 애정을 유독 타는지라 차에서 내릴 때면 사방 문고리를 일일이 채워 잠가줘야 한다. 또한 시속 백 킬로 미터를 넘게 주행하게 되면 나름의 아날로그식 안전경보 시스템이 가동돼, 차체와 전면 유리창 사이에 붙어있던 플라스틱 살이 삐져나와 바람을 가르곤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탱크 소리를 내며 가동되던 에어컨은 이젠 그 기력도 다해 사람들에게 더위쯤은 무던하게 인내하는 미덕도 키워준다. 하지만 벨라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절집의 궂은일과 스님들을 위해 그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온 15년 삶의 행적에 있다. '낡음'을 부끄러워하는 실없는 어리석음도 없이 세월의 연륜을 훈장처럼 보여주는 멋스러움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

이모저모로 매력이 여간 아닌 벨라와 함께 떠난 이번 채식식당은 부산 남포동 근처에 위치한 P.S GREEN(tel:051-403-8471)이라는 곳이다. 일반적인 채식당에서 사용하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조차 사용하지 않는 곳이란다. 고흐가 즐겨 썼을 법한 빛깔고운 노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원목의 소담한 테이블과 각기 다른 개성의 의자와 책들이 쌓인 작고 안락한 공간이 펼쳐져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작은 카드에 단풍잎 모양의 구멍을 뚫어주는 전략도 애교가 있다. 두 번째 방문이라는 수안 처사는 "와플이 특히 맛있는 집"이라고 소개한다.

"보통 와플은 우유와 계란을 써서 반죽하는데 우리 집은 둘 다 쓰질 않아요. 우유 대신 두유를 쓰는데 두유에도 우유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유를 섞지 않은 유기농 두유가 있어서 그거 한 가지만 써요. 사실 다른 재료에 비해 곱배기로 비싼데, 제 맛을 내려면 어쩔 수 없지예. 와플도 그렇고 라떼 종류의 커피를 만들 때도 두유를 쓰니까 맛이 달라요."

메뉴판을 살펴본 나는 그러한 설명과는 얼토당토 않는 가격대가 믿어지질 않아, "아니, 그런데 이 가격에 뭐가 남긴 남아요?"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책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닌게 아니라 질 좋은 두유로 뽑아낸 커피나 야채비빔밥이 3000원이요, 돈가스를 흥내 낸 콩가스의 가격도 5000원이면 족하니 주머니사정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져 "내가 쏠 테니 맘껏 먹어 맘껏."이라는 인심 후한 말까지 불쑥 나와 버렸다.



토스트 위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올리고 메이플시럽과 시나몬가루를 뿌린 달콤한 바나나 토스트.

"콩가스와 비빔밥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기위해 실비만 받고 있어요. 값이 일단 저렴해야 채식을 안 해본 사람들도 쉽게 접하지 않겠어요."

주인아줌마의 말처럼 일단 가격부터가 착하니 각자의 식성이나 의견에 분분할 필요도 없이 죄다 시키고 본다. 우선 주 메뉴인 비빔밥이나 콩가스를 한 그릇씩 꿰차고, 사이드 메뉴로 야채춘권에 과일와플과 바나나토스토까지 양껏 주문하고 보니 상 위에 차려진 자태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진다. 익숙하지만도 새롭지만도 않은 맛의 조화는 입맛을 더욱 사로잡아 각자의 밥그릇이 채 비워지기도 전에 야채춘권은 벌써 두 접시 째 동이 났다. 바나나토스트에 필이 꽂힌 나는 한수 배워볼 요량으로 주인아줌마에게 비법을 물으니 아주 쉽다.

"토스트용 빵에 바나나를 잘라서 얹고 견과류를 부셔서 올린 다음 오븐에 구우면 돼요. 5분 정도 구워서 메이플시럽과 시나몬가루만 뿌리면 돼요."

매콤한 야채비빔밥 한 그릇을 후딱 비우고, 달콤한 바나나와 메이플시럽을 곱게 올린 토스트에 바삭하고 담백한 춘권과 와플도 모자라 맞은편 일행의 콩가스 한 점까지 얻어먹고 시원한 까페라떼 한잔으로 입가심까지 하고 나니, 삶을 고(苦)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③ 한의학의 이해

한의원에 가야할까? 병원에 가야 할까?

질병이 생겼을 때 한의원에 가야할지, 병원에 가야할지 고민 할 때가 있다. 한밤중에 통증이 심해서 괴로울 때는 응급실에 가야하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한의원에 가야 한다.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9월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가 개최돼 국가적인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의학이 어떤 학문이고,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잘 모른다. 아프면 한의원에 가야할까? 병원에 가야 할까?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고 땀을 흘리며 두통이 있고 온 몸이 나른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온다. 이는 누가 봐도 감기임을 알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감기 바이러스를 병의 원인으로 보고 해열제나 진통제를 사용해 치료한다.

한의학에서는 몸을 지키는 정기(正氣)가 약해지고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서 외부의 사기(邪氣)가 침입해서 감기가 걸린다고 한다. 폐가 약해서 걸릴 수도 있고, 간이 약해서 걸릴 수도 있고, 위가 약해서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치료는 폐를 돕는 마황탕(麻黃湯)을 쓸 수도 있고 위장을 돕는 쌍화탕(雙和湯)을 쓸 수도 있다.

감기라는 한 질환을 놓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이렇게 다르게 본다. 중요한 것은 치료효과이다. 감기가 아스피린을 먹고 나을 수도 있고, 쌍화탕을 먹고 나을 수도 있다. 이를 보고 어느 한 편이 우수하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이다. 학문은 어떤 결과를 놓고 이해시키기 위한 해석체계이다. 결과가 좋아야 학문이 좋은 것이다.

서양과 동양은 다른 풍토에서 의학을 연구 발전시켜 왔다. 아스피린이 갖는 해석체계와 쌍화탕이 갖는 해석체계는 다르지만 감기를 치료한다는 결과에서 볼 때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약이 자신의 감기를 잘 치료하는 약인지만 알면 된다.

요통은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하면서 척추에 압박을 주게 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요즘은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 있게 되므로 하체가 약해져 발생하기도 하고, 골다공증이나 성인병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

서양의학에서는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로 요통을 이해한다. 건물의 골조가 약해지면 골조를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척추를 보강하는 수술이나 물리치료를 한다.

한의학에서는 척추가 약해지는 원인을 신허(腎虛, 신장의 허약)로 본다. 여자의 경우 출산후 자궁과 신장이 약하게 되고 골반이 제대로 정상위치로 돌아가지 못해서 요통이 발생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신장과 대장, 소장이 약해져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고 요통이 발생한다.

여기서 허리에 대한 교정 역시 관점이 다르다. 서양의학에서는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로 정상위치로 돌리고자 한다. 한의학에서는 허리 부위와 연관된 다른 부위의 경혈을 지압하거나 침을 놓음으로써 정상위치로 돌리고자 한다. 이처럼 요통에 대해서도 동서양 의학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질병에서는 한의학이 간단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저런 질병에서는 서양의학이 간단하고 쉽게 치료한다. 이러한 장점들을 잘 알아서 활용해야 한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건강식품이든 증상과 체질에 적합할 때 효과적이다. 모두에게 좋은 약은 없다. 이제 약에 대한 이해가 선진화될 시점에 와 있다. 선진화란 그 약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그 약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 한의원에 가야 할 지, 병원에 가야 할 지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미 · 건강을 생각하는 만행화

만행화는 한국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미를 살린 신발을 지향하며 만든 것입니다. 제 바람은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타국 대중이 만행화를 보면서 '저것이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신발이구나' 라고 느끼고 알아 볼 만행화를 개발 · 보급하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미, 발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스님들과 많은 사부대중은 많은 횟수의 절 수행을 합니다. 108배 · 3000배까지 하는데 절을 함에 있어서 몸무게를 가장 많이 받아 지탱하는 부분이 발바닥의 엄지발가락과 그 주변입니다. 큰 원력으로 절 수행을 하시는 사부대중의 모습을 많이 보아온 제 자신은 신발을 만들면서도 깔창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깔창이 아닌 기능성을 갖춘 지압식의 깔창이 몸의 무게를 분산시켜 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깔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5년간 만행화 신발에 착화해 보급했고 여러 대중스님, 불자님들이 지압깔창의 효능에 대해 칭찬해 주셔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브랜드 제품, 저가형 제품들을 통해 시중의 유통체계를 살펴봤더니 비슷한 재료에 기능도 비슷한 제품을 쓰면서 제품의 기능을 부풀려 홍보 · 마케팅을 해 수십만 원의 고가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행화의 경우는 제자신이 절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되돌아보며 지인에게도 당당히 사용을 권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와 소재들을 쓰다 보니 가격대를 낮추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시중의 과장 광고 된 깔창과는 차별화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정으로 이 지압깔창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통해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는 것이 알려질것이라 믿습니다. 시중 신발들은 톨루엔이라는 화학성 접착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창만이라도 무독성의 초극세사와 풍산동, 항균 실리콘 고무만을 사용해 발명 보급하게 됐고 많은 대중께서는 효능을 아시고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그간 만행화 신발의 장 · 단점에는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여러 큰 선지식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고무신코 모양의 만행화 신발을 만들어 사부대중에게 보급할 것을 약속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발원 합장 올립니다. 만행화 대표 박벽산 합장.

(02)733-5715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10%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전통 범패
배우면서
행자, 스님 하실 분
▷무료탱화필요하신분
경남
016-428-666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산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남 양산
055)375-0142

운전 가능한
행자 및 부전
스님 구합니다
011-840-4355
051)334-3009

부전
스님
모십니다
032)522-8131

부전
스님
모십니다
019-338-8281
032)523-1896

女종무원 구함
PC가능자, 숙식제공
30세 미만
▷서울시내 사찰
02)3460-5300
010-7211-5066

참선기도도량에서 법우들과 포교하는 법사입니다. 맘껏 기도하고 포교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가능
02)2665-9690 보광 법사

보담 스님의 하늘 소리
천도재, 사십구재,
구병시식, 법문,
지장보살님을
95년도에 친견하고
지금까지 영가천도를
위해 실행합니다.
010-9444-0035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1-1747-855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천 구담사
010-4015-949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거주 가능한 40~50대 보살님
▷진해
010-2805-8468
055)552-5111

공양주
모십니다
철원군 동송읍 소재
큰 사찰에서
공양주 모십니다
033)455-5882
010-8879-8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 함께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경북 안동
054)822-7288
011-9576-4450

전국 어디든지
절이나 절 지을 터
아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주세요.
010-7188-7723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법우림 스님 소원성취 기도
- 소원성취, 21일, 백일기도 수시접수
- 천도재, 49재, 태아영가천도 수시접수
- 개인 사정과 사찰 형편에 맞게 의식집전

부 설 : 동양철학상담센터
상담사 : 혜도림 혜안정 도여림 도여경
기도성취 전법도량 자 성 사
문의 : 02)3663-8416

스님이
필요하신 곳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011-850-0176

부처님 가족 모심
기도하며
명리 배우실 분
신심있는 남녀
011-223-3334

주지 및 사찰 관리자 자리구함
법회때 한자 적절히 사용
환희심 나는 법문 해드림.
현재 천년고찰 노전 소임 중
50대 초반. 청정비구(순종)
혜안 사문
010-2606-1299
(개인사찰은 장기적으로 매입가능)

포교원 운영하시는 분
부산, 울산, 대구
등지에서 포교원을 운영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10-3300-5737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사주 전과정 45만원부터.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문경 보덕암 부처님 대웅전 대지 불사금 6만원 시주 하시는 분에게는 와송효소 엑기스 (3개월 복용량)을 무상으로 보시하겠습니다.
효소의 효능 : 당뇨병, 알콜중독, 식중독, 아토피, 암 등의 면역작용 있습니다.
농협 15004-51-246526 김광일
010-3167-1860 / 054)572-1860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보름단기출가학교 모집
수행자의 모든것을 경험
- 일시: 10월 5일(월)~10월 19일(화)
-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대구큰절 ·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등
- 은주 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오 가 피 뿌 리
오가피가 몸에 좋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수행자가 경북 안동에서 생산한 오가피 뿌리를 갈근, 두충, 당귀, 대추(이상 국산), 감초(중국산)와 함께정성껏 다렸습니다.
60팩 1박스 10만원(3박스 이상 구매시 9만원)
주문 후 입금 확인되면 3일 이내 배송해 드립니다.
농협 121022-56-217821 정부연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526 유일한농원 머슴 정원규
011-886-1256 / 070-7743-1258

월간역학



창간 20주년 기념 이벤트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하여 주역 .사주 .관상 .풍수 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하여 매월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은 2010년 창간 20주년을 맞는 기념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총 120만 5천 6백원을 단 10만원으로 할인해 드림.
1년 구독료 10만 5천 6백원+월간역학 <해설위원> 광고(1년 50만원)+ 월간역학 인터넷 광고(1년 50만원)란에 사진, 사찰명 한의원이나 역학자 기타 업체 상호와 영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1년간 게재+수맥탐지봉 1세트(1만 5천원) = 120만 5천 6백원. 이 행사는 10년만의 행사로 다음 기회는 2020년에 있음.
2. 회원증(호화 금박, 가로 42cmx세로 30cm), 해설위원 위촉장 보내드리며, 본사 발행 모든 도서 20% 할인, 타 출판사 취급 도서 10% 할인 해 드림.
3. 국내외 학회 및 토론회, 풍수기행 등의 행사에 초청 받으시는 외에도 많은 혜택을 드림.
가입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1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동영상 강의- 저렴 속성 완성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명당 탐지기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상표
관룡자!!
관룡자는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90~180도 회전한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 된다.
9월 15일 가격 인상
마지막 할인 행사!!
* 그 동안 66만원에 공급해왔습니다만, 9월 15일부터 7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는 분께는 60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 수맥탐지봉(1만 5천원)+ 월간역학 1년 구독(10만 5천 6백원) 을 드림.
*신청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0만원 입금 후 전화 주시면 9월 20일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림(9월 15일 한정)
*<패철 보는 법 책(2만 5천원)>도 판매합니다.
구입 시 월간역학(8천8백원)도 함께 무료 증정.
*역학공부: 저렴한 비용, 집에서 간편 신속 확실히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자미두수 동영상 강의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건강 찾아 자연 속으로
제2기 자연치유 수련 안내
자연치유 강의 및 수련 체험 과목
- NLP최면치유(설기문 교수)
- 요가치유(임동호 교수)
- 운동치유(천수정 교수)
- 식이요법(최재삼 교수)

※ 수련 체험 과목 및 내용 • 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제한 없음 (자연치유를 원하시는 분)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모집기간 : 2009. 9. 7 (월) ~ 9. 17 (목)
◈ 신청방법 :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 참가회비 : 15만원
◈ 수련기간 : 2009. 9. 19 (토) ~ 9. 20 (일)
◈ 수련장소 : 경기도 용인시 흥국생명연수원
◈ 출발장소 : 4호선 삼선교역 5번 출구 나폴레옹제과점 앞 (09시 출발)
◈ 수료특전 : 학술원의 자연치유 회원 자격부여 (재수강 시 10%할인)
◈ 문 의 처 : 동방학술원 사무국
전화 02)3668-9832, 9831 / 팩스 02)3668-9899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방학술원
136-823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www.dongbang.ac.kr

공 고

- 법 명 : 홍은 (弘隱)
- 속 명 : 김승수 (金承洙)

상기자는 본 종단에 해종 행위를 하였기에 치탈도첩(종단제명)함과 동시에 사용 중인 법명 "홍은"을 사용 중지를 본 종단 호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였기에 이에 공고함.

2009년 9월 16일

대한불교극락종 총무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오후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및 요사 : 20평
- 부지 : 36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대구근교
- 법당 : 60평
- 납골 : 3000기 수용가
- 요사 : 80외 전각 3동
- 부지 : 3800평
- 가액 : 28억

- 위치 : 경남(해수관음도량)
- 법당 : 3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23억(조정) (감정가 2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90평
- 시내
- 가액 : 10억 5천

- 위치 : 경기
- 대지 : 2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 위치 : 지리산
- 부지 : 410평
- 법당 : 35평외
- 요사 : 80평
- 가액 : 4억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영도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총대지 : 약 100평
- 법당 (와가) : 25평
- 주지실 : 15평
- 요사채 : 방 4개
- 산신각
- 가액 : 2억 8천

지리산 아름다운 절
- 대지 총평수: 420평
- 법당(와가) 20평
- 요사채 3동
- 도량주변 산세, 풍광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1억6천(은행 5천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비밀보장 철저,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절 터 안 내

경관이 아름다운 절터입니다
소백산 산자락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 자연 조경완료, 풍부한 자연식수
- 전기, 전화, 現 희귀약초체험학습 공원으로 운영중
- 급 어려움으로 명상의 절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 충북 단양군 금수산 자락 ● 총면적: 1600평
- 시설하우스: 110평, 황토방 10평, 조립식 주방 +방 10평
- 실 투자비용 4억 5천만원 ● 가액: 3억 5천만원

연락주세요 010-3173-0045 / 043)421-3325

전통사찰(급)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38억 (금액조정불가)

010-3683-2578

작 은 토 굴

- 위치 :강원도 홍천군
- 평수 : 대지 110평 (건평 30평)
- 임법당
- 가액 : 1억원

033)434-29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동래
- 현 법회 기도중
- 3층 건물 중 2층 50평
- 스님 공찰 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5만원
- 문의 오후 5시 이후

017-586-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8천만원

011-540-3313

한 국 불 사

- 서울 약 50평 9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2층 .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51)501-2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 부지: 총 1650평,대지 300평
- 건평 100평
- 구조: 법당 요사채 2동 산신각 용신각, 황토벽돌 .
- 요사채 1동은 구들방으로 된 황토 귀틀집임(방 5개)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320-884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 평수 : 55평
- 법당 완벽, 호신불 150불
- 오존불, 탱화
- 시설일체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0-6215-97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평수: 55평, 2층건물에 2층
- 삼존불, 지장보살님,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7188-2981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줄기 소나무 숲
- 총면적 대지 320평
- 답, 임야 330평
- 건물 4동
- 가액: 답사 후 절충 가능

055)882-031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문수사)
- 부지 총 1,700평중 540평 종교부지
- 건물, 임법당, 요사채, 산신각포함 100평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소요되었음
- 스님의 건강악화로 2억에 급히 양도함
- 특징: 조그만 암자나 교통편리한 다른 건물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성로
- 3층건물 중 3층 옥상, 인법당.
- 실내전용면적 40평
- 불교대학운영적합 비품일체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70만원/시설비 4000만원

011-536-6430

포교원안내

- 위치: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바로 앞
- 4층건물 중 2층
- 실평수: 40평, 법당 20평
- 방2, 욕실, 공양간, 삼존불, 후불탱화,각단탱화(고려불화)
- 가액 :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총 2000만원

010-2665-2393

암 자 안 내

-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 요사채 1, 작은법당 1
- 가액: 6,000만원

011-723-66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10-7104-2138
010-9940-977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 종교부지300평, 대지150평, 임야184평
- 주차장 넓고 교통사통 발달 기혈이 흐르는 명당터
- 뒷산 등산로, 대나무, 소나무
- 신축3년, 법당15평, 요사채 30평, 부속건물2동
- 가액: 3억 7천만원

010-4802-383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감만동 대로변
- 4층 건물에 3층, 40평
- 옥탑방 2칸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옥탑방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0-8108-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천안시 천고사거리 천안전철역 도보 7분
- 평수: 약 40평
- 3층건물 중 2층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5154-7019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 지하철 입구역
- 2층, 30평 전체 (법당, 주방, 방1칸, 목욕탕, 창고)
- 항시 기도법회중
- 모든 집기 일체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함
- 가액: 집세 500 만원 /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스님 소임 관계로 급

051)752-58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8천만원

011-540-331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부여
- 골조 슬라브 2층 건물
- 총 230평 대지 180평
- 2층법당+방 1+욕실+1 총 50평, 1층 요사채 50평
- 석축조경 자연 우물
- 창고 10평, 심야전기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0-2988-0267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역 시장 내
- 포교원 인수하실 분
- 방2, 삼존불, 탱화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있음

011-9696-094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038-7704

임 야 안 내

- 위치 :경남 창영
- 평수: 임야 약 1만평
- 특징: 암자터 좋은 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 가액: 6천 5백만원

010-7325-1259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동구 효목동 지하철 역세권
- 3층 건물 중 2층
- 평수: 50평, 방 2 살림가능
- 가액: 보증금 3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즉시 법회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7-808-0108

포교원 최고의 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냉정역 1번출구 앞
- 포교원 임대 하실 분
- 90평형, 130평형

010-3400-9400

사 찰 임 대

- 경주 산내 자연환경이 수려한사찰 내 방 임대
- 1칸
- 전세 500만원
- 월 식대 30만원

010-7714-3757

작은 토굴 안내

- 위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 총평수: 304평, 임법당 14평
- 방 2개
- 주차장 넓음, 주변 환경 수려하고, 조용한 수행환경
- 언제든 법회가능함
- 가액: 연락 후 가격 절충

011-865-3589
033)682-4652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
- 5,000평 중 요사 54평, 방사 5개
- 임법당 54평
- 조용하고 공기 맑은 산중 토굴로 치료 목적이나 공부하실 스님들께 적합
- 법사님이나 신심깊은 보살님도 가능
- 가액: 전세 3천만원

054)682-082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구리시 교문동
- 3층중 2층 50평 대로변
- 법당 25평, 방 3개, 주방 大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011-9342-9794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 금호
- 부지: 106평, 건평 60평
- 법당1, 거실1, 방3, 공양간1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지하수
- 조경-뒤에는 작은산, 앞에 큰 저수지 有
- 조용하고 아담한 수행도량
- 비구니 스님에게 적합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8-124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부 경남
- 부지: 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5억
- 특징: 대작 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량

010-3553-001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춘천시 남산면
- 교통: 가평 터미널에서 10분 강촌 나들목에서 12분
- 특징: 완벽한 기도처, 현 산중턱 독립펜션운영중
- 평수: 700평, 가옥 50평 사찰터에서 펜션을 운영하니 사정상 사찰을 하실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가액: 5억 3천만원(주변 땅은 매입 가능함)

033)263-1719
019-9177-1084

콩만한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구에서 50분 창영에서 20분 합천에서 25분 부산에서 80분) 진주에서 대구가는 국도 20번에 접합
- 100M 차량 출입가능
- 대지: 200평+200평...평당 약 20만원
- 건물: 법당(목조 13평 6천소요)
- 요사채(신축 32평: 슬라브일부기와. 평당 300만 소요)토목 및 석축 옹벽에 많이 소요되었음
- 가액 : 몽땅 1억 4천만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양도 하려고 합니다

011-9329-4241(처사)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100평 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366-490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건물 법당 25평,요사 30평 2동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6억 5천만원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79평, 건물 25, 슬라브 2동
- 가액: 2억 5천만원

018-554-619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7분거리
- 대지 450평, 등기 필
- 와가 법당 20평 2층,요사채 38평(창고 15평)
- 옥외화장실 6평, 6층석탑(제주석)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3억 7천 3백만원/방문시 절충 가능

010-3791-703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외간읍에서 5~7분거리
- 평수: 516평(2필지)
- 법당, 단청,20평 요사 2동(산 밑에 있음) 잔디 마당, 지하수 +수도
- 특징: 청정지역으로 마당에는 메뚜기가 놀고 밤에는 반딧불이 반짝임
- 가액: 3억 8천만원(대출 4천만원 있음) 개인 사정으로 시세 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1층 요사채 47평
- 2층법당 23평,방6, 주방, 거실, 화장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산신당 4평별도
- 기타: 심야전기, 옥외주차장 약 80평, 옥외화장실 남녀 각 1, 집기일체
- 당일 법회 가함, 몸만 오시면 됨 노령으로 양도코자 함
- 가액: 4억(절충가능)

011-9114-9935

화엄론 입각한 불 · 유 · 도 삼교일치 실현에 '노력'

<42> <명도집설(鳴道集說)>의 저자 이순보(李純甫) 거사



그림 · 김홍인

불경 두루 보고나서 나이 서른에 관직 버리고 은둔
대표작 '명도집설' 외에 대문장가로서 많은 작품 남겨

금(金) · 원(元) 통치기간 동안 중국 북방지역에서는 오가칠종 가운데 조동종(曹洞宗)만이 그 명맥을 유지했다. 이는 <종용록(從容錄)>을 찬술한 만송행수(萬松行秀; 1266~1246) 선사의 활약이 두드러진 까닭이다.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 권4에 따르면, "금의 황제는 조동선파(曹洞禪派) 만송 장로를 내전에서 설법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장종(章宗)황제는 친히 예를 갖추어 맞이해 금기대승가의(錦綺大僧伽衣)를 봉헌했다. 후비(后妃)와 황족들이 예배했고, 각각 진귀한 물건을 보시했고, 보도회(普度會)를 베풀었다"라고 해 금의 장종에게 귀의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만송 선사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공자와 노자, 장자 및 백가의 학문에 회통하지 않는 바가 없고, 항상 <화엄>을 업으로 삼았다"(<오등엄통(五燈嚴統)> 권14)고 하며, "유학과 불학을 겸비했고, 종설(宗說)에 정통해 변재(辯才)에 걸림이 없었다"(야율초재(耶律楚材)의 <종용록> 서문)는 것으로부터 불교와 유 · 도 양가에도 널리 회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송 선사는 황제의 명에 따라 대도(大都; 현 北京)의 여러 사찰에 주지를 맡아 널리 교화해 조동종을 '중흥' 시켰고, 만송 선사의 법맥은 명(明) · 청(淸)에 이르도록 지속됐다.

만송 선사의 제자로는 설정복유(雪庭福裕) 등 다수가 있다. 유명한 재가의 제자로는 이순보와 야율초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이순보(1185~1231) 거사는 <명도집설>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순보 거사는 자(字)가 지순(之純)이고, 호는 '병산거사(屛山居士)'로 홍주(弘州) 양양(襄陽)사람이다. 팽제청의 <거사전> 권35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비상하게 총명해 스스로 '제갈공명'과 비교했고, 금의 장종 승안(承安) 2년(1197) 13세에 진사에 합격해 이름을 널리 떨쳤다고 한다. 특히 병법을 좋아해 장종이 남정(南征)할 때 두 차례 상소를 올려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재상은 그 글을 높이 평가해 한림(翰林)에 추천해 들게 했다. 후에 벼슬이 경조부(京兆府)의 판관(判官)에 이르렀다.

거사는 나이 서른에 이르러 불경을 두루 보게 됨에 따라 자신의 재주와 학문이 보잘 것 없음을 깨닫고는 관직을 버리고 은둔해 술로 세월을 보냈다. "한가롭게 머물며 선승(禪僧), 선비들과 더불어 노닐며 오직 술과 글로서 일을 삼았다. 퉁소 소리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예법에 벗어나 술을 마셔 혹은 수개월동안 취한 채로 보냈다…. 비록 취해 있었지만, 책과 글을 씀은 폐하지 않았다."(<귀잠지(歸潛志)> 권1) 이러한 거사를 사대부들이 분분히 찾아 법을 물었다. 거사는 근기에 따라 지도하여 "막힌 자는 통하게 해주었고, 의심하는 자는 믿음을 갖게 해 모두 통쾌하여 돌아가게 했다." 이런 거사를 "당세(當世)의 용문(龍門)"이라고 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행수 선사를 만나 한 마디에 서로 계합해 거사는 선사를 따르며 선의 오의(奧義)를 구했다. 거사는 선사와 "매번 술을 즐기며 천하의 일을 논하고, 혹은 불교와 유학의 동이(同異)를 논했는데, 비록 서로 논박했지만 결코 그 어느 쪽도 굴함이 없었다"(<귀잠집>권1)고 했다.

거사는 만년에 평생의 저작을 분류해 불 · 도 양가와 성리(性理)를 논한 것을 '내고(內稿)'라고 칭하고, 그 외의 비문, 시부(詩賦) 등을 '외고(外稿)'로 칭했다. 또한 <능엄경> <금강경> <노자> <장자>에 대한 주석서와 <중용집해(中庸集解)> <명도집해(鳴道集解)>를 통칭했다. 이로부터 거사가 '중서(中西)' 즉 인도와 중국의 융합과 불 · 유 · 도 삼교의 합일을 표방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거사는 금대(金代)의 대문장가로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저작이 현존하지 않는다. 거사의 <명도집설>은 현존하는 삼교융합을 제창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책은 후대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학가(理學家)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은 본래 2백17편에 이른다.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권20에는 그 가운데 19편만을 게재했다.(<명도집설>의 온전한 판본은 藍吉富編 <大藏經補編>(臺北:華宇出版社 , 1985.) 26책에 실려 있지만, 필자는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 <불조역대통재>의 편집자인 염상(念常)은 "제유(諸儒)의 <명도집(鳴道集)>에는 217종의 견해가 있다. 모두 진리에 어리석고 성품을 잃은 것이며, 명상(名相)에 집착하여 쟁론을 일으키는 실마리로서 혹업(惑業)을 일으키는 재앙이다. 대체로 법성(法性)에 융통하지 못한 것이다. 병산 거사는 지극한 도리에 깊이 밝아 그 어두운 눈으로 네거리를 헤맬까 근심되어 그를 분석해 논하여 말학(末學)의 폐단을 구하고자 했다. 마힐(摩詰; 王維 거사)과 조백(棗柏; 李通玄 장자)이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 해도 또한 더할 수 없음이다. 그러므로 <통재>에 19편을 실었다"고 했다. 이는 <통재>에 <명도집설> 가운데 19편을 선정해 게재한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고, 또한 거사의 <명도집설>이 바로 <명도집>에 대한 반론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명도집>은 송대 이학가들의 배불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72권 217편으로 구성됐다. <통재>에서는 또한 <명도집설>에 실린 야율초재 거사의 <서문>을 인용하고 있다. "옛날에 내가 <명도집>을 보았을 때, 심히 불공평해 그 오류를 바로 잡는 책을 쓰고 싶었으나 미처 겨를이 없었다. 병산이 나보다 먼저 책을 써서 바로 잡으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라고 평했다. 야율초재는 바로 거사와 함께 만송 선사의 대표적인 재가제자이다. 또한 서문에서는 "거사가 29세에 <복성서(復性書)>를 읽고서 이습지(李習之; 李翺)가 또한 29세에 약산(藥山) 선사를 참알하고서 물러나 이 책을 썼음을 알고서 크게 감탄했다. 만송 선사가 심하게 거사를 공격하자 물러나 이 책을 썼다. 세 성인의 도리와 성품[理性]이 함축된 묘요(妙要)는 끝내 불조(佛祖)로 귀결될 뿐"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만송 선사를 참알한 후에 거사가 <명도집설>을 찬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사전>에 보이는 찬술연령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거사전>에서는 이순보 거사의 입적 후에 비로소 야율초재 거사가 서문을 찬술해 세상에 알려졌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거사가 <명도집설>을 찬술한 것은 29세 혹은 30세이지만, 그것이 출간돼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바로 거사의 입적 후의 일이었다.

<명도집설>의 주된 사상은 불교와 유 · 도 양가의 교설을 융회해 화엄론에 입각한 삼교일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세 성인의 도리와 성품이 함축된 묘요는 끝내 불조로 귀결될 뿐"이라는 말처럼 불교가 중심이었다. <통재>에 실린 19편 가운데 불교와 유학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불교와 유가의 우열은 불교에서 유서(儒書)의 허물을 읽고, 또한 유가에서 불서(佛書)의 병폐를 읽는데 있지 않다. 내가 <수능엄경>을 읽었을 때, 유가는 불교의 아래에 있음을 알았다. 또한 <아함> 등의 경전을 읽었을 때는 불교가 유가의 아래임을 알았다. 그러나 <화엄경>을 읽고 난 후에는 부처[佛]도 없고 선비[儒]도 없으며,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어, 능히 부처도 되고 선비도 되며, 능히 큰 것과 작은 것을 보존하고 없앰을 자재(自在)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거사는 화엄의 원융사상으로 유학과 불교의 대립을 해결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거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와 제석천망(帝釋天網) 등의 원교(圓敎)가 없다면, "학도자(學道者)는 무위(無爲)의 갱에 떨어져 오묘함만을 논하는 사견(邪見)의 경계에 들어가 노장(老莊)의 내성외왕(內聖外王), 공맹(孔孟)의 상달하학(上達下學)의 학설이 모조리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로부터 거사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불교의 인도가 없다면 유 · 도 양가의 학설은 한쪽으로 치우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사전>에서는 <명도집설>을 동시대 류밀(劉謐)의 <삼교평심론(三敎平心論)>과 명초(明初) 심사영(沈士榮)의 <속원교론(續原敎論)>과 유사해 그 대지(大旨)가 "대체로 같다[略同]"고 평가했다. 이러한 팽제청 거사의 평가는 바로 송대에 유학의 흥기로 쇠퇴된 불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만송행수 선사의 활약과 이순보 거사의 <명도집설>을 통한 삼교회통의 적극적인 주장은 다시 북방에서 불교가 정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전통사찰



■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 법당 : 30평 (목조단청)
■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 가액 : 11억

010-9336-2568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안사 (등록번호 제 2541-15호)
• 법 명 : 오연(윤명자) 승적번호 1196-20448
의전(나현숙) 승적번호 1196-20449
일정(이경주) 승적번호 1101-20447
대원(문도경) 승적번호 1105-20778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위 사찰과 위 본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43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마사지나 지압등의 수기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서울 전문가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11일(금)오후 7:00~9:20(주1회 6개월)
◆ 대 상 자 : 기치유능력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서울 양성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12일(토)오후 2:00~4:20(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문의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대구 양성반 개강 문의 : 053-652-2202
◆ 수련일자 : 9월 17일(목)오후 7:00~(11주과정)
◆ 수련일자 : 9월 19일(토)오후 3:00~(11주과정)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 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⑤ 십팔학사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당대 궁중풍속

차(茶)를 지극히 사랑한 한 중국의 황제가 있었다. 그는 황실 전용의 차밭을 소유했으며 자신이 직접 <대관다론(大觀茶論)>이라는 저명한 다서(茶書)를 썼다. 뿐만 아니라 시 · 서 · 화에 뛰어났던 그는 차 그림을 몸소 그려 당시의 다법(茶法)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 전대미문의 통치자는 바로 북송(北宋, 960~1127)대의 마지막 황제, 휘종(徽宗, 1082~1135)이다.

그의 그림을 후대에 모사한 '십팔학사도'는 가로 폭이 5.5미터에 이르는 긴 두루마리 그림으로 내용은 당대(唐代)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당태종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홍문관(弘文館)을 두었는데 그림은 그곳에서 활동한 18명의 학자들의 문회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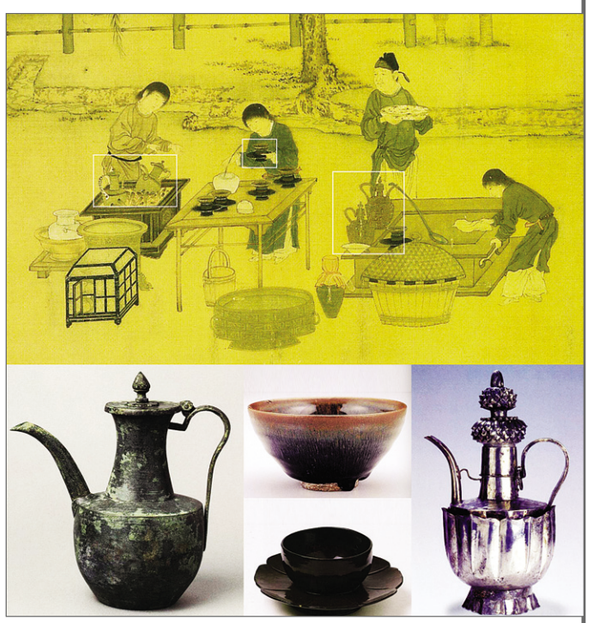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소재는 이후 송대의 문치주의 이념과 부합돼 꾸준히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림에는 궁중의 풍속장면이 파노라마형식으로 자세하게 표현돼있다. 그 중에도 많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연회를 위해 차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화면 안에는 총 네 명의 인물이 묘사돼 있는데 우측에 관모를 쓰고 서있는 인물이 나머지 시동들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며 연회에 올릴 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 주변으로는 탁자와 풍로, 찻잔을 보관하는 도람(都籃), 청동그릇을 비롯해 다양한 다구들이 표현돼 있다. 현존하는 당시의 유물들을 회화 속의 다구들과 비교하면 그림 안에 북송대의 차 문화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현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왼편에는 큰 풍로와 2개의 청동 병이 있다. 물이 다 끓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은제 병으로 옮겨 담게 되는데, 휘종이 저술한 <대관다론(大觀茶論)>에 '병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좋다(甁宜金銀)'라고 한 대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화면 중앙의 시동은 항아리에 있는 말차를 다완 안에 담고 있다. 또한 <대관다론>에는 '잔의 빛깔은 검푸른 것을 귀하게 여긴다(盞色貴青黑)'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차의 고운 빛깔을 밝게 드러내 주기 때문(取其煥發茶采色也)'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림 속의 다완은 복건성의 건주요(建州窯)에서 구워낸 토호문다완(兎毫文茶碗)으로 황실에서 사용하던 완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격불로 피워낸 흰색의 차 거품이 검은 잔에 담기면 그 색이 더욱 환하게 빛났을 것이다.

동자는 다완과 은제 병을 챙겨 연회장소로 가서 음다를 준비하게 될 텐데, 아마도 병에 담긴 물을 다완에 조심스럽게 따르면서 동시에 다선으로 보기 좋은 차 거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때 병의 가늘고 긴 주둥이는 밀도 있는 물줄기를 만들어 격불을 용이하게 했다. 이는 뭉뚝한 형태의 당나라 숙우와 비교되는 송대 탕병만의 특징이다.

당대가 병차(餠茶)의 시대였다면 송대에는 단차(團茶)가 유행했다. 이들은 모두 말차의 일종으로 가루 내어 마시지만, 송대는 차 거품을 만드는 격불법으로 인해 다완과 탕병이 이에 알맞게 발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실에 의해 관리됐던 송대의 단차는 차 만드는 공정이 당대에 비해 더욱 세분화됐으며, 탕법에 있어서도 발전을 거듭했으니 가히 송대의 단차는 말차기술의 정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또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송대 문사들에 의해 향유됨으로써 차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휘종의 그림 '십팔학사도'는 당나라의 아취 있는 문회를 그려 보편적인 지향점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이와 함께 송대의 다법을 그려 넣어 이들의 존재를 당시의 시대성 안에서 생생하게 부활시켰다. 즉 차를 준비하는 이 장면은 그림 안에서 당(唐)이라는 과거와 송(宋)이라는 현재를 연결시키고 서로 소통하게 만든 매개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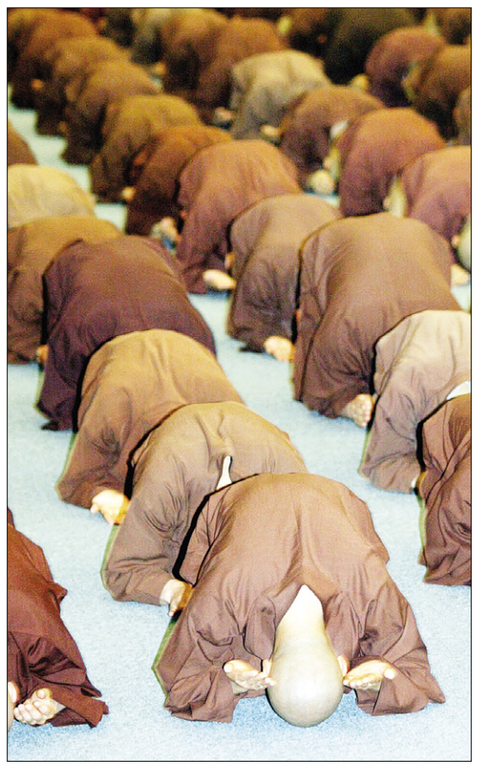


傳 송 휘종, '십팔학사도' 부분, 북송, 비단 위에 채색, 28.2x550.2cm, 대북 국립고궁박물원.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② 행자복(行者服)



출가자는 누구나 행자 시절을 거친다. 다시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행자복도 이 때 입게 된다. 갓 난아이가 배내옷을 입듯 불가(佛家)의 이름을 받은 행자는 처음으로 행자복을 입는다. 행자는 계(戒)를 받고나면 동방에 행전이 전부인 행자복을 더 이상 입지 않는다.

오늘 행자교육원에 입교한 행자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있다. 지금 행자복을 입고 있는 행자도 배내옷을 입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기억할 수 없는 시절이다. 그 옛날 행자가 벗어놓은 배내옷엔 기억할 수 없는 시절이 남겨졌고, 이제 그 아이가 벗어놓은 행자복엔 잊어서는 안 되는 시절이 남아서 다음 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詩가 있는 도량

▪ 가을무덤

비가 지나간 발자국을 찾느라고
길바닥 물벼락은 우왕좌왕이다
젖은 가로수 잎이 물방울을 거칠게
지상으로 연방 퉁기고 있다
음표 같다고 나뭇잎이 높고 낮은
악보를 그려낸다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또한
가지 끝에 중얼거리는 악보다
지난 가을의 중얼거림은 숙연했다
물끄러미 가지 끝에 눈을 주었다
바라보았다 우러러 본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사이 그 보다 먼저
숭고하다는 심각한 말이 떠오르는 사이
가을이 뭉글뭉글 지고 있었다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물 먹은 듯
나뭇잎을 전별하는 가지 끝에서
비 오는 소리가 은근한 줄을 튕겼다
가을무덤으로 가는 길이었다

–유병근, <현대시학> 9월호에서

옛 판화의 세계

배휴가 시를 지어 바치다 배휴증시(裴休贈詩)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석희운 스님이 백장 선사(百丈禪師)에게 법을 이어받은 후 황벽산에 주석하고 계실 때 재상인 배휴공이 스님을 흠모해 황벽산으로 스님을 찾아와 친견하고 시를 바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희운 스님(希運,~850)의 시호는 단제(斷際)로, 푸젠성(福建省) 출생이며, 어려서 홍주(洪州) 황벽산에 들어가 승려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지기(志氣)가 왕성해 출가한 후, 백장 선사의 지도를 받고 깨달음을 성취했다. 종릉(鍾陵)의 용흥사(龍興寺)와 848년에는 배상국(裴相國)의 청으로 완릉(宛陵)의 개원사(開元寺)에도 머무르면서 찾아드는 학인들을 제접(提接)했으나 황벽산에서 최후를 마쳤다. 그래서 황벽희운이라고도 부른다. 문하에 중국 임제종(臨濟宗)의 개조(開祖)인 임제의현(義玄)이 있고, 그 법어(法語)는 배휴(斐休)가 집대성해 <황벽산단제선사 전심법요(傳心法要)>(1권)를 남겼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희운 스님이 천태산으로 가다가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같이 가게 됐다. 이들은 서로 나란히 걸어가는 중에 길이 끊어지고 큰 개울이 가로막혀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같이 가던 스님이 강을 건너가자고 재촉했다. 희운 스님은 건너가고 싶으면 혼자 건너가라고 말했다. 그 스님은 평지를 가는 듯 조금도 물에 젖는 것이 없이 물을 건너 희운 스님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에 희운 스님이 말했다. '스스로 깨달은 척하는 놈아! 내가 일찌감치 알았다면 반드시 너의 정강이를 부러뜨렸을 것이다.' 그러자 그 스님은 찬탄했다. '진실로 큰 법기로다. 나는 미치지 못한다.'" 이 본문의 내용을 중국학자 오경웅은 선학의 황금시대에서 이렇게 새겼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심체를 얻으려면 사소한 마음의 집착을 없애야하며, 혹은 적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진정한 지혜의 샘솟는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력을 흩뜨려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벽의 일심(一心)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無心)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근본 마음–심체(心體:fundamental Mind)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무심을 통해서다." 이러한 무심의 세계를 가기위해 수행 정진했던 황벽 선사의 시 "뼈를 깎는 추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들 어찌 매화가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라는 박비향(撲鼻香)이 생각나는 시간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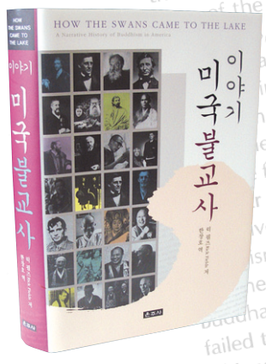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배휴증시(裴休贈詩)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불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와 그 현장!

전 세계 모든 불교가 공존하는
미국불교의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 미국에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었는가?
- 미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애쓴 주요 포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
- 미국인으로 불제자가 되어 활약한 사람들은?
- 미국 내의 일본, 티베트, 중국, 한국, 베트남 불교도의 활동 및 계보는?
- 미국불교의 특색은 무엇인가?
- 미국인에게 불교는 무엇이며, 미국불교의 미래는?
- 유럽인들과 불교는 어떻게 만났는가?
- 미국불교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교훈은?



릭 필즈 저, 한창호 역/
신국판양장/672쪽/30,000원

이야기 미국불교사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한국의 불교문화가 한 손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한국불교문화사전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 · 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00여 개의 표제어와 150여 컷의 사진으로 꾸민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길을 묻는 이에게

모든 망상이 드는 것도 바로 자기 주처에서 내는 것입니다

망상을 끊고 싶어요

문 언제나 밝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스님, 저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좌선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망상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는지요?

답 만약에 선생님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도를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건 끊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나오느냐?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의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관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이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자유스럽게, 생각할 일이 없으면 꽁지에 꽁지를 물고 망상이 일어나는 거, 그저 내일 모래 한 달 후의 일인데도 그냥 오늘서부터 그날까지 그냥 속을 썩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주인공에 맡기시고 침착하게 있으면 그때에 몸으로 할 거는 몸으로 하고 말로 할 거는 말로 하고. 보이지 않는 데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바로 거기서 하거든요. 그럭하면 모든 일이 다 아주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도 항상 근본이 당신이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형성시켜 놨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생각을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생각을 안 내게 하는 것도 당신이니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일임시키세요. 다 놔 버리세요. 모든 망상이 드는 것도 바로 자기 주처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놔 버리고, 또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전부 주처에서 들이고 내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처를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이고 꼭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망상을 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녹이라 이 소립니다.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편안하지요. 그렇게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시간과 공간도 없다고 하지만…

문 예전에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조금 읽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실상은 원래 시간과 공간도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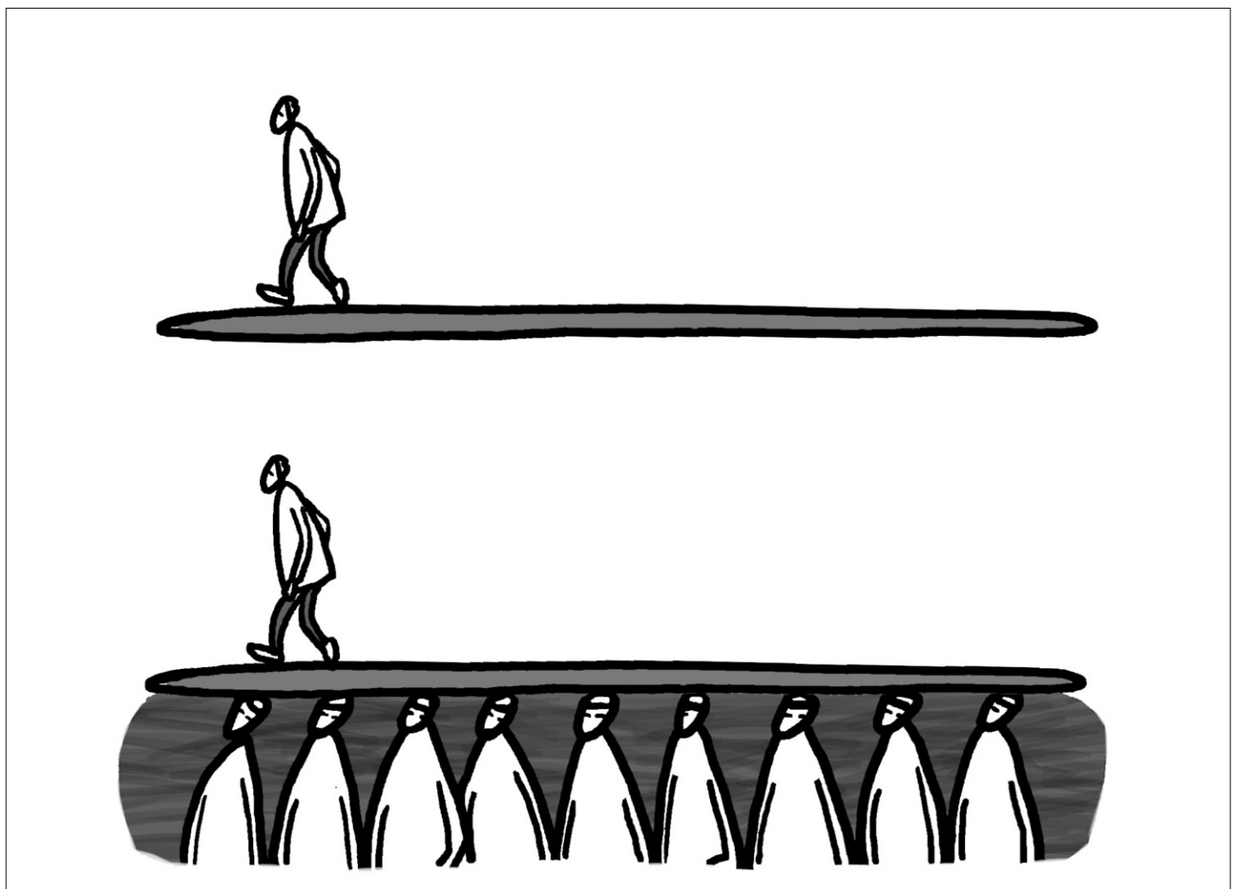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때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습니다. 우리 근본자리는 그대로 묵묵히 작용하면서 영원한 그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살아 있기에 '옛 것이다, 옛 것이 아니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 육체로 인해서 옛날이다 지금이다 조상이다 후손이다 말들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이다 재작년이다 올이다 내후년이다 하고 말들을 해 놓은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천차만별로 살아나가자니 문란치 않게 질서를 지켜야 하겠기에 우린 이름을 지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속된 꿈이지마는 지속된 실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된 삶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의 도리가 생로병사를 통한 고집멸도 사제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화라는 과정에 의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어떠한 진화력을 얻어서 탈바꿈을 하고 자꾸 지속된 한 발을 떼어 놔야겠기에, 그 과정은 고가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해서 고집멸도라고 말씀을 했겠죠. 사계절이 그대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추위를 무릅쓰고, 또는 더위를 무릅쓰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떨어졌다 피고 떨어졌다 피고 이렇게 지속되는 나날을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계발을 한다면, 나무와 나무를 접을 붙이듯 열매와 열매가 모양이 달라져서 나오게 만들고,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진화력으로서 창조력을 키우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정신 개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마음으로서, 한마음으로서 존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이 있다 할지라도 성냥을 그어서 갖다 대지 않으면 불이 되지 않듯이 그거는 누가 켰든 간에 내가 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켜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 아니라 마음의 불이죠. 그러니 안팎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작용하는 것이 전부 바로 나의 그 생명의 실상이 있기에, 거기는 없다 있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이기에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실상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도 몸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자기라는 그 자체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움죽거리고 있죠. 꿈을 꿨다 안 꿨다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지마는 항시 밤낮이 없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잠을 자도 잠이 없고 낮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없고. 여러분은 몸이 다니니깐 내가 다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나 아닌 참나가 있기에 바로 내가 움죽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꿈에는 꿈대로 내가 움죽거리는 게 아닌가요? 바로 나 아닌 내가, 그 분신이 움죽거리고 있는 그건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환상입니다. 생각 없는 일을 하는 법이 없고 생각 없는 일을 설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나기 이전에 인연의 소치로 만난 인연들이죠. 꿈에서는 우리가 하루를 지낸다 하면 일 년을 지낸 듯이, 하룻밤에 일 년을 지낼 수도 있고 삼 년을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수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살다가 끝을 마치지도 못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선 깨다 보면 새로 한 시다 새로 두 시다 세 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깨 보니깐 그렇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 도달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을 따지면서 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는데 왜 그걸 따져야 하느냐? 한두 사람이 산다면 따질 필요도 없지만 천차만별로 모두 여러 생명들이, 아니 여러 물체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시간도 정해 놓고 달도 정하고 해도 정하고 날도 정했죠.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는 충성이나 효도도 없을 것이고 아주 고등 동물의 행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질서를 지키게 해 놓은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도 현실에도 미래에도 우주 삼세를 두고 말할 때, 우리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몸바꿈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과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과거에 수없이 탈바꿈을 해 가지고 자기 형상을 형성시켰건만 자기는 그것을 아예 모르는 채, 지금 현

☞26면으로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buddhanews.com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25면에서 계속

실의 형성된 나가, 바로 내 모습이 난 줄 알고 시간만 따지고 급급해서 날짜만 보고 애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참자기의 근본이 있는 줄은 모른 채 자기가 그냥 자기라고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고 옛 사람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작용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자기의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인연의 업보를 지을 수도 있고 인연의 업보를 부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의 업보를 짓지 못하는 것은,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사를 자기가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보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습은 지속될 수 없지만 참자기는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입니다. 유생 무생이 한데 합쳐지고 일체 만물이 다 합쳐진 이 내공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기가 할 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깐 아니다 기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 이 자리에, 꿈이다 생시다 이러한 게 붙지 않는 자리,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과 그 말이 붙지 않는 자리, 생사윤회도 붙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달을 할 수 있고 상신할 수 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살아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랍니다. 그림그리는 게 좋아서 열심히 그리기는 하지만 내 혼을 다 실은 작품은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님, 저도 마음을 다하여 살아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답 어느 시골에 떠꺼머리 총각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나무를 태우면 숯이 나오는 그걸로 항상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는 했어요. 근데 하루는 여자 생각이 나니깐 여자를 그려 놓고 집에 가서 실컷 자고선 저녁 나절에 나왔더니 아, 거기 예쁜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려 놓은 데서.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숯으로 그려 놨는데 말을 하네?' 하는 동시에 그 여자도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총각은 그때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으로 치면 미술이라고 하죠. 그저 어디고 붓과 먹 이런 걸 가지고선, 종이만 사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하도 그리고 그냥. 그런데 어느 산중에 들어서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그려 놓은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도, 또 살아나갈 때도 말하지 말라." 했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고선 그냥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그저 가다가 보기 좋으면 그린 겁니다.

근데 어딜 가다 보니까 노인네 한 분이 혼자 딸을 잃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울고 있거든요. 아, 시골 초막집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서 "아, 왜 우시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자기 혼자만 남겨 놓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라느냐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 그러더랍니다. 딸이 바느질품을 팔았는데 인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따님이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 큰 헝겊에다가 종이를 붙여 가지고 대필을 해 가지고는 아주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집 딸을요. 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딸과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안으로서 그 딸을 착을 놓고 보니까 아이구! 그 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고대로 그렸어요. 큰 배를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 떠억 앉혀 놨단 말입니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그래 놓고선 처억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딸이 저녁이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나는 딸을 봤다든가 딸이 이렇게 잘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비밀로 허라고 이렇게 그림쟁이가 일러 주고는 벽에다 붙여 주고 이건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고선 갔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거기서 그 딸이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밥도 해다 주고 다 그냥 또 새벽녘이면 골로 싹 들어가면 고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기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면 유심이고 유심이라면 무심이니 무심도 아니요 유심도 아닌,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린다 할지라도 산 그림이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산 글이요,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산 법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손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참나 손이 내 손으로 인도해서 그린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주인공을. 거기서 살 길이 꼭 나와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문 요즘은 자기를 희생하며 참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혼률도 높아지나 봅니다. 사실 저의 친한 친구도 죽고 못 살겠다고 우겨서 결혼하더니 남편이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차츰 마음이 변해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답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을 더 잘 알고, 자기가 넘어지면 자기 손이 제일 먼저 가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무리 자식부모지간이라도 자기 아픈 거는 상대방이 진짜 다 100%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이지 만약에 일 년이 넘어가 보세요. 불쌍만,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또 부모가 이태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 주는 게 효자고 효녀고, 그런 것뿐이죠. 빨리 죽어 주는 게 자식한테 짐을 덜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 소용이 없다 이 소리에요. 일체 만물, 물질이라는 것은 다 변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못 된다는 얘기죠.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아니, 천신 만신 고생해서 시중들고 뭐 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들입다 벌어다가 주고 이러고선 배신을 당하고. 그래, 내쫓기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떠났으면 벌써 배신당하는 거지 뭐 별 수 있나요? 몸뚱이만 있으면 뭘 합니까? 누구든지 살면서 배신을 수차 당하면서 다시 또 붙어 돌아가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이럭하면서 살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이십사 시간 동안에 한 번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한 시간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루 이십사 시간 동안에 고정되게 한 시간씩 참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이 왕자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 한 시간이 싸움으로 변할지도 모르죠, 사랑은커녕.

> 자기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인연의 업보를 지을 수도 있고
> 인연의 업보를 부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보다 나는 욕심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조금 사랑하다가 치울 거라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와도 조금 살다가 그냥 변질되고 없어질 물건이라면 차라리 물건으로 나오질 않겠다 이겁니다. 물건으로 나오더라도 아주 변함도 없고 남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눈요기도 시킬 수 있게 나온다면…. 그런데 그렇게 보여 주기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차라리 그저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여러분이 사는 대로 좇아서 그냥 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으로 지내려면 나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가발전소에서 모든 불을 켜서 방 안을 다 밝게 하면 눈이 컴컴하질 않아서 "여보! 여기 있으니 잡숴요." 이럴 수도 있고, "얘! 여기 있으니 먹을 거 먹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마는 방이 캄캄하면, 내가 불을 안 켜면 캄캄한 거죠. 방통이 다 캄캄한데, 전부 눈이 캄캄한데 뭐를 봐서 사랑이고 뭐고 있겠어요?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구, 세상에, 사랑들 한다고 그래 봤자 내가 보는 바에는, 기껏 털고 닦고 해 먹이고 해 주고 빨아 입히고 이래도, 그리고 또 남자들은 그 고생을 하고 손발을 널리고 이렇게 해서 기껏 벌어다가 줬는데 말이죠, 여자가 씀씀이를 헤프게 그렇게 쓸 때에는 '아이구! 이거 정말이지 너무하는군. 너무하는군, 모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봐서 하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죽어도 살아도 더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먹을 게 없으면 죽거리라도 얻어다가 같이, 숟갈 두 개를 꽂아 놓고 같이 먹을 지언정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나는. 단지 인간의 참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까짓 것 거적을 쓰고 죽으나 좋은 공단 이불을 쓰고 죽으나 그게 무슨 상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하는 말이 있지만, 본래 죽고 사는 게 없이 같이 사는 겁니다.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부동한 능력으로써 바로 그 모든 거를 활용하고 움죽거리게 되니까, 이 육신이 무너진대도 불과 법이 둘이 아니기에, 우리가 삶을 보람 있게 살면서 항상 나 아님이 없이 즐겁게 산다는 얘깁니다. 어느 것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 변소엘 가도 같이, 언제나 같이 해 주는 그 영원한 사랑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외계인이 있을까요?

문 얼마 전 기개일식이 일어날 즈음에 중국에서 만두 모양의 비행 물체를 발견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스님께서는 화성에도 뭔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스님께서는 정말 외계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화성에도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마 맞을는지도 모르죠. 왜? 모습이 꼭 보여야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모습 없는 모습으로 이것은 우리보다도 벌써 한 계단 초월해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안에서도 모르게 어떠한 지역에서 살면 외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모르는 고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그러한 생명들이 우리보다 더 고도로 발달이 돼서 사는 분들도 또 있죠. 우리만 이렇게 고도로 발달을 만들고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인간으로만이 우리만 산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겁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모두가 의무 · 책임 다해야 좋은 나라

지난 6일 임진강에서 갑작스레 불어난 물 때문에 여러 명이 실종 ?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긴급한 사고가 일어난 급박한 상황을 파발을 띄워서 알려주던 시절도 아니고, 모든 재해방지 체제가 일사불란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21세기가 아닌가? …." 의문은 꼬리를 물로 이어졌다.

그런데 설사 사람 목소리나 봉화로 위험을 전하던 시절에도 이런 식의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식의 사고는 장비의 현대화 문제라기보다는 인명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이 북한에서 남쪽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임진강 상류의 댐을 방류한 데서 비롯됐다.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왜 전 국민이 화를 내며 정부를 성토할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남북이 대치하며 항상 긴장이 감도는 곳이다. 군 당국이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 찰나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키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과연 우리 군이 긴장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보초병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 확인하고 상급자에 보고한 것이 오전 2시 50분경이었고 단계를 거쳐 합참본부까지 상황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5시 35분이었다고 한다. 세 시간에 가까운 그 사이는 안전 공백 시간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강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도 아무런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5시 15분경 물이 불어나자 병사들은 전차 한 대를 버려둔 대 간신히 몸을 피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임진강 물이 불어나 수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군 당국은 군 이외의 관계기관이나 민간에 이 사실을 하나도 알리지 않았다. 임진강 수위 상승이 국가 기밀도 아닐 것이고, 혹 100보를 양보해서 그것이 최고의 국가기밀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훈련 중인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분초를 다투어 상황을 널리 알리고 함께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옳지 않는가?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한 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군을 위해 쓰이는 막중한 국가 예산을 부담하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데도 국민들은 계속 이 무거운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이번 사고의 제1차 책임이 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부 기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민 ? 관 ? 군 합동으로 여러 차례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논의해왔으면서도 막상 사고가 생기면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서로 "저쪽에 책임이 있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살기 좋은 나라는 국민 소득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살아가는 국민이하며 이런 사고 위험 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맹자(孟子)는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不爲也, 非不能也.)"고 했다. 여기서 한 번 정부 당국자에게 물어보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할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인가?" 맹자는 또 이런 말도 하였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으나, 자기 스스로 지은 재앙에는 살 길이 없다."정부 당국은 이번 사고가 '스스로 지은 재앙'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산사음악회의 포교 아이콘은?

가을빛이 역력하다. '일엽홍 천하추(一葉紅 天下秋)'라 했다. 한 잎만 붉어도 천하에 가을이 온 줄을 알겠다는 것이다. 산사음악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 건 사찰들이 많다. 가을은 산사음악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근래 들어 불교계가 세상을 향해 베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을 꼽으라면 단연 템플스테이와 산사음악회 그리고 산사요리가 우선일 것이다.

각종 문화축제를 통해 사찰이 얻는 무형 유형의 이익은 매우 크다.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웰빙 시대에 매우 적합하다. 이를 잘 계발하여 세상에 공양 올리는 것은 불교계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일 수도 있다. 사찰요리와 산사음악회 그리고 템플스테이는 우리시대에 있어 포교의 가장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사찰이 진행하는 문화행사들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포교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통계 내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또 사찰이 진행하는 문화 행사들이 어떤 측면에서 효용성을 인정받고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가를 꼼꼼히 체크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는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의 자세가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사찰의 문화 행사는 불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전법의 촉매를 만들어내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산사음악회의 경우 음악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보다 내실 있는 기획과 유쾌한 진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사와 인연 맺는 음악회가 풍성하게 열리길 기대한다.

노후보장이 청정수행의 '힘'

사회복지법인 연꽃 마을이 스님들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뿐 아니라 종단협의회에 가입한 종단 소속 스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수를 보낼 일이다.

세상이 고령화 사회로 변했듯이 승단 역시 고령화 시대를 맞았다.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승단에서 노후복지가 부실하다는 것은 수행에 결정적인 취약점이다. 스님들의 노후보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무소유의 정신을 지키면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설사암을 짓는 불사가 끊이지 않고 대중생활의 청정 가풍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특히 조계종의 경우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 획기적인 제도 정착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스님들이 '토굴'이라는 명분 아래 암자를 지어 사유하게 되고 재산 유지를 위해 이런저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수행자의 위의와 계율정신이 한꺼번에 퇴색하는 것이다.

노후보장이 의욕적인 수행의 밑받침이란 점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각 종단의 노후보장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가운데 연꽃마을의 간병비 지원은 승단에 새로운 희망이다. 동시에 노후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역설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현불만평 박구원



아기많이 낳는게 나라 사랑 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독서삼매경도 수행의 한 방법

9월의 테마-독서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 교무실에 오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틈만 나면 PC방에 가거나 집에서 몰래 컴퓨터게임에 몰두하여 걱정이 태산이라며 하소연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게임을 못하게 하면 크게 반항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장래희망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면 90% 가까이 컴퓨터 프로게이머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면에 한 달에 책 한권을 읽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니 아쉬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의 독서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그가 모든 시간을 컴퓨터와 그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함께 보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서는 박식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멀티미디어시스템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역시 책으로 전달됩니다. 나는 평일에는 한 시간 주말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반드시 책을 읽습니다. 관심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일간지는 꼭 읽고 매주 잡지 몇 권, 주간 한권도 읽습니다. 만약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만 읽는다면 다양한 지식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없기에 자서전, 전기, 회상록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 여정을 살피고 사업서적, 과학서적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게이츠도서관 재단을 설립했고 세계 최고 기부액인 2000만 달러를 도서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포위망에 든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적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었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먹을 것, 땔 것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추위와 기아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몸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책을 읽었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을 읽고 또 읽었어요. 아마도 몇 백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녀가 살아남긴 대답이었습니다. 책읽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러시아민족의 대표적인 독서이야기입니다.

육체적 · 정신적 성장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독서의 영향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독서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 소위 '문제아'에게 독서치료의 효과가 커지고 있고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시키며 사고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부모들도 TV와 컴퓨터를 멀리하고 무조건 공부하라는 야단보다는 먼저 책을 들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한 낮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불자 가정에서부터 독서삼매경에 빠져드는 것이 수행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병훤
대전 보문중 교법사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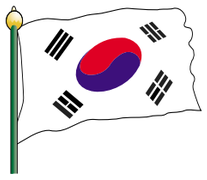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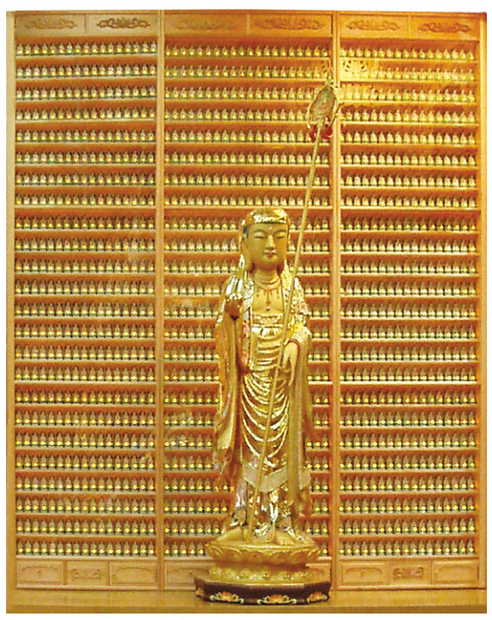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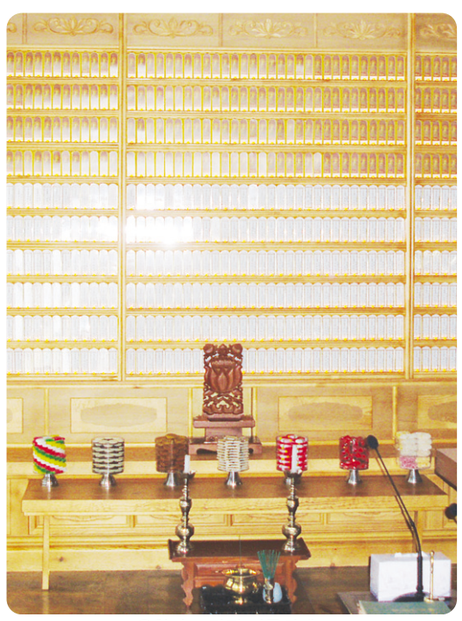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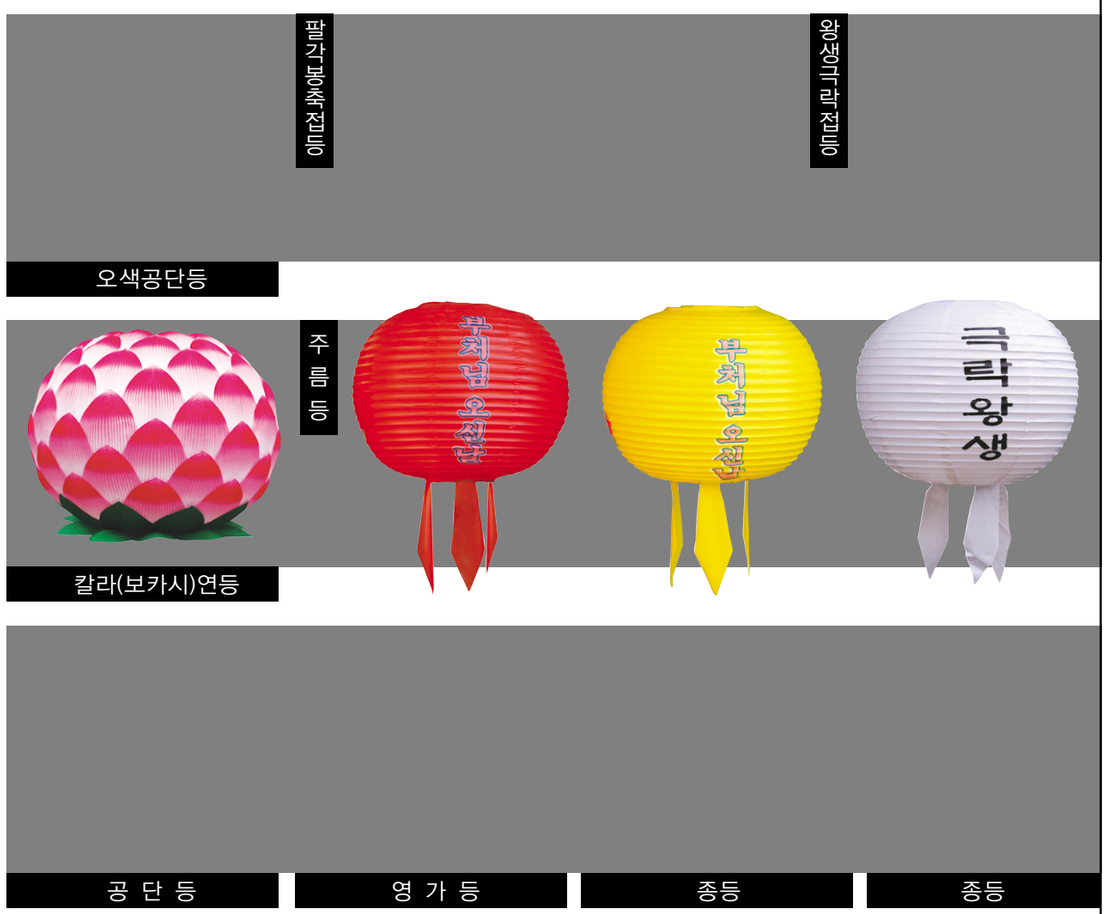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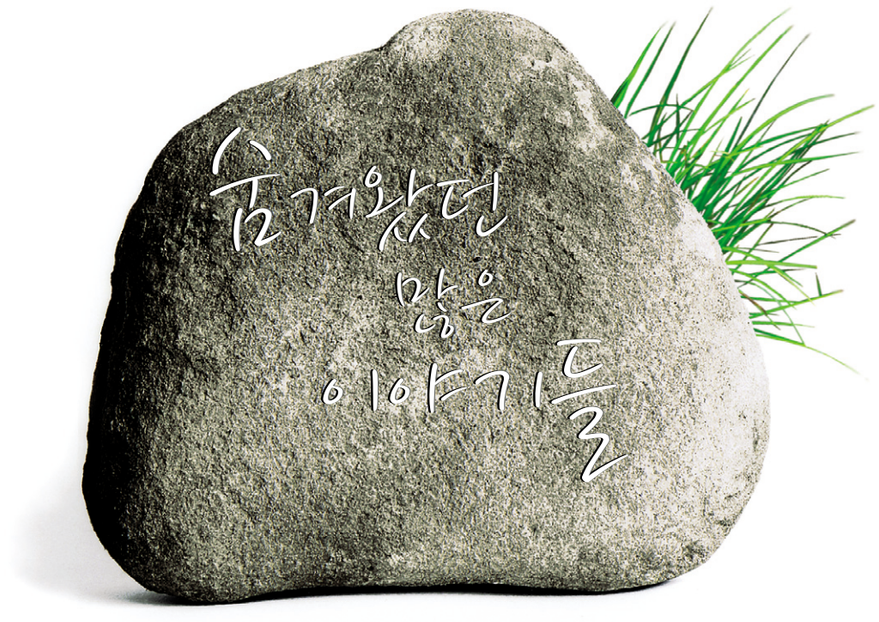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도서출판 國芙카르마

삼중큰스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진실한 삶, 인생이야기와
구도자의 이야기를 적은 **자전에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평생동안,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온 삼중큰스님!
많은 사형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남들이 꺼리는 궂은 일을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삼중큰스님의 이타행은 많은 불교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노인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것까지가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수박이나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도였던 셈이다. 삶은 그러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노인 역시 그런 삶의 실상을 탓하지도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비슷한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인은 말년의 마음 씀씀이로 박복한 삶의 빚을 다 갚고 떠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 삼중스님 저 | 신국판 변형 335쪽 12,000원
이 책의 수익금은 노인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구입신청 051)583-9923~5
우체국 : 601161-01-006913 (예금주 : 삼중원)